

모여
서
움·직·이·다



인권운동사랑방 20년 그리고 내일





■ 책을 내며

인권활동가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늘 어디에선가 고군분투했지만 우리의 인권 운동은 어떤 힘을 쌓아가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꼬리표처럼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그것에 20주년이 주는 무게감이 더해져 작년 한 해 인권운동사랑방이 지나온 20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993년 새로운 인권운동을 펼쳐보겠다는 포부를 담아 창립하고 10년이 흐른 후 ‘진보적 인권운동’의 뜻을 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났습니다. 2013년 우리는 다시, 변혁을 꿈꿉니다. 지난 20년 사람다운 삶의 자리를 만들겠다는 열망을 놓은 적이 없지만 그렇게 온 길은 언제나 쉽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더 팍팍해지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세상을 바꾸겠다던 포부는 점점 사그라지는 현실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다시 그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 질문과 마주하면서 얻은 작은 성찰과 고민을 나누고 싶습니다. 세상을 뒤집을 ‘조직책’이 되고 싶은 소망을 담아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꼭꼭 담아 펼쳐내 봅니다. 모여서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힘을 기대 하면서요.

지금 여기에서 다시, 변혁을 꿈꾸는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참 가까우면서도 먼 인권을 저마다의 현장에서 끌어당기며 고민했던 바를 이어말하고 싶었습니다. 일상, 관계, 활동 속에서 어제의 고백이기도 하고 내일의 다짐이기도 한 이야기들을 도란거리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더 넓고 깊게 인권의 씨앗을 틔우고자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분리 독립한 인권연구소 ‘창’, 인권교육센터 ‘들’, 서울인권영화제, 따로 그러나 같이 하는 인권운동의 길 위에서 서로 기대며 건네는 이야기도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숨 고르며 지나온 20년의 발자취를 돌아봤고, 지난 20년을 함께 만들어준 그

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많은 분들의 목소리가 샘솟고 흘러넘치며 서로에게 든든한 기운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비록 빼곡한 글자가 가득한 책이지만,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는 손짓이 경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주한 이야기가 저마다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뒤집고픈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의 삶에 닿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행복한 상상을 해봅니다.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고 다시 내일을 그리는 시간은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의 길동무이자 스승이 되어준 소중한 사람들이 함께 떠오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세우며 지붕을 올려주신 분들, 강기훈, 강성준, 고은채, 기명문, 김명수, 김보영, 김삼석, 김수경, 김영원, 김은영, 김일숙, 김정아, 김정희, 김정희, 노태훈, 류은숙, 박래군, 배경내, 범용, 미숙, 서준식, 선영, 성진, 심보선, 심태섭, 엄주현, 염규홍, 유라, 유리, 유점열, 유해정, 은진, 이광길, 이대훈, 이성훈, 이숙현, 이재영, 이재용, 이주영, 이진영, 이창조, 장소영, 허혜영…….

그리고 인권운동을 응원해주시며 안팎으로 마음을 모아주신 너무도 많은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함께 꿀 그 꿈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지기 위해 그동안 품고 새겼던 포부와 다짐을 다시 기억하며 실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13년 9월 28일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 드림

▮ 책을 내며

● 지금 여기에서

▮ 다시, 변혁을 꿈꾸며

○ 이어말하다

- 20 ▮ 길동무가 되고 싶습니다 _ 미류
24 ▮ 인권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 _ 이미숙
28 ▮ 우린 말한다, 여기 사람이 있다 _ 정영신
32 ▮ 나, 사람 사이에서 사람스러워지고 있구나 _ 랑
36 ▮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 _ 몽

○ 도란거리다

- 42 ▮ 인권운동사랑방이 반월·시화공단에 간 까닭 _ 정록
46 ▮ 인권으로 말 걸기 _ 호연
49 ▮ 2013년 9월에 쓰는 글 _ 세주
52 ▮ 얼굴을 새기는 관계를 꿈꾸며 _ 민선
56 ▮ 여기, 머무를 권리 _ 미류
60 ▮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는 걸까?? _ 훈창
64 ▮ 당사자 - 돈음 - 활동가 _ 윤미
68 ▮ 조직 문화로서 반성폭력 혹은 여성주의 _ 초코파이
71 ▮ 사람의 꿈과 힘을 불러일으키는 운동 _ 명숙
75 ▮ 오래된 것들에 대한 관찰 보고 _ 유성
79 ▮ 우리의 '인권'은 옳은가-북인 던져준 고민 _ 아해

- 82 | 함께 모이자, 싸우자 _ 최은아
86 | 두려움의 무게 _ 홍이
88 |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거야” _ 박석진
92 | 인권운동사랑방, 다시 걷다

○ 서로 기대다

- 98 | 사랑방 20주년에 부치는 글 _ 류은숙
101 | 한밤중에 사랑방을 떠올리니 _ 한낱
104 | 새로운 봄을 기다립니다 _ 은진

● 숨고르다

- 108 |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돌아보다
121 | 인권운동사랑방 20년 발자취

○ 샘솟다

- 164 | 사랑방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지금 여기에서

다시, 변혁을 꿈꾸며

20년을 맞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나누고 싶은 질문



0.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 모여도 잘 움직이지 않는다.

1.

사는 게 팍팍하다, 불안하다,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먹고살기 힘들다, 바쁘다, 얘기 나눌 시간이 없다, 괴롭다, 죽지 못해 산다, 아프다, 막막하다, 사람대접 받기가 어렵다, 니가 뭔데 날 무시해, 이번엔 내가 참는다, 이러나저러나 마찬가지, 외롭다, 친구가 그림다, 먹고살 걱정 좀 내려놓고 싶다, 재밌는 일 하며 살고 싶다, 늘어지게 잠 한번 자고 싶다, 비굴해지기 싫다, 알고 싶다, 인정받고 싶다, 잘 살고 싶다, 그래도 이 맛에 산다, 바람 쐬고 싶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다. 세상이 이대로 굴러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그리 희귀한 마음이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모여서 함께 살기를 도모하지 않는다. 홀로 안간힘을 쓰며, 이 세계를 살아내고 있다. 사람들의 소박한 바람이 흩어진 채 세상에 소비되어 버리는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저마다 내는 안간힘으로 다시 이 세계가 생산되고 있다는 곤혹스러움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1.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통해 이윤을 축적하던 시도가 한계에 부딪히자 자본은 신자유주의라는 전략을 밀어 붙이고 있다. 수많은 금융상품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돈놀이가 시작됐다. 경제의 불안정성을 견디기 위해 자본은 생산 라인을 쪼개고 나누었다. 공장은 여러 개의 작은 공장들로 나뉘었다. 일손이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때 내보내기 좋은 고용형태가 늘어났다. 시간제, 파견, 하청, 도급, 중규직, 특수고용직 등. 해고가 일상화됐고 정리해고가 손쉬워졌다. 국가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던 철도, 에너지, 물 등이 사유화되기 시작했다. 사회에서 무시되던 돌봄과 보살핌의 노동들이 시장에서 상품으로 조직되었다. 복지는 이와 같은 자본의 전략에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또 하나의 경로가 되었다. 도시도 변모했다. 개발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동네를 남겨두지 않았다. 학교는 점차 따돌림과 괴롭힘을 배우는 곳이 되어갔다. 사회는 타자를 배제하면서 결속을 확인한다. 타자로 지목당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혐오가 쏟아진다. 자본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모여들면 국가폭력의 응징이 뒤따른다.

우리를 흠어 놓는 힘이 있고 사람들은 어딘가에 흠어져 있다. 흠어져 버린 불만들은 좋은 지배자를 기다리는 바람과 낫두리 사이에 갇혀 있다. 그러나 단지 사회가 변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1.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가 충격적으로 각인된 순간은 ‘인권대통령’을 자임하는 통치자가 행정의 수반이 된 순간이기도 했다. 혼자 또는 무리를 지어 국가 기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다. 세상이 이대로 굴러가기를 바라지 않던



운동들은 차츰 분화되었다. 제도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과 제도의 수용을 거부하는 경향 사이의 선이 점점 분명해졌다.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힘은 반인권 악법을 폐지하고, 비민주적 제도를 개혁하는 방향으로 수렴되어 갔다. 권력을 분산하고 민관이 협력해서 다스린다는 대의로 만들어진 기구들은 사회적 합의를 중용했다. 크고 작은 대중조직들이 흔들렸다. 물러설 수 없는 자리를 지키려 싸웠던 대중운동들은 탄압의 표적이 되었다. 정치, 노동, 여성, 환경, 인권 등으로 나뉜 자리에서 운동들은 분주하게 움직였으나 분주함이 향하는 곳이 어디인지 헤아리기 점점 어려워졌다. 민중운동은 힘을 잃어갔다. ‘반독재 민주화 전선’을 대신할 운동들의 결속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라는 꿈은 진보정당이라는 제도를 넘어서지 못했다. 운동들이 새로운 통치체제로 휩쓸려갔다. 언제부터인가 운동들은 사람들이 모여들 자리를 만들지 못했다. 애써 모아놓고도 움직이지 못했다. 운동도 법과 질서 사이에 갇혀 있다.

80년 광주를 채우며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민중의 힘을, 87년 민주화항쟁과 함께 넘쳐흘렀던 노동자의 힘을 그리워하는 것은 철없는 낭만이 되어버렸다. 낭만은 철따라 흘러가도 된다. 그러나 서로의 존엄을 세우려던 열망까지 낭만에 실어 보내서는 안 된다.

1.

소리 없이 번져 나가다가 혁명의 열기로 터져 나오는, 사람들의 힘이 없다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훌륭한 사람이, 좋은 제도가, 정치적 올바름이, 창조적인 도전이, 평화로운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 모두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스스로 새로운 질서를 선언할 때에만 세상은 달라진다. 연대와 결속의 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는 조직과 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1.

세상을 바꾸려는 운동들이 있었다. 민주노조를 만들어 노동자를 억압하는 자본을 멈추려고 했다. 농민회를 만들어 수탈당하는 농촌을 지키려고 했다. 학생회를 만들어 학내 민주화를 넘어 한국 사회를 바꾸는 집단이 되고자 했다. 인권의 가치로 세상을 물들이며 권력을 무너뜨리려고 했다. 같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힘을 모아 누구도 차별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다. 사람대접 받으면서 사람답게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던 사람들이 그 자리로 모여들던 시대가 있었다.

사람들이 모여들던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만났다. ‘내가 겪었던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만’ 겪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의 근본을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었고 ‘내가’ 누구인지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한 싸움을 함께 결행할 수 있었고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을 나눌 수 있었다. 그 힘이 조직을 넘어 세상으로 넘쳐흘렀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 자리가 넓어졌다.

그런데 사람들이 점점 모이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조직은 사람들을 매혹하지 못했고 조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시당했다. 과거의 조직은 낡은 형식이라는 냉소와, 그래도 조직이 중요하다는 강변 사이에서 사람들은 모여들 자리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시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1.

조직 형식이 낡거나 새로운 것이 문제가 아니다. 어느 때에도, 사람들이 쉽게 모여들었던 것은 아니다. 조직을 만들어 내는 운동의 감각이 문제다. 새로



운 관계와 장소들을 열기 위해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운동의 감각이 필요하다. 들으려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 사이, 말하려는 것과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 사이에 빈자리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기대며 달라질 수 있어야 한다.

조직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는 곳이 아니다. 단절된 싸움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문제를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다. 같은 문제도 저마다 다르게 인식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다.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의 경험을 집단적인 경험으로 번역할 수 있는 관계가 조직을 통해 만들어질 때 단절이 가능해진다. 조직은 같은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오히려, 세상이 강요하는 자신의 위치를 이탈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집단적 이해관계를 구성해내는 곳이다. 조직은 그것이 가능한 장소여야 한다. 자유를 갈망하고 평등을 예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이 조직을 넘나들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만들어지는 힘을 비축하는 곳이 아니라 흘러넘치게 하는 곳이 조직이어야 한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조직되어야 할 것은 개인이 아니라 관계다. 조직된 개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 물론 그저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으로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관계의 힘이 무엇을 겨누도록 할 것인지 물어야 한다.

1.

운동은 우리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음을 설명하려고 했고 그걸 ‘체제’라고 불렀다. 그런데 운동들은 제각각 세상을 인식하는 틀에 사람들의 목소리를 끼워 맞추려고도 했다. 체제를 분석하기 위한 틀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에만 ‘체제’가 등장하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더 이상 ‘체제’는 없다는 주장들이 또 다른 틀이 되었다. 들리지 않는 목소리들은 삭제되어갔고 말할 수 없는 목소리

들은 융성거림으로 남았다. 그래서 ‘자본’, ‘노동’, ‘분단’, ‘가부장제’, ‘차별’과 같은 단어들은 앙상하기만 하다.

그러나 체제를 보고 설명하려는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누군가 권리의 양보나 타협을 요구받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운동이 체제를 이해하려고 했던 것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더 잘 듣기 위해서였다. 사람들이 어떤 위치를 강요받는지, 사람들의 힘은 어디로 향하는지, 세상은 그 힘들을 어떻게 엮거나 끊어 놓는지 보기 위해서였다. 그래야 세상을 바꾸기 위한 힘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문제를 낳는 물적 조건들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 우리는 ‘노동’이나 ‘생산관계’를 보지 않고 우리를 이해할 수 없다. ‘정체성’을 통하지 않고, ‘가치’에 대한 분별 없이, ‘언어’에 대한 통찰 없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인간은 노동력만으로 환산될 수 없으며 정체성으로 환원될 수도 없다. 가치를 따라서만 움직이지도 않으며 언어를 통해서만 소통하지도 않는다.

체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각각의 틀은 우리들의 삶을, 세상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주고 시선을 만들어주지만 언제나 살아 움직이는 현실로부터 미끄러진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아니라 가능성이다. 그 가능성을 독려하기 위한 운동들의 관계를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각자가 미끄러지는 자리에서 다시 보편을 향해 발 딛을 수 있는 자리들이 되어주는 관계.

1.

대중조직들이 결속해서 체제를 변혁하자는 전망을 그렸던 시대가 있었다. 대중조직들이 쇠약해지면서 변혁의 선동은 무기력해졌고 결속은 미약해졌다. 여러 집단으로 나뉜 운동들은 변혁의 꿈을 나눌 동료들을 잃어갔다. 아이와 어른, 노동자와 소비자, 이성애자와 동성애자 등으로 인간집단을 분할하는 것



은 통치의 전략이기도 하다. 시간과 공간을 분할하고 각각에 다른 원리가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동등한 사람이라는 인식은 쉽게 잊힌다. 운동들도 서로 멀어지면 그것을 놓치기 쉽다. 주요한 문제와 부차적인 문제를 헤아리려는 노력이 중요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분하는 것과 혼동되기도 했다. 때로는 집단과 집단의 대립이나 갈등이 본질화되거나 무시되었다.

전망이 희미해진 자리들을 여러 연계들이 채워서 버티고 있다. 결속을 부르짖는 것도, 연계로 충분하다 말하는 것도 부족하다. 쪼개진 운동들을 넘나들 수 있는, 서로의 통찰을 나누며 북돋을 수 있는 연결이 복원되어야 한다. 운동들의 연결은 각각의 자리에서 보편의 실마리를 찾으며 한걸음씩 서로를 향해 갈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운동들의 위치와 관계를 모색하면서 체제에 맞설 힘을 만들어낼 공리를 해야 한다.

노동자, 여성, 청소년, 장애인, 시민, 학생, 성소수자, 홈리스, 철거민 등의 이름들은 ‘사람’에 붙을 수 있는 여러 이름들 중 하나일 뿐이다. 다만 그 이름을 통해 더욱 잘 알게 되는 세상의 진실이 있고, 서로를 응원하는 관계들의 결속이 시작되는 것이다. 운동들의 연결은 여러 이름을 통해 전해지는 이야기들을 잇고 엮어서 ‘우리’를 구성하는 노력이다. 관용이나 역사사지가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를 해치는 물적 조건들을 인식하고 연결이 가능하게 할 물적 조건들을 탐색해야 한다. 인식이나 탐색은 관조가 아니다. 기존의 관계에 스스로를 밀어 넣는 실천이다. 서로의 이야기들에서 ‘나’와 ‘세상’을 읽을 때 ‘우리’의 이야기도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는 이름 너머의 ‘사람’을 볼 수 있고 봐야 한다.

1.

‘대중’은 조직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연결의 어느 지점에서 체제를 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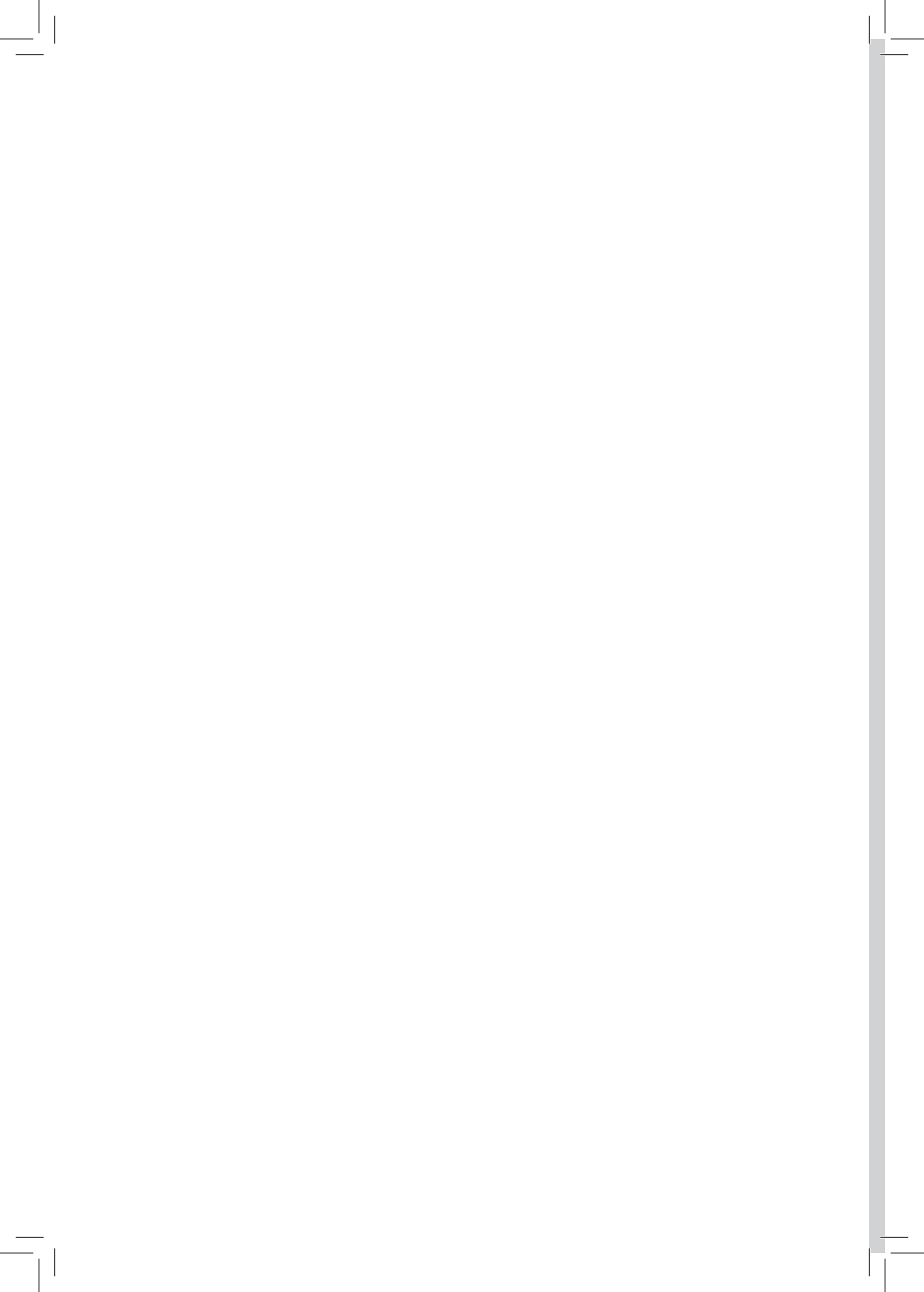
르는 힘이 세상으로 흘러넘칠 때 ‘대중’이 등장한다. 80년의 ‘민중’, 87년의 ‘노동자계급’이 그렇다. 그것은 현실의 질서를 비틀으로써 모습을 드러냈다. 우리가 그 질서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은 체제의 거대한 힘을 벗어나기 어려운 조건을 구성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만 이 질서가 바뀔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저마다의 자리에서 질서에 순응하기도 하지만 벗어나려는 힘을 내기도 한다. 흩어진 자리에서 제각각의 존엄을 향해 내는 인간힘과 소박한 바람들을 엮어야 한다. 대중의 힘을 조직하자.

인권의 역사가 던져온 질문도 그 자리에 있다. 인간의 존엄은 어떻게 훼손되고 있으며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 조금씩 만들어져 온 대답들이 정의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권력을 제한하는 규범으로 굳어져 왔다. 그러나 기준과 규범으로 포획되는 인권은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지우기도 했고, 선불리 선언되는 보편은 체제를 더 이상 들여다보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인권의 힘은 대답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대답에 갇히지 않고 서로의 존엄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온 힘이 인권의 힘이다.

인권은 세계를 바라보는 태도이고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편지이고 움직임을 여는 질문이다. 운동은 움직임이고 흐름이다. 몸을 쓰는 것이고 위치를 바꾸는 것이다. 존엄을 배분하는 체제에 맞서,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는 보편의 언어를 다시 길어 올리기 위해 인권의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다.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자리에서만 인권이 살아 있는 언어일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0.

움직여야 모일 수 있고 모여야 움직일 수 있다.





이어말하다

길동무가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연결하고픈 미류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친구와 대한문 앞에서 상영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중의 적’이라는 영화는 2000년 겨울 시작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의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노동자들이 전화국을 점거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현관 입구에 쌓은 바리케이드가 경찰의 진압으로 무너지고, 노동자들이 옥상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전화국 바로 맞은편은 테니스장이었어요. 건물로 진압을 위한 사다리가 올라가고 노동자들은 절규하는데, 건물 맞은편 테니스장에 있던 사람들은 너무나 평화롭게 연습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이 한 화면 안에 담겨있었습니다. 분향소가 있는 대한문 앞도 그런 듯합니다.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과 힘겹게 싸움을 이어가는 사람들. 반독재 민주정부 시대라고 불렀던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습시다. 체제에 맞서는 사람들은 ‘빨갱이’거나 ‘이기주의자’, ‘범법자’로 불리며 고립되었고 운동들도 법과 질서 사이에서 흔들리며 연대의 힘을 잃어갔습시다.

그 영화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스스로 해산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싸움의 뭉치 계약직 노동조합에만 오롯이 맡겨지고, 함께 싸우는 사람들은 별로 모여들지 않고, 마지막까지 모였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해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큐는 승리가 그렇듯 패배도 일시적이라는 것을 힘주어 말합니다. 엔딩 크레딧과 함께 노동조합으로 모여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동료의

결혼식에서, 야유회에서 다시 만나고 모이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라는 건, 결국 그렇게 시작되는 것 아닐까요? 노동조합이든, 노동조합이 아닌 그 무엇이든, 우리가 계속 만나고 모이기를 바란다는 것. 오직 그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꿈꿀 수 있다는 것. 사랑방이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너무나 새삼스러운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영화를 보고 나서 친구와 저는 그냥 집으로 가지 못하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쌍용차 해고노동자 한 분이 왔어요. 이곳이 이들의 집이기도 하나까요.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자동차를 만드는 H20000 프로젝트가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자동차를 완성하고 뒤풀이까지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더라고요. 아주 오랜만에 몸을 움직여 차를 만든 그는 새삼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걸 다시 하려고 일터에 돌아가려고 했던 거지.” 한참은 낮설어졌을 만한 몸이 어느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문득 “아니, 내가 고작 이걸 하려고 그렇게 돌아가려고 했던 걸까? 난 이미 달라졌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고되기 전 일터에서 그가 요구받았던 노동과, 그가 다시 돌아간 일터에서 하고 싶은 노동은 이미 달라진 것이지요. 쌍용차 노동자들의 싸움은, 그저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려는 싸움이 아니라, 일하던 사람을 하루아침에 손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굴러가는 세상을 바꾸려는 싸움이 된 것 아닐까요?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 또는 사람들이 모인다는 것이 무엇일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흔히 조직이라고 하면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이해관계로 모여서 힘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조직의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고 끝일 뿐입니다. 모여서 움직인다는 것, 서로 다른 사람들과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는 움직임 자체가 운동입니다. 내가 겪었던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자리, 나만 겪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문제의 근본을 탐구하고 학습할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들여다볼 수 있고 세상이 어떻게 굴러

가는지 살필 수 있게 하는 자리. 그런 자리를 만드는 것이 운동이 아닐까요? 아마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도, 대한문 앞 분향소라는 이 자리도, 그런 자리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집회를 못 하게 하려고 경찰이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집회나 천막농성이 통행을 방해한다며 ‘불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길을 막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합니까, 차 세워 놓고 뺑 돌아가게 합니까, 여기로 가면 안 된다고 줄 들고 서서 길을 막습니까. 우리는 서로 가까워지기를, 사람들 속에 있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이 싸울 때에도 그렇듯, 우리가 이미 아주 가까이에서 서로 기대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흩어놓는 힘도 분명히 보입니다. 홀로 인간힘을 쓰며 이 세계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그 인간힘들로 다시 이 세계가 생산되고 있다는 곤혹스러움. 하지만 우리는 서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여야 합니다. 말할 권리가 들릴 권리이듯, 우리는 언제나 관계 속에서만 각자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인권이 만남을 주선하는 초대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읽고 새로운 움직임을 여는 질문이 되면 좋겠습니다.

대한문 앞에서는 <평등예감_‘을’들의 이어말하기>가 몇 차례 열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듣기 위해 대한문 앞에 모였습니다. 그이들은 노동자로, 성소수자로, 청소년으로, 장애인으로 불리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이들의 소개는 이렇습니다. 나를 잃지 않고 일하고 싶은, 이름을 불리고 싶었던,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잃어버린 시간으로부터 살아남은, 평범한 삶의 차이와 차별을 다시 묻는, 일상의 자리를 되찾고 싶은, 난 사장이 아니라는……. 이 세계를 살아가는 누구나의 이야기들 아닐까요? 지금 여기에서 함께 살아가는 서로의 이야기야말로 우리가 놓여 있는 세상을 깨닫게 해주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움직이는 연대, 그것은 권리입니다. 그리고 질문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일하면서 자신을 버려야

하는 순간을 맞부딪치게 될까요? 왜 우리는 스스로 불리고 싶은 이름으로 불릴 수 없나요? 시간과 공간을 빼앗아 삶도 지워버리는 일들은 왜 일어나나요? 이 질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를 보여줍니다. 변혁은, 다시 이 질문들에서 출발합니다. 저마다의 소박한 바람들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이 언제나 저항의 언어일 것이라고 순진하게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한 순간 긴장을 늦추지 않았고, 고단함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위안을 삼기에는 다시 걸어갈 길이 잘 보이지 않더군요. 다만, 우리가 ‘인권’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동안 그것이 누구의 언어가 되어 어디를 겨누고,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는 자리에서만 인권이 살아있는 언어일 수 있다면, 그 관계 속으로 스스로를 밀어 넣으며 그 자리를 ‘지금, 여기에서’ 만드는 것이 인권운동이어야 한다는 걸 다시 걸어가는 길의 이정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몸을 쓰고 움직이고 흐름을 만들면서, 다시 변혁의 꿈을 피워보려고 합니다. 서로의 길을 들여다보게 할 길동무가 되고 싶습니다.

인권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

공장의 담벼락을 넘고 싶은 이미숙

경기도 안산에 있는 반월시화공단에는 수많은 중소기업체들이 있습니다. 원래 태생이 중소기업을 집중유치하고, 서울에 있는 공해업체나 부적격업체들을 한곳에 모아 두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20인 미만 소규모영세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최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정착되어 있는 전국 최저수준의 노동조건과 파견노동으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비정규노동자들이 넘쳐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곳 반월시화공단에서 공단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단 이름이 '월담'입니다. 각자의 공장안에 머물러있는 노동자들이 공장과 공장 사이에 쳐진 담장을 허물고 함께 만나서 우리에게 배제된 권리를 되찾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함께 무언가(?)를 도모해 보자는 깊은 뜻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 인권운동사랑방을 만났습니다.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인권운동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리고 선입견도 있었지요. 노동권과 인권은 별개의 것이고, 노동자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전문성이 강조되고 특화되어 있는 운동? 노동운동의 딱딱함 보다는 뭔가 프리해보이고 세련되어 보이는 사람들? 뭐 이 정도의 환상 또는 선입견. 인권운동과 공단조직사업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만나고서야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인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권이 뭐지?

제가 전에 활동했던 노조에서는 매년 외치는 핵심구호가 ‘인간답게 살고 싶다’였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것이 뭘까? 그때도 입으로는 외치면서 머릿속으로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구인으로 태어나서 숨을 쉬는 동안에는 밥을 먹고, 똥을 싸고, 잠을 자야하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누리는 것이 인간답게 사는 걸까? 쫓겨나지 않고,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 게으르게 쉬고, 내 마음대로 표현하고, 아픈 곳을 치료 받고, 일한 만큼 대가를 받고,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고, 권력자에게 빼앗기지 않고, 다른 이들과 차별당하지 않고. 이런 게 인권일까? 결국 인권과 노동권은 별개의 것이 아니며, 우리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단에서는 이런 권리들이 아주 쉽게 무시당하고 통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들은 ‘그냥 노동자’일뿐이지, ‘인권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제된 사람들

얼마 전 저는 반월공단에 있는 휴대폰 안테나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파견업체를 통해 들어간 그곳에서 저의 처음 이름은 ‘000시스템’이었습니다. 저를 파견한 업체 이름이 ‘000시스템’이었거든요. 그곳은 아침 8시에 모여 회사 관리자의 온갖 잔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하는 동안에는 잡담을 하지 말고,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만 가야하며, 팔꿈치를 작업대에 붙이지 말고, 의자에 등을 기대지 말고, 머리는 묶어야 하며, 모자는 쓰지 말고, 옷은 단정해야 하고, 반바지도 안 되고, 운동화는 구겨 신지 마라. 당최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일하다가도 작업속도가 느린 사람이나, 몸이 안 좋은 사람, 반장 맘에 안 드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해고는 몇 분 만에 아주 신속 깔끔하게 이뤄졌습니다. 이틀을 일하고도 임금근거녕 그 몸으로 어디 일을 나왔냐며 모욕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임신 4주차의 여성도 있었습니다.

대박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A반 B반 모두 합쳐 여성이 7~80명 정도가 일했습니다. 작업시간동안에는 화장실을 못가니 쉬는 시간 15분 동안 모두 해결을 해야 하는데, 문제는 화장실이 단 3칸뿐이라는 겁니다. 7~80명이 3칸이라니! 그렇게 저의 쉬는 시간 15분은 화장실 줄서는 것으로 흘러갈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누군가 똥이라도 누올라치면 모두들 미쳤냐고 난리가 납니다. 결국, 공장에 있는 14시간 동안 똥은 절대 누워서 안 되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은 또 왜 이리 들쭉날쭉 인지. 원래 낮 12시부터 정해져 있는 점심시간은 그날 물량에 따라 30분이고, 1시간이고 예고도 없이 늦어지는 것은 일상다반사고, 원래 한 시간이었던 점심시간이 30분으로 줄어드는 건 반장언니 말 한마디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작업 종료시간만 바라보고 일하던 제게 또 한 번의 청천벽력 같은 반장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물량 마무리가 턱없이 모자라네. (밤)10시까지 잔업, 빠지는 사람 없지?’ 그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집니다. 뒤도 안돌아보고……. 그렇게 첫날부터 밤 10시까지 강제 잔업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 정말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곳이 잔업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잔업을 찾아 떠도는 사람들. 바로 저임금의 구조 때문입니다. 공단 어디를 가나 최저임금으로 하향 평준화된 구조에서 부족한 생활비를 메워줄 것은 오직 잔업과 특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노동조건이나 노동형태에 대해 불만을 가질 틈도 없고, 그저 남의 동네 일 마냥 자신의 권리를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끊임 없이 현장을 떠나지만 여전히 공단 안에서 자신의 노동과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 파견노동자로 3개월, 계약직 노동자로 2년을 보내고 다시 계약 해지되어 파견노동자로 돌아온 그들은 노동권도, 인권도 배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로서의 권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나의 것이 아닌 삶. 이것은 과연 이들 스스로가 선택한 삶일까요?

인권, 무겁지 아니하게

여유 있게 밥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가고, 제때 잠을 자는 것이 나의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는 곳. 아주 쉽게 쫓겨나고, 게으르게 설 수도 없고, 내 맘대로 표현할 수도 없는 곳, 아픔을 참고 일을 해야 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도 없고, 함부로 무시당하는 게 비밀비재한 곳. 빼앗기고 배제되고 차별이 만연해 있는 곳. 이곳 공단에서 나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안테나 공장에서 만난 스물일곱 살의 어떤 친구는 매일 밤 10시까지 잔업을 하고, 일요일엔 특근을 하고, 철야작업도 수시로 하였습니다.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해? 그랬더니 스물일곱 살 그 친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많이 해 줘야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불안한 미래, 알 수 없는 내일, 그래서 내 권리 따위는 무시당해도 참아야 하는. 스물일곱 살이 알아버리기엔 너무도 씩씩한 현실입니다.

저는 인권이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쓰여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무겁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공단노동자들과 두 눈을 마주하고 발걸음을 맞춰 걸으며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친한 친구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이 어느 날 내게로 와서 고민하게 했던 것처럼 공단노동자들에게도 물음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권리는 뭐지?

우린 말한다, 여기 사람이 있다

또 다른 레아를 꿈꾸는 정영신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던 내가 인권운동사랑방 20주년을 맞아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를 받고 회동에 나선다는 것이 솔직히 부담이고 부끄럽다. 흔히 사람들은 인권이 좋은 말이고, 조금 멀긴 하지만 우리 곁에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도 2009년 이전엔 그랬으니 말이다. 하지만 인권이 지켜지고 보장되는 곳이 우리 곁은 아닌 것 같다. 우리 스스로도 인권을 지키려는 마음은 절실한 반면, 인권에 대한 감각은 무뎠지고 있는 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본다.

며칠 전 부천 중3동에 연대집회를 다녀왔다. 부천 중3동은 재건축개발이 추진되는 곳이다. 세입자에게는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내쫓는 개발 사업이다. 공사를 시작할 무렵 2009년 용산참사가 발생했다. 시공사였던 삼성은 용산참사가 발생한 용산4구역의 시공사이기도 하기에 눈치를 보게 되었고, 무리하게 세입자들을 내쫓을 수 없게 되자 개발을 잠시 멈췄다. 개발이 멈추기 전 쫓겨난 철거민들은 또다시 그곳에 천막을 치고 살아야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주를 한 터라 아무도 없는 그곳에 “여기 사람이 있다”고 소리치는 그들이 외로움을 견디며 살고 있었다.

4년이 흘렀다. 공사가 재개되면서 중3동 철거민들도 실낱같은 희망을 품었다. 더 이상 이 칠혹 같은 어둠이 아닌, 밝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을 것만 같은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희망은 바로 절망이었다. 4년 넘게, 죽을 수도 없는 삶을 살

있던 이들은 투명인간이었다. 세입자 대책에 대해선 언급조차 하지 않는 그들이 분양을 위해 모텔하우스 개관식을 하는 날이었다. 8차선 도로 한편에 들어선 모텔하우스는 삼성의 거대함을 보여주는 듯 했다. 그런데 그 거대함 속에서 난 다른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한쪽에선 집을 잃은 철거민들이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서있고 방송차에선 투쟁가가 흘러나오는데, 다른 한쪽에는 집을 사기 위해 길게 늘어선 사람들이 있었다. 집을 사러온 사람들은 나팔에서 흘러나오는 투쟁가에 눈살을 찌푸리고, 앞에 있는 철거민들에게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몇몇 사람과 실랑이가 있었지만 근처에 있는 경찰관은 그 광경을 즐기는 듯 팔짱을 끼고 보고 있고, 삼성경비용역은 집을 사러온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상대하지 마세요.”라며 철거민들을 무시했다. 삼성경비용역이 나오자 집을 사러온 사람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마치 철거민들이 집달라고 떼쓰는 사람인 양 취급을 하고, 자신들 재산에 흠집이 날까 걱정을 하는 얼굴이었다. “누가 없이 살라고 했냐?”며 비아냥거리는 사람에게 말했다.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이 사람들, 없어서 여기 있는 사람들 아니다. 당신은 자기 집 빼앗기면 가만있을 거냐?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로 내몰리면 억울하지 않겠느냐?” 창피했는지 도망치듯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 순간 난 또 다른 분노가 생겼다. 분명 이 두 줄은 소시민들이다. 평생 모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24평 아파트를 보러온 사람들도, 개발이란 미명 아래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린 철거민도 소박한 시민들이다. 그런데 왜 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비수를 꽂고, 서로 원망 아닌 원망을 해야 한단 말인가? 원망은 나팔소리 크게 틀고 있는 철거민이 아니라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은 사회를 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 철거민들을 떼쟁이 취급하는 그들이 문제가 아니고 마치 철거민들은 떼쓰는 사람인 양 인식되게 만든 이 사회가 문제 아니던가.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의식을 우리 잠재의식 속에 박아놓은 세상을 향해 소리쳐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소리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린 말한다. 여기 사람이 있다. 함께 살자! 우린 말한다. 우리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 그렇다. 함께 살아야 하고 우리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 스스로가 함께 해야 하지 않을까? 깃발 아래 각자의 조끼를 입고 말로 연대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손을 잡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틀을 깨고 경계의 선을 넘어 하나임을 인식해야 한다. 큰 그림을 맞추려면 작은 퍼즐들이 연결되어 그림이 완성되듯, 우리 모두가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연결되었음을 인식하여 함께 외치고 함께 걷는다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 세상을 바꾼다는 건 큰일처럼 느껴지지만 내가 변하고, 우리가 변한다면 세상도 변하지 않을까?

난 변하고 있다. 2009년, 모든 걸 잃었다. 사랑하는 가족도, 집도, 꿈이었던 레아마저도 모두 잃어버렸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살고 싶다는 외침이 왜 죽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지 알 수 없었다. 폐허로 변해버린 레아가 나의 모습이었다. 아무도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는 이가 없는 듯 했다. 아무도 내 분노를 함께 외치는 이가 없는 듯 했다. 하지만 아니었다. 내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이들이 있었고, 함께 아파해주는 이들이 있었다. 폐허로 변해가는 레아에 생명을 불어넣어 다시금 살게 해준 이들이 있었다.

공장 옥상에서 정리하고 철회를 외치며 투쟁하는 남편을 바라보던 가족대책위도, “장애인도 사람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고 외치던 장애인도, 차별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성소수자들도 우리들 곁에서 “여기 사람이 있다”며 함께 외쳤다. 그때 알았다. 내가 소유하고 있던 것들은 잃었지만 그동안 내가 모르고 살았던 소중한 이들을 얻게 되었다는 걸. 나만 억울한 것이 아닌 세상엔 억울한 우리가 많다는 것을.

작년 겨울 대한문 한쪽에 ‘함께 살자 농성촌’을 마련했다. 우리를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 살던 집에서 쫓아내고, 일하던 공장에서 쫓아내고, 살던 마을에서 쫓아낸다. 우린 더 이상 쫓겨날 수 없기에 함께 모였다. 용산, 쌍용차, 강정, 밀양이란 이름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 살고픈 사람들이 모여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며 하나임을 느꼈다. 송전탑 건설을 막기 위해 알몸으로 저

항했던 일흔 넘은 노모들의 절박함은 살기 위해 올랐던 망루 속 우리들의 절박함이고, 바다 건너 제주 강정마을을 지키기 위해 두 팔이 사슬 되어 서로를 잡았던 손은 다섯 유가족이 진상규명을 울부짖으며 맞잡은 손이었기에 절대 놓을 수가 없다. 24명의 동지를 잃고 “더 이상은 죽이지 마라. 정리하고 철회하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구름비를 지키고픈 강정마을 주민들의 절규였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가 돼 있었다.

그래서 난 여전히 이곳에 있다. 나의 힘이 작고 보잘 것 없다는 걸 알지만, 작은 힘이라도 함께 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기에 희망버스를 타고 울산으로 향하고, 대한문 분향소를 지키며 난 이곳에 머물러있다.

세상은 우릴 “을”이라 말한다. 우리 스스로도 우릴 “을”이라 부른다. 갑이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가 보고 느꼈듯 거대하고 높다. 하지만 난 아무리 거대하고 높다 한들 “을”들의 함성을 잠재울 수 없고, “을”이 하나로 뭉친다면 갑을 흔들 수 있다고 믿는다. 작은 촛불 하나하나가 거대한 햇불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남이 아닌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자. 노동자, 철거민, 장애인, 농민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인 되는 세상을 만들자. “을”들의 반란. 이제 시작이다!!

나, 사람 사이에서 사람스러워지고 있구나

오지랖이 넓은 랑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할 때 인권활동가라고 소개하면 때때로 사람들은 ‘음, 그게 뭘까?’하는 궁금함을 보인다. 흔히 ‘시민’이라고 부르는 평범한 생활인들은 더 구별이 잘 안 된다.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과 NGO 또는 시민 단체들로 이해되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활동과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나도 딱 부러지는 설명을 하지는 못한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한 내 운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또 묻는다. 왜 하느냐고, 그것에 대한 내 대답은 간단하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이다. 나는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삶이라서, ‘운동’을 하며 사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고, 행복하게 잘살고 있는 것 같아서라고 대답한다. 내 대답에 사람들이 알쏭달쏭한 표정을 짓는다. 이 알쏭달쏭한 대답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됐다. 인권운동사랑방 20주년 덕분에, 왜 여전히, 앞으로도 이런 삶을 살 건지, 어떻게 운동을 할 건지, 무엇을 고민할 건지, 곰곰이 생각해본다. 나는, 우리는 어디쯤 있는지, 간만에 지난 시간도 돌아보게 됐다. (인권활동가들은 이런 식으로 내게 고민을 던져준다.)

세상에 모른 척하고 살았을 수도 있었다. 삶을 전력 다해 살아가도 힘겨운 세상에 주위를 둘러보라니, 그것도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기 위해 뭔가를 하며 살아가라니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는 말이 나온다. 다행히(?)

나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 보다. 사람의 이름과 외모는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누군가의 마음이 전달되고, 목소리가 귀에 들리고, 눈에 밝힌다. 이런 나에게 인권운동은 더 깊게 들여다보라며, 좀 더 귀 기울이며 사람을 살피라는 자극을 끊임없이 준다.

그 자극에 응답하듯 나는 눈을 갖게 되었다. 때때로 내가 고정된 시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노동자는 노동자로만, 장애인은 장애인으로만, 성소수자는 성소수자로만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내 시선에 화들짝 놀란다. 5년째 인천에서 이주노동자들과 미디어교육을 하고 있는데, 2년째쯤 되었을 때 나는 그들이 이주노동자로서 한국에서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지, 노동현장은 얼마나 폭력적인지를 영화로 고발해주기 바랐다. 그들은 이주노동자이면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가장이거나, 한국문화를 즐기는 것처럼 이슬람교를 존중받고 싶어 하고, 자신의 나라도 한국처럼 풍요롭길 바라면서도 인천의 주민이고 싶어 했다. 그런 자신들의 삶과 생각, 바람들을 영화로 담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나는 그들이 인간의 삶을 사는 다양한 모습을 보지 못했다. 나는 그들을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주한 노동자’로만 바라보았다. 그들을 ‘주체로 만든다’는 생각에도 나의 관점 혹은 보고 싶은 모습으로만 보는 눈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 이해하긴 쉽진 않지만 서로 다름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고, 인간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에 대해, 그와 함께 주체로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고민은 풍성해졌다.

운동은 나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누군가는 다른 속도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장애인 동지들을 만나면서 각자의 삶의 속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말을 잘 듣기 위해서 귀 기울이며 기다리는 시간, 함께 길을 가기 위해서 발을 맞추는 시간, 보통의 집회보다 두 배나 걸려야 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알게 되었고, 기다림이 느리거나 지루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내 속도만으로 살아왔으면 알지 못했을 것들, 찬찬히 보지

못한 채 스쳐 가기만 했을 것들을 알았다. 때론 일의 속도가 느린 사람, 말을 꺼내는 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 함께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에 대해 속 터지고 답답해하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릴 수 있다는 마음과 기다림의 시간 동안 전하는 마음을 배웠다.

운동은 나에게 귀도 주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듣게 하는 귀. 사람의 수만큼이나 다양한 생각이나 마음이 있는데 어떤 말은 잘 들리지 않고, 어떤 말은 누군가를 배제하기도 한다. 들리지 않은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귀를 쫓긋 세울 수 있게 되고, 말 속에 숨어있는 폭력과 배제가 걸러지는 체와 같은 귀를 갖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사람 사이에서 내가 겪으며 쌓인 것들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인권운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당사자들, 활동가들을 통해 채워진 것이다. 이런 시간들이 나를 좀 더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있다. 그냥 홀로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물론 여전히 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 부족함은 앞으로도 그들과 함께 하면서 조금씩 채워질 것이라 믿는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인권활동가로서 놓치지 않고 고민해야 할 것들을 던져주고 있다. 인권활동가로서 나는 어떤 고민을 더 해야 할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할지 그들이 내게 질문을 던진다. 내가 세상은 원래 그런 거라고 체념하거나 무뎌져서 살지 않게 된 것을 다행이라 생각한다. 나를 깨우고, 반성하게 하고, 웃게 하고, 울게 하는 사람들 속에서 있고 싶은 것이 여전히, 앞으로 운동을 하는 이유이다.

내게 던져진 질문 중 요즘 나의 고민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권리가 어떻게 각자의 살아있는 권리로 말해질 수 있을지, 각자의 권리들은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이다. 문구로는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을 한다.

인권운동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는 촛불집회가 열렸다. 광장에 앉아 유명 가수의 노래를 듣거나, 자발적인 발언

을 듣는 집회가 처음엔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웠다. 흥겹게 집회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해서 과연 바뀔까 하는 의심이랄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내가 참가했던 대부분의 노동자 집회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흥겨움도 없었던 거 같다. 그러다 처음 거리로 뛰쳐나오던 날 뭔가 짜릿한 해방감을 느꼈다. 당황한 경찰들을 밀어 제치고 도로 위를 뛰어다니던 사람들은 모두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그 이후로 사람들은 광장을 벗어나서 거리로 나왔고, 탄압은 강도가 높아졌지만 사람들의 기세는 쉽게 꺾이지 않았다. 그때부터 난 경찰의 인권침해 감시활동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 줄 알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인권’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 거리의 사람들에게 일종의 든든함을 주었던 것 같다. 사람들은 늘 반갑게 인사를 했고, 때때로 경찰의 폭력적인 행위를 이르기도 했고, 대응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했다. 그럴 때 내가 이들에게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이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사람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노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집회에 탄압이 높아질 것이라 예상 되면 인권침해감시활동을 요청한다. 연대로서, 인권활동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지만 한편 나는 누군가의 권리 옹호자로서 항의하고 발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무엇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이 들었다.

다행히도 그 고민을 같이 나누고 실천할 사람들이 곁에 있다. 문서에 박혀 있는 권리를 꺼내 살아서 움직이는 권리로, 누군가 대신 외치는 권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외치며 만들어가는 권리로,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북돋는 권리로 만들기 위해 함께 시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난 여전히, 앞으로도 운동을 한다.

움직이는 사람들과 함께

‘삶’ 이 동사動詞-動事-動史이길 바라는 몽

처음에 인권운동사랑방의 20년을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는 인권운동을 위한 자리의 이름이 ‘회동’이라고 해서 의아했다. (그리고 속으로 나는 별로 할 말이 없겠다고 생각했다.) 회동(會同), 통합이라는 말에 나보다 더 진저리를 치는 사람이 많겠지만, ‘모여 하나가 되는 일’은 찬반이나 호불호를 떠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기획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회동(會同)을 제안하는 것과 회동(會動)을 제안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움직이고, 옮기고, 흔들리고, 중요하고, 떨리고, 느끼고, 감응하고, 일하고, 변하고, 시작하고, 어지럽히기’(動) 위한 만남, “기존의 관계”에 머무르는 것(常)이 아니라, 차이와 거리를 가늠하기 위해 “몸을 쓰고(인식하고) 위치를 바꾸는 것”이 실천이자 인권운동이라는 선언. 아부 같아 민망하지만 나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자기 자신과 관계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실한 삶의 화두이면서 완결되지 않는 의제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어떤 의미에서 여성주의 활동가인 나에게 ‘인권’에 대해 말하기, 글쓰기는 엄청난 스트레스다.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훼손되고 어떻게 구성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이전에, ‘인간’이라는 범주나 ‘인권’이라는 정치를 나와 연결했을 때 갖게 되는 긴장과 갈등이 있다. “포괄집단에 소속되는 일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한 방식”(아비샤이 마갈릿)이라고 전제한다

면, ‘여성 인권’이라는 언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현실은 내가 놓여 있는 조건이다. 이 단어를 ‘교정’하고 싶은 욕구는 이중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데, ‘여성’을 지우면 역사성이 사라질까봐 두렵고, ‘인권’을 지우면 보편으로 재현되지 못하고 대상이나 사례로만 남게 될까봐 두렵다. 이는 여성주의가 사회 정의를 다루는 정치 담론, 인식론이 아니라 남녀평등(같음)이나 성별 이슈로 이해되는 조건과 연동되어 있는 긴장이기도 하다.

2009년에 ‘성·인종차별대책위원회’(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전신)라는 낯선 이름의 연대체가 꾸려지고 언니네트워크가 참여하게 된 계기는 중첩/복합적일 수밖에 없는 차별 현실을 드러내는 특정한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그 인권침해 사건은 “너 어디서 왔어, 이 냄새나는 새끼야”라는 한국 남성의 발언을 통해 한국사회 내부의 인종주의를 드러내는 징표로 의미화 되었고, 아마도 대부분 인종차별 발언으로 첫 번째 기소, 판결 사례를 만든 사건 혹은 ‘보노짋 후세인 사건’으로 기록/기억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인권 침해는 “넌 정체가 뭐야? 조선년 맞아?”, “조선년이 새끼만 자식이랑 사귀니까 기분 좋으냐?”라는 말로 표지되는 ‘한○○ 사건’이기도 하다. (기록, 기억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인 행위이자 ‘해석’투쟁의 장이며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상대화하는 개입이 절실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인종, 젠더, 민족, 계급, 나이 등의 ‘차이’를 정의하는 권력관계—한국사회의 단일민족 신념과 인종주의, 인종 차이의 위계화, 남성 연구교수라는 계급적 위치의 부각과 엘리트주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지 않고서는 작동하지 않는 민족 개념과 부계혈통주의, 여성 주체의 피보호자화 및 피해자화—(또한 ‘한국인 간에 발생하는 인종차별’, ‘개인의 인종적 배경 때문에 그 사람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대상을 제한 받는 것’으로의 인종주의 개념의 재구성 혹은 확장 가능성이라는 급진적 ‘문제설정’)가 아니라 ‘인종차별’이라는 하나의 의미로 수렴되었다.

구체적인 이름과 존재, 위치와 정체성의 차이, 서로 다른 현실인식과 그것

을 가능하게 하는 권력이 배제되거나 비가시화 되는 것을 체감하면서 당시 나를 비롯한 대책위 활동가들은 한 가지 범주의 문제로 환원될 수 없는, ‘우리’가 어디에서 있는가를 다층적으로 질문하게 하는 복잡한 현실을 가시화해야 한다는 과제를 맞이했던 것 같다. 이 사건이 인종차별 문제가 아니라거나 그러한 인권침해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혹은 어떤 사회적 억압, 개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은 모든 체제 질서를 인식한 후에야 가능하다는 것 역시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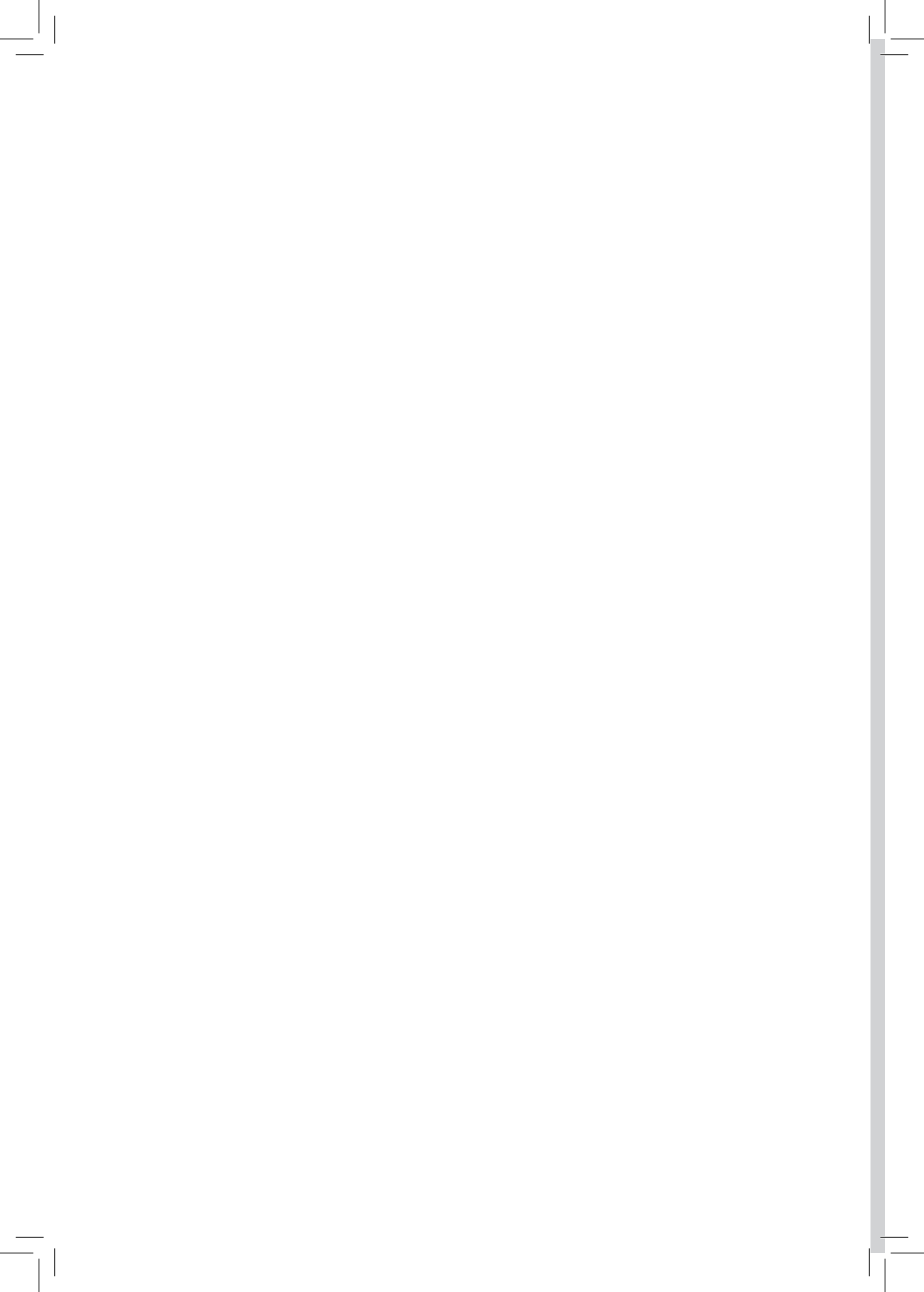
오히려 인종/민족의 개념은 젠더 의존적이며 젠더 역시 계급, 인종/민족과의 관련을 맺지 않으면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현실인식, 하지만 사회적 억압이 개인에게 미치는 구속력은 상대적으로 그 구속력 하에서 개인이 체감하는 고통 역시 사회적·역사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경험된다는 성찰, 그래서 주체가 되기 위해 차이의 인정을 외부에 요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로부터 인정하는 “위치를 바꾸고자 하는” 노동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인권은 그것이 주장되는 공간적/구체적 맥락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개인/집단도 추상적이거나 배타적인 인권의 영역으로 할당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에서 7가지로 대표되는 차별금지 사유가 삭제되었을 때,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임신·출산’이 문제화되었던 2011년 서울시의회를 점거했던 학생인권조례 투쟁, 2013년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된 후에 남겨진 과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진다.

차별금지법 국면은 인권의 보편성이 부정되는 상황에서 ‘차별하면 안 되는 사람, 차별받아도 괜찮은 사람이 따로 있단 말인가?’라는 분노 어린 질문으로 회자되었지만, 그 이후 우리에게 남겨진 고민은 생각보다 더 거대한 것이었다. ‘법안에 차별 사유가 모두 포함된다면, 혹은 모든 차별이 금지된다면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성소수자’가 다른 구조들과 매개되지 않는 배타적인 정체성의 경험이 있는 것처럼 “쪼개진 정체성/운동”의 영역으로 ‘할당’될

때, 문제는 성소수자에게만 보편적 인권이 적용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나 절실한 삶의 이유,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나’로 살아가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나’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감각,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다는 열망이 승인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 즉 “타인과의 관계”를 맺을 ‘권리’(그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상대화 하고자 하는 윤리적 실천)를 침해받았기 때문이다. (“연대는 의무가 아니라 권리”라는 미류의 말을 나는 이렇게 이해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질문은 ‘인권이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인권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보다, ‘인권은 언제, 어떤 곳에서, 특히 누구에게, 어떻게 작동 하는가/해야 하는가’를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변혁이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질서에 놓여있다는 것을 환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면, 나는 차라리 인권이 “인간의 존엄을 선언하는 보편의 언어”라기보다 내가 접속하고 있는 ‘채널’을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재구성하고 확장할 수 있는 인식론적 자유, 그것을 추구하는 과정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때, 달성되지 못한 보편성을 보충하기 위한 소수자성으로서의 차이가 아니라 새로운 인식의 위치를 선사하는 것으로서의 차이가 등장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권력과 차별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믿는다. 나도 움직이는(動) 사람들에게서 들으려고 한다.





도란거리다

인권운동사랑방이 반월 · 시화공단에 간 까닭

정록 || 상임활동가

20주년을 맞아, 인권운동사랑방은 작년부터 지나긴 논의를 시작하였다. 사랑방이 지난 20년 동안 해왔던 일을 짚으면서, 앞으로 사랑방이 해봤으면 좋을 활동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다. 사랑방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시작된 20주년 논의는, 이진 뉘가 싶을 정도로 사람 진을 뺐다. 얼마나 논의를 잘 해왔는지, 제대로 방향을 잡았는지 묻는다면 그리 자신은 없다. 그래도 이것 하나는 분명하다. 사랑방 20주년 행사 ‘회동’에서 발표하려는 우리의 고민들은 인권운동, 사랑방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한국 사회 아니 세상을 바꾸고 싶은 ‘운동’의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가장 지겹게 반복되었던 단어는 ‘변혁’이었다. 인권을 더욱 대중화하고, 전문화하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인권운동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고 또 물었다.

내 머릿속은 복잡해지기 시작하였다. ‘체제를 변혁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운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사방사방한 인권운동에서 체제 변혁을 고민해야 한다면, 사랑방이 이런 곳이었나?’, ‘이런 게 답이 있겠나? 그냥 열심히 사는 거지.’ 등등. 평소 마음 속 깊은 곳에 묻어둔 채, 어느새 잊힌 물음들부터 회의감까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그래도 돌이켜 보면, 나는 마음속 깊은 곳에 세상과 사람들을 제대로 알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

고 세상을 정말로 바꾸려는 운동이라면 모름지기 어때야 할지 항상 궁금해 했던 것 같다.

한때는 함께 하는 사람들과 열심히 운동하면 그게 변혁운동이라고 생각하였다. 이 생각이 발전해 운동과 조직을 동일시하였다. 그러다가 조직에서 자유로워지자, 운동과 이념을 동일시하였다.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주의’들이 운동이 되었다. 그때쯤이면 거창한 변혁운동은 언감생심이고 내 한 몸이라도 견결하게 살아보자는 심산에 이념과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고 감옥에 갔다.

감옥에서 다들 왜 병역거부를 했느냐고 묻는데, 내가 수감되기 전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병역거부이유서의 이야기들을 말할 수 없었다. 그건 정말 기자회견장에나 어울리는 언어였다. 나도 모르게 ‘그냥 좋지도 않은 군대 가느니, 여기 온 거죠.’라고 얼버무렸다. 그러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하긴 뭐, 군대나 여기나 그렇지.’라고 맞장구를 쳐준다. 물론 나이도 어리면서 나가면 어찌려고 전과자 딱지를 붙이느냐는 걱정은 꼭 따라왔다. 군사주의니, 위계 사회니, 자아가 사라지고 조직의 부속품으로만 남느니 하는 이야기들을 굳이 하지 않아도, 적어도 군대를 경험한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다. 자명하고 윤리적 근거까지 갖춘 것처럼 보이는 운동의 요구들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가로막히는 게 아니었다. 모두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해서 현실의 장애물을 피하고 넘어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이었다. 다만 그런 노력들이 결코 장애물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말이다. 감옥의 동료들에게는 나의 병역거부 역시 그런 노력 중 하나로 읽혔을 것이다.

수감생활을 통해서 어찌면 처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것 같다. 그 전에 그들은 나에게 한낱 대상일 뿐이었다. 나를 그 속에 적극적으로 연루시키기보다는, 한 발 떨어져 내 눈앞에 있을 뿐인 대상 말이다. 그들이 어떻게 듣는지보다 내가 볼 때 괜찮다 싶은 말들을 외쳤다. 세상을 바꾸자면서 누군가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하지만, 그 제안이 받

아들여질 거라는 기대는 그리 하지 않았다. 운동의 언어가 유통되고 평가받는 자리들이 있다. 집회, 기자회견장, 자료집, 온라인 소통 공간 등등. 내 운동은 폐쇄회로처럼 그 안에서 맴돌았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글과 머릿속에만 있던 세상과 대면하고서 나는 당황했던 것 같다. 사람들 사는 걸 좀 더 겪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곳에 가서 지역 주민단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일자리, 보육, 의료, 활동보조와 같은 사회적 자원들을 제공하고 연결하는 일은 이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적나라하게 볼 수 있었다. 그런데 그건 현실이었다. 정말 현실이라서, 거기서 비집고 나갈 틈을 찾기도 쉽지 않은 그런 현실 말이다.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돈과 언어가 꽉 잡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매개자이자 공급자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려웠고, ‘운동’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런 나에게 사랑방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작된 20주년 논의는 반가운 것이면서도 별로 답이 없어 보이기도 하였다. 그래도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그걸 세상에 어떻게 전할 수 있을지를 골몰했던 인권운동이, 체제 변혁을 꿈꾸며 풀어놓는 고민들은 분명 내 오래된 생각과 만나는 것이었다. 세상과는 답을 쌓은 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반복하는 운동도 답답하지만, 소위 현실에 압도당해 운동이길 포기하게 되는 것도 답답하기는 매한가지다.

체제를 높이거나 부처님 손바닥 같은 것에 비유하고 싶다. 제대로 발목 잡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높이거나, 자신은 자유로운 것 같지만 결국 한 치도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이 ‘체제’가 아닐까? 사람들에게 그런 ‘체제’가 뭐냐고 물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많이 답하지 않을까? 자유가 넘쳐난다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피곤해도 어김없이 출근하게 만드는 그 체제. 더럽고 서러워서 직장을 때려 치워도 결국 자영업 또는 전문직(프리랜서)으로 또 다른 노동관계망에 걸릴 수밖에 없는 그 체제 말이다. 그렇게 ‘자본주의적 노동’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맺는 관계와 활동의 일반적 형식이자 생존수단이 되면서 사

람들은 자원을 총동원해 경쟁과 적대, 차별과 배제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 갖은 애를 쓴다. 짐짓 모든 사람은 피부색, 성별에 상관없이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자원과 무기로 활용한다.

감옥에서, 지역에서 내가 경험한 ‘현실’을 풀어쓴다면 이런 게 아닐까 싶다. 세상을 바꾸려는 운동이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건네고 행동해야 할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그래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서로 끌어주는 관계를 조직하는 것, 부처님 손바닥을 뒤집을 수 있는 집단적 힘을 만들어내는 것, 나는 그게 인권운동사랑방이 가려는 길이라고 이해하였다. 바로 그게 우리 앞에 반월·시화공단 노동자 조직화라는 과제로 놓여 있다. 거대한 공단에서 30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은 철저히 개인으로서 생존 경쟁 중이다. 시급 10원이라도 더 주는 곳으로, 작업 물량이 조금이라도 더 있는 곳으로 찾아간다. 그래야 한 달에 필요한 생활비를 벌 수 있다. 아이가 아파도,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지금 돈을 벌 수 있을 때 벌어놓아야 한다. 여기서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은 체제를 변혁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인권으로 말 걸기

호연 || 돌움활동가

인권운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인권은 나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인권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충분히 다가가고 있는지, 지금의 현실에서 그런 언어가 될 수 있는지를 의심하게 된다. 어떤 사람은 인권이라는 말로 자신의 삶을 설명하면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하고 누군가는 인권의 눈으로 자신의 경험을 들여다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인권은 좋은 말이긴 하지만 삶의 현실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고, 부담되는 언어일 때도 있다.

얼마 전에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만나는 실무자들과 함께 하는 인권교육이 있었다. 나는 빈곤 가정 아동과 청소년의 자아 존중감을 설명하면서 개인적 관계에서의 지지와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얘기하였다. 나는 실무자들에게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힘든 삶의 조건에서 과연 이들이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자신에 대한 존중감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질문은 “그래서 우리보고 뭘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분노 섞인 질문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직접 질문을 한 사람과 다른 참여자들의 침묵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동과 청소년들을 일상적으로 만나고, 그들

에게 닥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은 힘들고 사람을 지치게 한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감동을 받기도 한다. 어쩌면 나의 말 걸기가 이런 자부심을 흔들고 문제를 지적하는 것처럼, 마치 비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 질문 그대로 지금의 현실에서 ‘개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답답함과 무력감의 표현일 수도 있다.

인권을 말한다는 것은 각 개인이 가진 삶의 문제가 다르지만 어느 지점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너의 문제가 지금 당장 나의 문제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연결 지점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만 보이고,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파악하고 견디기에도 버거운 현실이다. 너의 무능력과 찌질함은 제대로 준비하고 대처하지 못한 ‘너의 책임’이라는 인식과 그런 찌질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더 자기 계발에 힘쓰라는 요구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불안과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개인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이 공포처럼 다가오는,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삶을 살게 되는 현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 지친 몸과 영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의 과제이니 긍정적인 마인드로 알아서 치유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낙오자가 될 것이라는 주문에 우리는 걸려 있다.

이러한 생각들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많은 사람은 삶의 문제를 구조적으로 보자는 이야기를 불편해하는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인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개인’에 불과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막막할 수도 있다. 인권의 역사는 차별과 배제에 저항한 개인들이 모여 만든 역사임을 알지만, 지금의 현실을 보면 그때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누군가 답을 가지고 말을 해줬으면 싶다. 지금 열심히 힘겹게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느껴지지 않아 아쉽고, 웬지 외롭다.

인권교육을 하면서 나는 참여자에게 지루하거나 뻘한 얘기라는 느낌을 주

지 않기 위해 체제나 사회구조의 문제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언어로 표현하려고 애쓰지만, 결국 반복적으로 그 얘기를 하게 된다. 듣는 사람들이 나에게 ‘그걸 내가 모를 것 같느냐’는, ‘그렇게 잘 알면 뭘 해야 되는지 답을 말해 보라’는 무언의 불편한 시선과 분노 섞인 표현을 하더라도, 나의 전달 방식의 미숙함을 반성하며 각오를 새롭게 한다. 인권으로 어떻게 사람들에게 말을 걸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나는 되돌아간다.

체제나 사회구조라는 말이 그동안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왔기에 듣는 사람들에게 유사하게 들릴 수 있겠으나 그것은 분명 같은 이야기는 아니다. 사회적 맥락에 따라 이 말은 다르게 구성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삶의 문제를 ‘개인’적 관점에서 보는 것에 익숙해져 버린, 그런 요구에 당연하게 응답하며 살기를 더 강하게 요구받는 지금의 맥락 속에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의 사회적 맥락이 체제나 사회구조와의 관계에서 개인의 삶을 해석하고 함께 전망을 세우는 것을 더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연결하기보다는 분리적 사고에 익숙하게 만드는 말들이 강하게 작동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더욱더 지금은 이러한 체제에서 어떻게 우리의 존엄성과 삶이 파괴되고 다시 스스로를 복구하면서 문제를 개인화시키는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늘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직 다른 언어를 찾지 못한 문제일 뿐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나는 질문을 받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아직은 모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래서 어쩔 수 없다’거나 ‘사는 게 다 그렇다’거나 ‘할 수 있는 게 없다’거나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체념과 무력감이 당연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고 함께 외쳤을 때, 인권의 역사가 열렸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인권운동사랑방은 ‘9.28 회동’을 제안한 것 아닐까.

2013년 9월에 쓰는 글

세주 || 돌움활동가

20년이나 된 사랑방의 역사에서 이 시점에 내가 같이 있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써야 할지, 솔직히 어렵다.

나는 사랑방에 작은 결심을 하고 들어왔다. 이제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꼭 해야 할 것, 계속 해야 할 것이 있었다. 이전까지 자연스러웠던 나의 삶이 어느 날 멈추었는데 그러한 나의 삶을 계속 굴리는 것이 당시에는 중요하였다. 그리고 그 밑에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삶을 다시 굴리기 위한 삶의 모멘텀도 방법도 없었다. 바로 그때, ‘그 시점까지의 나’를 가슴에 한껏 품고 사랑방에서 계속 삶을 굴리기로 결심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무엇으로 삶을 채울 것인가에 대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살기로 하였다. 그때까지 해왔던 시간을 소중히 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다는 생각으로 사랑방에 왔다. 계속 나에게 집중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다시 인생을 굴릴 원동력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랬다.

그렇게 또 내 인생을 4년 동안 굴려 왔다. 처음보다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 모멘텀이 사라지지는 않았다. 사랑방에서 내가 한 일을 생각해 보면 사랑방 역사의 작은 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사랑방에서 성북 대안개발 연구모임의 일부 시간을 함께 했고, ‘따뜻한 밥 한 끼 캠페인’을 함께 하였다. 이

것들은 나의 또 한 시간이 될 테니 이 또한 소중한 시간이다.

사랑방 활동과 함께 시작한 직장 생활은 쉽지 않다. 매일 새로운 이슈들이 생기고 업무에 적응할 때쯤이면 또 다른 업무가 튀어나오고, 그렇게 시간이 가고 고개를 들어 보니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 4년이지만 때로는 1년 같기도 하고 때로는 8년 같기도 하다. 그래도 업무를 대할 때마다 언제나 실수 없이 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요즘 나는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순간순간 두리번거리기도 한다.

사랑방에서 나의 대학 시절 이야기를 풀어 놓은 적은 없다. 다만 그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이 여러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점이 있다. 너무나도 의심 없이 믿고 있던 우리가 서로를 위해 지키는 암묵적 약속,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타인의 신체에 대한 간섭 같은 것, 굳이 어떤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이것들은 그냥 허공에서 자유풀듯, 자연스럽게 떠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결국 나는 인권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다.

인권이라는 말이 가지는 무게를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본다. 회사에서도 인권이라는 ‘말’을 쓰지만 저마다 의미는 달랐다. 사실 내가 생각하던 인권도 10년 전과 4년 전 그리고 현재가 모두 다르다. ‘인권’이 똥똥 떠다니는 뜬구름 같은 것이 아닌 실체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또렷해지기보다는 점점 더 흐릿해진 상만이 떠돈다. 나에게 점점 어려운 것이 되어가고 있다. 삶과 언어 그리고 시간을 총체적으로 녹이면 ‘인권’을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세상의 모든 것은 진동하니깐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있으면 쉬울 때도 있고 그렇게 쌓이고 쌓이는 것일까? 그러면 누군가가 또 인권에 대해 계속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이 더 좋은 것이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끝이 나지 않는 기나긴 것이 하나쯤은 있어야 역사는 계속되기에.

요즘 나의 고민 중 하나는 ‘언어는 독점될 수 있는 것인가?’ 이다. 권리들이

허상이 아닌 진상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존재가 언어를 빼앗긴다면 ‘사실상’ 존재할 수 없다. 그렇기에 언어와 인권, 권리는 떼려 해도 떼어지지 않는 것들이다. 하지만 여전히 특정 언어가 통제되고 있는 현실이, 나는 속상하다. 가까이는 나의 회사에서, 멀리는 한반도의 어느 지점에서, 혹은 지구 상 땅끝, 바다 위 어느 곳에서도 통제 되고 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는 특정 집단, 특정 영역에서 독점되거나 금지되지 않고 자유로워야 한다. 2013년 바로 지금, 그래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길에서 무조건 외치면 되는 것인가?

많은 것을 후퇴하게 만드는 역사의 흐름에서 2013년 또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원동력을 다시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글을 쓰는 이 순간, 다시 다짐한다. 또 삶을 굴러 보자. 끝없는 삶의 투쟁들이 모여면 우리는 모두 행복해질 수 있을 테니까.

얼굴을 새기는, 관계를 꿈꾸며

민선 || 상임활동가

“언제 술 한잔해”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말을 참 잘도 날리는 편이었다. 사람들과 함께하는 술자리를 좋아했지만, 거기서 더 좋아한 것은 술이었던 것 같다. 사실, 난 사람을 아는 게 무서웠다. 언제부터였을까? 누군가와의 관계 맺음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붙으며 묵직하게 누르던 말, 책임, 적당한 거리를 두며 부담스럽지도 않고 부담되지도 않게 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여겼다. 그럼에도 술 기운에 오버가 발동하여, 또 꼼꼼하지 못한 성격 탓에 여러 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곤 하였다.

짧지만은 않지만 그렇다고 길다고도 할 수 없는 사랑방 활동을 돌아보면 결국 언제나 사람을 만나는 ‘일’이었던 것 같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 기사를 쓰든, 캠페인을 하든 모든 활동은 사람과의 만남에서 비롯하였다.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을 쫓았고, 숨겨진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해 어딘가를 찾아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난 늘 선 하나를 그어놓고 있었던 것 같다. 내가 넘어가면 안 될 선이자, 누군가 넘어오면 안 될 선.

자원활동을 해보고 싶어 사랑방을 기웃거렸던 2006년, 국가인권위 용역사업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진행하는데 조사원으로 함께 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상황이기도 했고, 누

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는 ‘일’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함께하게 되었다. 날도 굵고 참 추웠던 겨울 늦은 저녁에 첫 면접조사 일정을 잡았다. 12시간 일을 하고 2시간이 걸려 퇴근하였다는 그 친구는 피곤한 내색도 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친구의 이야기로 그려지는 실습현장, 그리고 학교는 참 깜깜하였다. 현장실습을 하며 사회생활은 혼자 하는 거라는 얘길 실감하였다며, 학교도 업체도 무관심한 실습생들의 상황을 “버려진다”고 표현하게 되었다 그 말이 쑥 들어왔다. 조사‘일’은 끝이 났지만, 조사문항에 대한 답이 아닌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전하고 싶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연락했다. 결국, 인터뷰 기사를 쓰고 싶다면 내 말이 그 친구에게 어떻게 전달되었을지는 잘 모르겠다. 예상치 못한 냉담한 반응에 당황하면서, 그리고 그 친구에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에 미안해하며 전화를 끊었다.

어디에서 미끄러졌던 것일까? 돌이켜보면 조사로 만난 짧은 시간 동안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과정에서 가벼운 농담을 던지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난 그 친구를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내가 알게 된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만 앞서서 문제적인 현장실습 실태를 자신의 경험으로 이야기해줄 누구로 위치 짓고 그 친구에게 내가 필요로 하는 말만 걸었던 것 같다.

2008년 여름부터 2013년 4월 정리좌담회로 해소하기까지 대안개발연구모임에 함께 하면서 인연을 맺게 된 장수마을. 삼선4재개발예정구역이었던 그곳은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했지만, 수익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설사들도 더는 기웃거리지 않고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였다. 샅터를 빼앗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개발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것을 넘어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포부로 시작했지만 너무도 막연하였다. 주민참여를 통한 정비계획안 마련이 1차적 목표였기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선 필요했지만 쉽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말하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었다. 주로 가옥주인 할아버지들. 원하지 않는데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가 그 누구에게도 발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에 말하지 않는 혹은 말할 수 없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인가 답이 없었다. 그리고 계획을 만들어도 이를 실제화하려면 주민들 안에서 의견을 모으고 조율하고 추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을 누구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주민들의 자리를 마련하지 못하면 어렵다고 보고, 보다 긴 호흡으로 마을활동을 해나가는 것으로 2010년 활동방향을 전환하였다. 그러면서 1년에 몇 번 워크숍이니 총회니 하며 주민들을 불러 모으기 급급했던 자리보다 마을학교, 골목길 번개모임 등 일상 속에서 다양하고 소소하게 찾아가 만나는 자리를 만드는 것에 더 집중하였다. 그러다보니, 어찌다보니, 알게 되었다. 마을활동을 위해 당위적으로 만나야 했던 주민‘들’이 아닌 구체적인 얼굴과 이름을 지닌 누군가로. 나와 장수마을의 관계가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어떤 순간, 좀 더 도드라졌던 감정은 두려움이었다.

왜 두려웠을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딱히 답할 만한 이유도 없긴 하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 활동이 끝나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나의 몫일까 가늠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을 수도 있겠다. 그것은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럿이 다양한 방식으로 같은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사람이 지닌 역동성, 관계의 상호성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말이다.

화재로 불탄 대한문 쌍용차분향소 천막을 다시 치고 얼마 되지 않았던 어느 일요일 늦은 저녁, 인근 서점에 갈 일이 있어 그곳을 지나게 되었다. 어느덧 1년이 되어 가는데 화재와 행정대집행에 자꾸 내몰리는 그곳을 그날은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다. 몇 차례 그 앞을 왔다 갔다 하다 인사만 하고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천막 안에 들어갔다. 몸 좀 녹이고 가라는 말에 잠깐만 앉았다 가야겠다 싶어 엉덩이를 붙였다. ‘함께살자! 농성촌’ 활동을 함께 했기에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는 것도 아니었다. 주로 집회하며 잠깐 스쳤던 계전부라 같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 대충 알고 또 짐작했던 쌍용차해고

노동자들의 사정이 아닌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딪히고 있는 삶의 이야기, 거기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감정의 뭉들. 그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이기도 하였다. 그래서일까. 그날의 그 방문은 ‘환대’의 자리로 기억된다. 마땅히 해결할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니지만 켜켜이 쌓아뒀던 속 이야기들을 꺼내 보이며 저마다의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되었던 그 시간은 나에게 무척이나 크고 따뜻한 위안이 되었다. 오롯이 사람과 사람으로, 평평하게, 민낯의 얼굴로 마주하고 있다는 느낌. 그것은 일종의 초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삶으로의 초대.

앵무새처럼 쓸쓸함을 말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한 치도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마음, 그 굳은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에 솔직해져야겠다. 관계는 거래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난 앞질러 내 맘대로 계산기를 두드리고는 안전거리 확보 마냥 선을 그어놓았고, 그것에 스스로를 속박했던 것 같다. 결국 내가 원하고 만들고 싶었던,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꿈꿀 관계는 서로의 삶으로의 초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시간은 어제를 보듬는 위안이 되기도 하고 내 일을 내딛는 다짐이 되기도 한다. 이제껏 그랬듯 앞으로도 살아가고 활동하며 누군가를 만나고 관계를 맺을 텐데, 그것이 순간순간의 ‘일’이 아닌 초대의 여정이길 바라본다. 다시 그 여정을 시작하는 지금, 마주치고 새기게 될 얼굴들이 궁금하다.

여기, 머무를 권리

미류 || 상임활동가

돌이켜보면 그것도 쫓겨나는 경험이었다. 서울에 올라와 처음 살게 된 하숙 집. 하루는 집주인에게 몇 달 살면서 불편한 걸 말하게 됐다. 아침에 한 시간 밖에 온수를 안 틀어주면 서른 명이 화장실 두 군데에서 어떻게 다 씻나. 게다가 같은 시간에만 아침밥을 먹을 수 있으면 7명이 앉을 수 있는 식탁에서 어떻게 밥을 다 먹나. 그걸 듣던 집주인은 한 마디로 내 불만을 정리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는 원래 안 받는데.” 정 불편하면 나가라는 말에, 나는 내 발로 나왔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서러웠을까. 얼마 안 되는 짐을 바리바리 싸면서, 전봇대에 붙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이사 갈 방을 구하면서, 급하게 구한 리어카로 짐을 옮기면서, 끝도 없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집주인을 잘못 만난 ‘불운’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생각은 한참 후에야 들었다. 주거권 활동을 하면서 듣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내 이야기를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어떤 집주인을 만났는지에 따라 삶이 달라지는 것이야말로 인간에 대한 모욕이고, 당연한 걸 요구하는 목소리를 누군가 ‘여성’의 까탈스러움으로 치부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차별이라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야 기억해낼 수 있었다.

그런데 저 때에도 나는 ‘주거권’이라는 말을 들어 알고 있었던 것 같다. 학교 인근의 달동네에 철거민들과 ‘연대투쟁’을 하러 자주 갔기 때문이다. “대

책 없는 강제철거 중단하라”, “주거권을 보장하라”라는 구호는 그 한참 전부터 지금까지 철거민운동이 외쳐온 구호였다. 나도 그 구호를 함께 외치며 규찰을 돌고 집회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주거권’이라는 말은 결국 내 이야기와 만나지 못했던가 보다. 그리고 쫓겨남이나 주거권을 오랫동안 잊었던 것 같다.

몇 달 전, ‘다원그룹’이라는 이름을 신문에서 보게 됐다. 내가 ‘연대’한다고 갔던 달동네에 ‘적준용역’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을 자들이다. 용산참사 이후 용역폭력을 고발하면서도,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운동을 하면서도 설마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던 이름이다. 그러나 그동안 달라진 것은 무엇이며 여전히 남은 것은 무엇인지를 헤아려야 하였다.

강제퇴거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양상은 많이 달라졌다. 우악스러운 얼굴로 각목을 들고 달려드는 용역의 모습처럼,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폭력들은 점차 사라졌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닥다닥 모여 살던 동네들이 거의 사라지자 개발 사업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드문드문 모여 사는 동네를 향하였다. 사람들은 먹고살기 힘들고 하루 앞이 불안한 상황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기보다는, 제각각 일자리를 찾아 해결한다. 우리 동네가 개발된다고? 얼른 이사 갈 곳을 알아봐서 빨리 다시 자리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 개발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공동체가 서로 쌀을 나누고 아이를 돌봐주는 돈독한 집단적 관계일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얼마간 낭만이다. 용역들은 한 집 한 집 돌아다니면서 협박을 하거나 달래는 것으로 충분히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다. 끝까지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한두 명 찍어서 본때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소리 없이 떠나갔다.

쫓겨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동안 공간을 개발해 이익을 얻으려는 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개발을 추진하는 자들은 더 비싼 집을 더 좋은 집이라고 불렀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동네가 더 좋은 동네라고 말하였다. 고층 빌딩을 지어 올려 수익을 높여야 하므로 골목마다 있던 작은 가게와 공장들은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다원그룹도 그 흐름을 탔다.

금융기관과 건설사 등의 기업들과 함께 개발 프로젝트를 구성한다. 주식에 투자하듯 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금융상품을 통해 돈을 모으고, 다소간 합리화된 개발 절차를 따라 사업을 벌인다. 그래서일 게다. 2013년에 밝혀진 다윈의 범죄는 폭행이 아니라 횡령 및 배임 등이었다. 굳이 때리고 짓밟지 않아도 너끈히 이익을 볼 수 있는 시대인 것이다.

여전한 것은 누군가 장소를 빼앗기고 쫓겨난다는 사실 자체다. 쫓겨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게 됐던 언젠가부터, 싸우는 사람들은 더욱 힘겨워졌고 진압하려는 자들은 더욱 잔혹해졌다. 일부 세입자대책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개발사업의 절차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변화들은 강제퇴거가 인권침해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개발 사업을 조금 더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변화에 그치고 있다. ‘강제퇴거’는 눈앞에 보이는 폭력의 현상들에 붙들렸던 시선을 그 너머까지 들여다보도록 이끌어주는 말이 되었다. 다윈그룹이 기소될 때 충분히 밝혀지지 못한 폭행도, 기업으로서 시장 질서를 해친 범죄도, 강제퇴거를 설명하는 전부가 못 된다.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내보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지는 것이 바로 강제퇴거라는 폭력이다. 2009년 용산에서 힘겹게 번져 나온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은, 그래서 이 시대의 폭력을 증언하고 있다. ‘사람’이 살고 있다고, 우리를 내쫓으려는 저 힘들에 함께 맞서자고.

오래전 달동네에서 듣고도 놓쳤던 것을 계속 붙들려고 한다. 그게 꼭 ‘주거권’이라는 말은 아니어도 될 듯하다. 내가 그 동네를 오가게 된 것도 ‘주거권’ 때문이 아니라, 집과 동네와 장소들을 지키려던 그/녀들의 절박한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다. 쫓겨날 수 없다고 모여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 한,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싸움과 움직임들을 북돋고 연결하고 샘솟게 하는 데에 ‘인권’의 역할이 있는 것도 분명하다. 내가 만났던 그/녀들도 모여서 함께 싸울 때 ‘인권’을 외쳤으니까.

‘인권’이 세상의 부정의를 근본까지 들여다보도록 채근하는 말이면 좋겠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용어가 되어 “여기, 사람이 있다”는 목소리가 더욱 큰 외침으로 세상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란다. 하숙집을 나오며 눈물을 쏟아야 했던 내가 다시 기억을 건져 올리는 데 걸렸던 시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조금 더 짧아질 수 있기를. 그래서 서럽고 억울한 일들이 외로운 눈물들과 함께 말라버리지 않고, 또 다른 세상을 꿈꾸는 뜨거운 눈물들로 만날 수 있기를. 누구에게나 머무를 곳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는 걸까??

훈창 || 상임활동가

2012년이였다. 여의도대로에서 한 사람이 지나가던 사람들을 향해 칼을 휘둘렀다. 몇 명의 사람들이 크게 다쳤고, 이후 그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는 말하였다. 전 직장의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고 따돌려 다른 직장에 취직했지만 그곳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이 모든 것이 전 직장 동료 때문이라고.

설 연휴기간에는 일가족 6명이 모인 집에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찾아와 불을 질렀다. 그는 윗집이 너무 시끄럽다고 이야기 했다. 층간소음이 누군가의 목숨을 앗아갈 뻔 했던 상황으로 이어졌다. 다른 집에서는 도끼가 나왔고, 아랫집과 윗집 사이에 주먹다툼은 늘어났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 같다. 집에서,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거리에서도 사람들 간의 폭력이 발생한다. 때론 물리적 폭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서로 괴롭히고 따돌리는 일이 더욱 많다. 사람들은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를 부정한다.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을 미워하기도 한다. 인터넷을 통해 사람들은 다투고, 때론 물리적 폭력까지 이어진다. 한국에 살아가는 이주민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고, 성소수자들에게 욕설을 한다. 거리의 홈리스들에게 더럽다 이야기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의 농성장을 부순다. 누가 홈리스인지, 이주민인지, 성소수자인지, 투쟁하는 사람인지 얼굴도 알지 못한 채 그들을 미워한다.

인권활동가인 나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나는 자본가가 밟고, 권력자가 밟고, 소수자를 혐오하는 그들이 너무 밟다. 아니 정말 싫다. 그리고 또 미운 사람도 있다. 밤마다 시끄러운 오토바이 운전자가 밟고, 함부로 혼계하는 끈대들이 밟다. 나는 왜 사람들을 미워하는 걸까? 그리고 누군가는 나를 왜 미워하는 걸까? 우리는 왜 서로 미워하며 살아가는 걸까?

물론 사람들이 무조건 서로를 미워하진 않는다. 누군가를 좋아하고,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간다. 하지만 사람들은 삶의 무거움에 점점 짓눌린다. 삶의 무거움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공감할 힘을 잃는다. 공감하지 못하는 사회/사람에서 관계는 형성될 수 없다. 사람들의 관계는 점점 좁혀지고 없어진다.

사람들이 머무르는 공간도 마찬가지로다. 학교, 회사, 심지어 집에서조차 관계는 단절된다. 학교에선 끊임없이 경쟁하고 회사에 가면 직급과 고용형태로 나뉜다. 우리는 끊임없이 분리된다.

분리만으로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 밀어내고 밀려나며 살아간다. 성소수자라 호명되거나, 이주민이라 호명되는 순간, 특정한 정체성으로 호명되는 순간 밀려난다. 밀려난 사람들은 존재를 부정당하거나 존엄을 빼앗긴다. 사람들은 밀려나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낼 수밖에 없다. 그게 이 사회의 규칙이다.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사회의 규칙에 밀려난다.

나는 어땠을까? 중고등학교에서 나는 살아남을 궁리를 하며 내가 이곳에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하려 했다. 친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들과의 관계만으로 만족할 수 없었다. 학교의 물은 사회의 규칙과 똑같았다. 밀려나지 않기 위해 누군가를 밀어내야 했다. 밀려난다면 내 존엄은 인정받지 못했다. 이름이 아닌 번호, 공부 못하는 애, 뭐 하나 잘하는 것 없는 애라는 말 한마디는 내 존엄을 훼손시켰다. 힘을 획득하여 내 존재를 인정받고 싶었다. 그 힘은 다른 사람들을 밀어내며 획득했다. 때로는 물리적 폭력으로, 모욕적인 언행으로, 그리고 힘이 내 존재를 인정받게 했다.

사회에 나온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지방대학에 취업이 전혀 되지

않는 과를 졸업한 내가 획득할 수 있는 힘은 보이지 않았다.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내 위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 사람들이 미웠다. 존엄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그들과 경쟁해야 했다. 하지만 내가 가진 정체성들은 그들과 경쟁할 수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사회에서 존재를 인정받을 수 없는, 존엄하게 살아가기 어려운 위치에 놓여졌다.

나를 돌아보며, 그리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밀어내는 사회의 모습을 보며 차별이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였다. 소수성이 위계화되고 배제와 차별은 경쟁의 도구로 활용되었다. 낮은 위계의 소수성은 배제와 차별의 대상이었다. 끊임없이 누군가를 밀어내야 하는 삶에서 관계와 공감은 형성될 수 없었다.

내가 바라봐야 할 세상의 모습은 이것이지 않을까? 존엄한 인간의 영역에서 사람들을 탈락시키고, 다시 올라오기 위해 끊임없이 싸워야만 하는, 그렇기에 서로를 미워해야만 하는 사회, 차별과 배제를 통해 관계와 공감을 가로막고 사람들을 분열하고 분리하는 사회, 서로를 밀어내야만 존엄한 인간의 영역으로 올라가 인정받는 사회……. 인권운동은 이런 사회의 틀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닐까? 하지만 고민이다. 무엇을 바꿔야 할지 보이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반차별 활동을 하면서 배제와 차별을 마주친다. 그리고 외친다. “사람은 모두 평등하다. 누구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 때론 고민한다. 이렇게 외치는 것 말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지? 다들 차별은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만 차별과 배제 없이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사회에서 차별하지 말라는 외침은 공허한 건 아닐까?

공감에 주목하게 된다. 차별과 배제로 존엄한 인간의 위치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의 경험을 통해 내가 가진 힘겨움이 너의 힘겨움과 만난다면 조금의 변화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상대방의 말에 담겨진 숨은 뜻을 들으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렇게 공감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힘

겨움의 원인을 달리 생각해볼 것 같다. 그리고 그 공감들이 계속 연결된다면 우리가 가진 힘겨움의 원인과 한판 싸워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드는 고민이 있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에 대한 차별과 배제와는 어떻게 싸워야 할까? 성소수자도 당신과 평등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과 나는 평등합니다.’를 넘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 보인다.

아직 많은 방법들이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나는 계속 외쳐야 한다. “사람은 모두 평등합니다. 누군가가 차별받는 세상은 누구도 존엄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활동가의 의무감 때문이 아니다. 모두가 평등하고 인간이 존엄한 세상은 내가 원하는 세상이니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공감한 세상이니깐!!

당사자 - 돈음 - 활동가

윤미 || 돈음활동가

생각해보면, 난 항상 당사자였다. 인권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난 항상 가까이에서 겪고 살았다. 따지고 보면 당사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마는, 그게 구호의 성격으로 곧잘 쓰이는 말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나는 겪고 살았다고 썼듯이 1차원적인 당사자에 가깝다. 한 번씩 생각해본곤 한다. 내가 ‘인권’이란 말과 만났을 때 그것에 동참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나게 한 어떤 감수성을. 그냥 스쳐 가지 못하게 한 어떤 힘을.

가족, 성, 노동, 사랑 등 인권으로 호명할 수 있는 몇몇 대상들을 거칠게 구분해본다. 당사자로서의 경험이 있단 게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당사자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그걸 슬픔이나 아픔이라는 감정만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건 아니듯이, 그래선 안 되듯이) 나는 시절마다 다른 정체성으로 인권 문제 안에 있었다. 잘 훈련돼 온 감수성이나 어느 날의 득달같은 깨달음으로 인권을 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내 경우에는 경험으로 가능하였던 이해심, 그래 그러니까 그 마음, 이 있었기에 인권을 스치듯 지나갈 수 없었던 것 같다. 알 것 같아, 라는 마음이 붙들리는 것들. 그래서 싫어지는, 누군가에 대해 함부로 말해버리는 편견, 여리고 약한 것들에 가해지는 폭력, 옆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무심함이나 이기심.

특별히 견디기 힘든 적은 없었다. 이게 당사자로서 겪은 내 경험의 정도이

자 한계이기도 할 것이다. 생존이 흔들릴 만큼 위협받진 않는다는 것. 그리고 불행하지 않게 인권 문제의 당사자로 살았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사회를 드러내는 또 하나의 특징일지도 모르겠다. (당사자를 무조건 피해자화해선 안 된다는 것과 별개로 견딜 수 없을 만큼 내몰진 않은 채 착취하는 사회 구조의 문제에 관한 얘기다.)

다행인 건 스스로를 당사자라고 호명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였던 건 ‘인권 활동’을 시작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인권 활동은 내가 당사자를 넘어서 보는 데까지 도움을 주었다. 적어도 내가 겪었고 또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거리를 두고 볼 수 있었다. 그건 곧 삶에 대한 태도와도 관계가 있어서, 그랬기에 나는 남과 비교해서 우울해하거나 그걸 왜곡된 방식으로 벗어나려 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무엇이 좋은지도 알겠다. 활동가라면 그 정도의 감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혼자였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집회 참가를 사랑방을 통해 처음 접했고 그 현장이 좋았다. 그러면서도 현장 노동자들의 단단한 팔뚝이 무서웠다. 째짤한 불안을 견디며, 노동자를 존중하지 않는 사회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에 분노를 느끼는 나에게 집중했고 사회과학 분야에 관심을 키웠다. 일면 아버지라는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었다. 그저 ‘인권’이 아니었다. 여성주의가 있는 인권이었다. 사랑방에는 이걸 지향하려는 마음과 노력이 있었다. 여성주의를 염두에 두는 남성 활동가들의 존재 자체가 내겐 특별했다. 마냥 좋은 것들을 익히고 따라 했다. 일면 어머니라는 여성을 이해하는 과정이었다. 이런 과정들이 곧 나라는 노동자, 나라는 여성을 의식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었다. 특히 사랑방 반성폭력위원회 위원을 하면서는 당사자가 아닌 다른 위치에서 성폭력 사건을 바라볼 기회를 가졌다. 덕분에, 관련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하나의 위치에 머물러 나 자신을 쉽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 단락을 쓰면서도 내내 가족 환원주의를 밀어내려 노력한다. 이런 예민함도 사랑방에서 굴러다니다가 배인 생각의 습관 중 하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 자신으로 침잠해 들어가며 무겁고 진지해지기만 하기보다, 사랑방 활동은 무엇보다 재밌었다. 어울려 집회 현장을 누비는 일, 하나의 사안에 대해 예민하게 반박하는 토론을 지켜보는 일,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서 언어와 생각을 다듬어보는 일, 현장에서 다른 당사자들을 만나 그들의 사연을 듣는 일,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낮게 만드는 데 미약하게나마 내 능력을 보태보는 일. 이 모든 경험은 슬픔과 분노를 넘어서는 재미가 있었고, 나라는 사람 자체를 더 나아지게 한다는 보람을 느끼게 하였다.

사실 스스로를 활동가라고 호명하는 건 아직도 많이 망설여진다. 자원 봉사자 아닌 자원 활동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주는 사랑방에 끌렸고 그런 정신이 좋아 했수로만 8년 가까이 이곳을 드나들었다. 당사자라는 말을 제대로 익혔고 권리라는 말을 단단하게 체험했으며 그 권리라는 내용이 어떠한지 하는지도 고민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아직 활동이란 게 뭔지 잘 모르겠고 활동가라고 칭하기 쑥스럽다고 말하는 건 좀 무책임한 거라는 생각도 든다. 활동하는 물리적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죄책감 때문이기도 하겠다. 그렇다고 내가 인권과 멀어지는 건 아닌 것 같다. 노동자로 살아야 할 조건에 있는 내가 인권 활동을 여전히 옆에 두고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 다행이고 행운이다. 아니 평생 노동자로 살아야 할 조건이라는 말은 좀 엄살이고 거짓말 같다. 인권 활동 역시 활동이자 노동이니까. 그리고 나는 인권 활동가로서의 삶에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다. 고쳐 말하면 인권을 전업으로 삼지 않고 내 일을 하면서도 늘 그것을 염두에 둘 수 있고 살다가 한 번씩 내 감수성이나 실천이 얼마나 무디어졌는지 혹은 어느 정도 나아졌는지 알 수 있어서 다행이다.

그렇다고 내가 살아가면서 닥칠 문제들을 더욱 잘 처리하게 된 것은 아니다.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더 능숙해진 것도 아니다. 무엇이 문제였고 그런 것에 대항할 수 있는 내 나름의 언어를 가졌다고 해도, 비슷한 문제들 앞에서 난 여전히 걸려 넘어지고 싸우지 못하며 고백하지 못한다. 아는 것과 현실의 괴리, 그 사이의 팽팽한 긴장의 선이 나를 지탱하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일

이 그리 만만치는 않은 것 같다.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는 게 쉽다고 함부로 말할 수도 없는 것 같다.

당사자와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잘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어쩔 수 없이 겪을 당사자의 운명과 내가 기꺼이 선택해야 할 당사자의 생을 잘 견디며,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활동가로서 배운 걸 실천하려는 의식을 잃지 않고, 어쨌거나 잘 살고 싶다. 조금이라도 나아지면서, 그 나아지게 하는 기준들을 놓치지 않고 옆에 두면서.

조직 문화로서 반성폭력 혹은 여성주의

초코파이 || 돈움활동가

2006년에 사랑방 돈움활동가가 되고 처음 참석한 총회에서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개정 안건이 논의되었다. ‘섹슈얼리티’라는 단어를 내규 전문에 넣는 것 등에 대한 논의였는데 참 긴 시간을 그 의미 등에 관한 토론을 하였다. 그런 논의를 진지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래도 사랑방에 들어오길 잘하였다.’고 느꼈었다. 그 뒤로도 사랑방에서는 두 번 더 내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금의 사랑방 내규가 정리되었다.

그 뒤로 7년이 흘렀고, 사랑방 돈움활동가로서 두 해 사랑방 반성폭력위원회 수임을 맡았다. 그러면서 점차 내규가 문서 이상의 그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참 많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작년에 다른 단체에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하면서 사랑방에 패널 섭외가 들어왔었다. 당시 반성폭력위원회 위원이었지만 내부 논의 끝에 결국 패널을 정중히 거절했었다. 그 단체에서는 사랑방에는 내규가 있고, 나름의 노하우가 있을 테니 이야기를 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실제 내규를 적용한 사례는 한 번밖에 없고, 우리가 그런 평가를 듣기에 조금은 민망해서랄까.

사랑방이 성폭력 문화에 대해 고민을 하느냐고 물으면 예전에는 그래도 내규가 있고 반성폭력위원회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말이 입에서 잘 나오지 않는다. 점차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라고 느끼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된다. 언젠가는 반성폭력 교육의 주제가 동성애와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한 활동가가 교육 중 “우리 안에는 동성애자가 없는데 이런 내용을 너무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요지의 말을 한 적도 있었다. 그 활동가도 활동하면서 생각에 조금 변화가 온 것 같지만, 내규 상 매년 두 번으로 정해져 있는 반성폭력 교육을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고, 몇 년째 반성폭력 위원회의 기조가 ‘기본에 충실하자’로 정리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다. 활동가들마다 자신이 맡은 활동을 해나가는 데도 버거운 상황에서 가장 쉽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 반성폭력위원회 활동이 되곤 한다.

사랑방이 내규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사랑방도 성폭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당시의 경험 때문이다. 내규가 생긴 뒤 그 적용을 받은 사건은 예전 자원 활동가가 관련된 외부(?) 사건 하나뿐이었다. 한때는 새로 들어오는 자원활동가를 위해 별도로 내규를 프린트해서 나누어주거나 사무실에 내규를 크게 프린트해서 붙여놓거나, 팀별로 반성폭력위원회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해서 내규의 의미에 대해 교육하려고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점차 자원활동을 신청한 분들에게 내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거나, 프린트된 내규를 나누어 주는 것 이상의 무엇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성폭력 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 성폭력 사건이 없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는 것을 많은 활동가들도 인식하고 있다. 반성폭력 교육이 단순한 금기나 조심의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섹슈얼리티의 공존이 가능한 문화를 위한 고민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여기는 활동가가 있는 한편, 성폭력 금지를 넘어서는 교육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는 활동가도 있는 등 현재 사랑방에서 반성폭력 위원회의 상에 대한 스펙트럼은 다른 공간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그리고 만약 공동체 혹은 조직 문화와 반성폭력 문화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해도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그것을 고민할 시간이 있을지 주저하게 되는 것도 현실이다. 그래도 작년과 올해에 반성폭력 교육 주제를 ‘공동체와 성폭력과 공동체 문화’, ‘다시 돌아본 사랑방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로 정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된다.

내가 여성주의 혹은 반성폭력 문화를 접하고 이해하려 하였을 때는 이론적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 모순된다는 머릿속의 의식적인 노력이었다. 마치 학생회 선거를 하면 한 페이지는 넣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의 그 수준이었다. 그 뒤 우연한 계기가 여성주의라는 것을 단순히 이론이 아닌 삶의 고민으로 이어오게 되었다. 아직 내가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듯 우리 사랑방도 다른 단체들에 비해 알고 있는 것은 많지만 그것을 하나의 문화, 삶의 고민으로 가져가기에는 많은 과정이 남은 것 같다. 20년을 맞은 지금 우리가 그런 고민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

사람의 꿈과 힘을 불러일으키는 운동

명숙 || 상임활동가

“분회장이 되기 전에는 큰 빌딩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지금은 경희대 총장과 직접 교섭해보는 게 꿈입니다.” 이 말을 듣고 눈물이 빠져나왔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꿈이 바뀌지?’ 하는 벅찬 마음을 눈물이 먼저 알고 신호를 보낸 게다. 작년 3회 청소노동자행진 사회를 맡은 경희대학교 청소노동자이자 공공노조 서경지부 경희대 분회장 백영란 님의 말이다. 다른 분들도 꿈을 이야기하였다. 청소노동자라고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꿈을 말하기도 하였다. 꿈이 바뀌고 꿈이 생기고……. 인권운동은 사람의 꿈을 불러일으키는 운동이어야 하지 않을까. 잊혔거나 감히 꿀 수 없었던 꿈을 꾸게 만드는 것, 도전하게 만드는 것, 그게 운동이 아닐까.

2010년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단체와 노조가 함께 청소노동자 권리 찾기인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을 2년간 했고, 올해까지 청소노동자행진을 4년째 하였다. 여성,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그녀들을 만나는 일은 우리 사회에 철저히 위계화된 사회의 차별을 들여다보는 일이기도 하였다. 남성노동과 여성노동이라는 성별 위계, 핵심노동과 주변노동이라는 노동 위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위계와 차별. 그 차별은 성별화된 노동공간과 임금격차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자원활동기들과 함께 청소노동자들을 설문하고 심층면접도 하면서 노동과 성별화된 사회에 대한 공부도 병행하였다. 물론

청소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도 했다. 그 다음 해 캠페인단과 청소노동자 노동 조건 실태조사를 본격적으로 하였다. 열악한 노동환경을 알려내는 과정에서 만난 청소노동자들은 몇몇 학교에서 노조를 만들기도 하였다. 홍익대학교, 경희대학교, 세종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서울시립대 등등.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만들고 투쟁하기도 하면서 꿈을 꿔다. 그리고 그 꿈에 나도 덩달아 즐거워서 신이 났다.

그에 비하면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투쟁은 신이 나지 않았다. 게다가 무자격자 현병철 씨가 위원장이 된 후 인권위의 관료화가 심해진 터라 인권위원 인선투쟁을 하는 건 힘도 받지 않고 절박하게 다가오지도 않았다. 더구나 사람 만나는 일을 좋아하는 나로서는 통 움직이지 않는 관료를 만나거나 국회의원을 만나 설득하는 일은 그리 즐거운 일은 아니었다. (그래도 작년 인디스페이스에서 용산참사를 다룬 영화 ‘두 개의 문’을 보러온 현병철 위원장을 망신시키려고 했을 때 시민들이 보여준 마음은 큰 위안이었다. 결국, 시민들의 지지로 현병철은 극장에서 쫓겨났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투쟁으로 연일 바쁜 일정이었지만 3회 청소노동자 행진을 함께 준비하는 활동은 나에게 오히려 힘을 줬다. 새벽 4시, 여의도 환승역에서 만난 청소노동자들, 함께 캠페인을 한 청소노동자 간부들과 활동가들 모두 내 마음과 몸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인권운동에서 중요한 게 스스로 권리주체화(자력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만난 사람들에게서 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기에,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운동을 매우 좋아한다. 그리고 난 사람들의 힘을 믿는다. 사람들의 힘이 모여 출렁거리는 운동이 바꾸는 세상, 세상의 질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렇듯, 운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에 역동적이다. 나는 여러 사람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가는 변화, 역동성 속에 휘말리는 것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 각각이 선 자리(위치성)나 힘의 방향과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 그 역동적 움직임 속에 참여한 사

람들이 느끼는 공감은 대중적 흐름이 결과론적으로 실패하든, 성공하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한번 맞본 대중운동의 힘, 역동성은 우리를 감동시키니까. 2011년 한진중공업 희망버스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비폭력 직접행동의 경험이 유난히 많았던, 2008년과 2009년에 했던 백혈병·HIV/AIDS 감염인의 의약품 접근권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은 기억에 많이 남는다. 2008년에는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과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의 약값이 결정되는 시기여서 기습 항의 시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리고 초국적 제약회사 로슈에 들어가 기습시위를 했던 일들, 회의실에 진입하기 위해 몇 시간 전부터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잠복했던 일, 로슈에 기습으로 들어가 딱지를 붙였던 일(지금 생각하면 우습지만, 당시에 손해배상 청구라도 받을까봐 스티커를 잘 떼어지는 비싼 걸로 했던 기억이 있다.), 회의장에서 피케팅을 하며 침묵시위를 하거나 다이인 퍼포먼스를 하던 일 등등. 사실 그때 함께 하던 보건의료 활동가들, 에이즈감염인 인권활동가들, 정보공유연대 활동가들 모두 열정적이어서 일이 많아도, 회의가 길어져도 즐거웠다.

그중에서도 로슈 규탄 국제행동을 할 때 외국의 에이즈인권단체나 인권활동가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활동은 정말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그저 서명 정도 받으려고 이메일을 뿌렸는데 ACT-UP 파리에서는 로슈 앞에서 피를 뿌리는 퍼포먼스 등 강렬한 시위를 했고, 뉴욕에서는 로슈 광고대행사 앞에서 퍼포먼스를 하기도 하였다. 당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을 만든 로슈는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 때문에 약가가 낮게 책정되자 전 세계 공급약가를 유지하려고 3년째 아예 한국에 공급을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감염인인 가브리엘은 건강이 몹시 나빠져 죽음의 위협까지 받아야 하였다. 그래서 정말로 그들의 활동이 고마웠고, ‘연대란 이런 거구나, 국경을 넘어 함께 손잡는 거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 후 우리는 2009년 특허청에 푸제온 강제실시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였다. 로슈는 기만적이게 푸제온을 무상공급함으로써 강제실시 요건을 피해갔

기 때문이다. 특허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사익과 공익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제3자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생각해보면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활동가들의 연대가 있었기에, 푸제온 무상공급이라는 반쪽의 승리가 가능했던 것은 아닐까.

사회권팀에서는 당사자권한강화나 자력화를 중요시했고, 그래서 그동안 했던 건강권과 노동권 활동에서도 사람 만나는 일, 사람 안에 잠재된 힘을 같이 끌어내는 일에 관심이 많았다. 그런데 활동을 하면서 내 안의 힘들, 꿈들은 얼마큼 자라났을까? ‘여러 사람 덕분에 훌쩍 자랐어요.’라고 감히 말은 못하더라도 함께 한 그 날들이, 함께 할 그 날들이 나를 설레게 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오래된 것들에 대한 관찰 보고

유성 || 돌움활동가

의문들을 더 이상 묻어두기 어렵다. 보았으나 지나쳤던 것들. 지나치면서도 한편에 생겨버린 의문들. 찢찢하면서도 묻어두었던 것들.

국가보안법이 대표적이었다. 내가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국가보안법 대응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 ‘민주 정부’ 10년을 거치며 사법부가 일정하게 제어하는 것처럼 보였기에, 고민할 필요를 그리 못 느꼈다.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집요하게 밀어붙이는 걸 보며, 이 공안 체제는 ‘빨갱이’ 대신,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악마화하기로 전략을 바꾼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착각이었다.

보안관찰제도가 또 하나였다. 국가보안법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무한정 보안 관찰 처분이 갱신되며 사실상 죽을 때까지 국가로부터 감시 사찰을 받는다. 폐지된 줄 알았던 제도가 엄연히 살아있음을 알았을 때, 뭔가가 어긋난 느낌을 받았다. 최근 유행하는 말로 하면 ‘시대착오적’이랄까. 그러나 이전에는 아주 가끔씩, 옛 운동권 인사들의 인터뷰 기사에서 지금도 보안 관찰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 지나가듯 언급될 때에나 떠올릴 뿐이었다.

1990년 윤석양 씨의 양심선언으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되고 기무사로 이름을 바꿔 단 역사를 알았을 때, 제일 먼저 들었던 의문은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안 하나?’였다. 당시 국방부는 ‘법원에서 증거 보존 절차를 거친

자료를 제외하고는 전부 폐기 조치'하고 앞으로는 안 하겠다고 했지만, 누가 확인했지? 지금은 누가 확인하고 있지? 하지만 기무사라는 이름 자체를 들어 볼 일이 별로 없다 보니, 그냥 그러고 말았다.

집회·시위의 권리와 경찰 폭력 문제에 대응하며, 서서히 하나의 문제의식이 생겼다. 군사 정권이든 민주 정부든, 정권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물밑에선 일관되게 관통하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전·의경 제도 폐지에 대비하기 위해, 야간 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등 이유야 그때그때 달라졌지만, 경찰의 물리적 시위 진압 능력은 일관되게 증강되고 있었다. 집회 시위의 양상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양순해졌는데도 말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 경찰의 물대포와 차벽 전술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었다. 촛불을 들고 나왔던 시민 한 명 한 명 식별해 추적한 후 처벌하는 능력도 하루아침에 발전된 것은 아니었다. 경찰은 정권 변화와 상관없이 그런 힘을 키워왔다.

2008년 촛불 집회에서 기무사가 민간인을 사찰해 왔다는 게 드러났고, 검·경이 여전히 공안 사범 명단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때마다 우리들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지만, 갈수록 내 안에서 무언가 크게 착각하고 있던 건 아닌가 하는 물음이 커져 갔다.

그 후 지금까지, '오래된' 많은 것들을 다시 보고 있다. 보란 듯이 감행된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30여 년 만의 내란음모죄, 한국전쟁 후 처음이라는, 난생 처음 듣는 여적죄까지. 국가의 무기고는 참으로 깊구나 싶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낡은' 명령이 '부활'하였다는 식의 설명엔 회의적이다.

이번 이석기 의원 사건에서 특히 내 눈길을 끈 건 두 가지였다. 모임에서 누군가 말하였다는 '예비 검속'이라는 단어. 그리고 '정전협정 백지화 이후 한반도 전쟁 위기가 매우 심각해진 상태에서 행해진 올 3월 독수리훈련과 키리졸브 훈련 중에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건물 옆 골목에 1개 소대 병력의 군인이 배치되고 사무실이 있는 6층까지 여러 명의 군인들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온

일이 있었다.’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주장.

청명계획이 떠올랐다. 87년 항쟁 직후인 89년 3월, 보안사는 계엄령 발동 등 사실상의 친위 쿠데타를 계획하며 청명계획을 준비하였다. 민주화 운동 인사들 900여 명을 비밀리에 사찰하다 계엄령 발동과 동시에 잡아들이는 예비 검속 계획이었다. 그 해 8월에 있었던 을지훈련에서 도상 훈련이 실시되었다. 계엄령과 쿠데타는 실행되지 않았으나, 이때 만들어진 예비 검속 명단은 이후 1,300명으로 늘어나며 민간인 사찰에 활용되었다. 90년 윤석양 씨가 폭로할 때까지.

당시에는 민간인 사찰만이 폭로되었지만,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 위원회의 발표로 청명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 말기였던 그때까지도 기무사는 그 명단을 갖고 있었다. 그로부터 이명박 정권을 거쳐 육법당의 현 정권이 들어선 지금, 그건 이젠 정말 폐기되었을까. 무엇보다도, 친위 쿠데타와 예비 검속을 음모한 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어디에서 뭘 해왔고 또 하고 있다. 계승 발전되는 건 어느 쪽이고, 정리되고 청산된 건 되레 무엇인가.

민주주의와 인권의 목소리로 어떤 이들이 말한다. ‘이석기 사건’으로 드러난 건 극단주의자들의 적대적 공존 관계라고. 진실의 일부가 담겼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제3자적 위치가 의심스럽지만, 시대착오적이라고도 한다, 글썄. 어떤 시대, 어떤 현실 말인가?

이번 사건의 실체적 성격이 무엇인지 난 아직 모른다. 저항과 반역의 사이 어디쯤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국정원조차 계속해서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건, 사상-표현-실천의 구분되나 분리되지 않는 스펙트럼의 어디를 특정할지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 아닐까. 그럼에도, 이 군사화된 경찰국가와 ‘제국주의 전쟁광들’에 대한 저항과 적대의 뜻을 분명히 하는 이들은 그 누구라도 아마 국가의 보복을 피해 가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지금도 군사반란 학살자 전두환에게 육군사관학교의 사열을 바치고 있는 이 국가가, 반역죄를 물을 자격

이 있는지 모르겠다.

과대망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용감한 듯 털어놓은 이면의 불안을 안고 살던 이들에게, 국가의 폭력 앞에선 연약한 개인일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과연 ‘네 사상을 고백하라.’며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다그치는 게 먼저일까. 모르겠다.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와 인권이 딛고 선 발밑엔 무엇이 있던 건지, 헛갈리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인권’은 옳은가 - 북이 던져준 고민

아해 || 톨음활동가

인권의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 발전 시기의 여러 인권선언은 신흥세력인 부르주아지들의 재산과 신체를 왕이나 귀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근거로서 ‘인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노동자, 농민, 여성들은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의 범주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대의 인권규약들이 만들어질 때에도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세력 간의 치열한 견제와 타협을 거쳐 그 내용이 선별되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이란, 우리가 얼핏 생각하듯 누구나 평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선형적이고 보편적인 관념이라기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역사를 가진 특수한 개념이었던 거죠.

인권운동을 하면서 부딪히는 현실들은, 이런 인권의 역사들이 그저 옛날 얘기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하게 해줍니다. 2009년 1월의 용산참사 이후, 돌아가신 철거민 분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나 경찰에 대한 비판들은 많이 있었지만, 용산 재개발의 문제점이나 농성의 정당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땅, 내 재산을 침범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한편에 남아있기 때문일 텐데, 현대의 ‘인권’ 역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유재산의 보호 역시 현대 인권 목록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용산 개발 자체가 무산된 지금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

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어쩌면 지금 우리의 ‘인권’에서 생명의 존엄성보다 재산권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은 아닐지요.

그렇다면, ‘자본주의 인권’이라고도 할 만한 지금의 ‘인권’ 개념이 사유재산과 화폐 관계로 사회 구성 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곳- 이를테면 북-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까? 우리가 가진 인권목록들, 주로는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사회권 규약에 담겨있는 이 ‘인권’의 항목들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방의 북인권 대응 활동은 저에게 많은 고민을 던져주었던 활동이었습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인권운동사랑방은 북인권 대응 활동을 하였습니다. UN의 대북인권결의안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제도의 신설, 미국의 북한인권법안 등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되었던 사랑방의 북인권 활동은 한반도인권회의, 북인권모니터팀, 한반도인권뉴스레터 등 여러 축으로 활동이 진행되었죠. 2009년에는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네트워크와 함께 북의 UPR(유엔의 국가별 정기적 인권 상황 검토 제도) 시기에 NGO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북인권 대응 활동은 쉽지 않은 활동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들 중 한 가지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인권 목록을 다른 체제의 사회에 적용하기 힘들었던 점이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인권의 한계 지점을 고민해야 했던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조합의 권리는 어떻게 북 인민들의 권리로 해석되어야 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조합은, 자본주의적인 임금노동의 관계 속에서 자본가-고용주에 대항하여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존재하는 것인데, 사회 원리 상 자본가-고용주가 없는 북의 노동자들은 무엇에 대항하게 되는지, 어떤 형태의 권리보호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지 생각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권리 역시 식량 배급제도 아래에서 지역의 식량 사정에 따라 신고/허가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감안했을 때, 무엇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큰 진전은 없었지만

만, 사랑방에서는 이런 문제의식을 ‘사회주의 인권론’이라는 주제로 풀어보려고 고민을 하기도 했었죠.

만약 ‘인권’의 구체적인 역사가 도달한 것이 지금의 ‘자본주의 인권’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를 거부하는 북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인권 문제가 있을 수 없다.”고 화를 내는 것이 그리 이상하게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권이 사회와 시대마다 다르기만 할 뿐이라면, 우리가 추구하는 인간다운 삶의 한계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하는 것이 또 다른 고민입니다. 인권이란 그저 각각의 사회가 정해진 한계 안에서만 존재하는 애완동물에 불과한 것일까 하는 것인데,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에서는 그 한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국가보안법과 국가정보원이 무시무시하게 살아있는 한국에서는 북에 대해 어디까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지가 사상·표현의 자유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과 남북긴장을 넘어서야 하는데 그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본 한 사진전의 제목이 ‘사는 것이 뭐 다 똑같디요’였습니다. 북의 일상을 촬영한 사진들을 전시한 것이었는데, 평범한 일상들과 함께 그 제목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사실은 사람 사는 것 다 똑같을 텐데, 그 똑같은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 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울까요. 부디 언젠가는, 인간다운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인간은 얼마나 평등하게 행복할 수 있을지, 이런 인권의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척척 나와서, 북이든 남이든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 함께 “인간답게” 살 수 있기를 희망해봅니다. 그전까지는 ... 인권운동의 험난한 길이 계속되겠지만요. (웃음)

함께 모이자, 싸우자

최은아 || 상임활동가

처음 데모에 나갔던 때가 언제였을까? 기억을 더듬는다. 1980년대 후반 그 때는 기습으로 가두 투쟁을 많이 하던 시절이라, 미리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다가 한꺼번에 우르르 거리로 나갔다. 경찰이 쏘는 최루탄, 지랄탄을 피해 기어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거나 버텨야 할 공간을 지켜내면서 싸웠던 시절이었다. 거리에서 정치를 바꿔낸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은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였고 싸웠으며 그 에너지로 세상을 바꿔냈다. 그 에너지의 끝자락을 마지막 버스 타듯 경험한 나는 그 이후로도 결은 다르지만 2008년 촛불집회, 2011년 희망버스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서 집단의 힘을 보았다. 그 싸움의 승패가 어찌되었든 우리가 왜 모였는지, 우리는 어떤 주장을 하는지, 지금 우리를 가로막는 힘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며 지금, 여기에 함께 있음이 그저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

그러나 뿌듯함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는 동안 사라진 듯 보였다. 정권이 민주화되었으니 거리와 공장에서 투쟁은 그만 하고 법적인 규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들어왔다. 김대중·노무현 정권은 마치 집회시위가 아닌 다른 통로가 있는 것처럼 굴면서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권리에 대한 규제를 단행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 담론을 유포시켰다. 또한 거리와 공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엄청난 물리력을 통해 저항을 꺾으려 하였

다. 그 결과 집회는 경찰이 만들어놓은 질서유지선 안에서 암전히 끝내고, 시민들과의 소통은 상관없이 우리끼리 차벽 안에서만 구호를 외치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났다. 새누리당과 같은 보수 세력들은 그 시절을 가리켜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하지만, 나에게도 그 시절 집회에 간다는 것은 그 어떤 긴장감이나 설렘을 주지 못하는 ‘잃어버린 10년’이 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인권운동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파업하는 노동자들, 생존권 투쟁을 위해 거리로 나선 철거민·농민들이 경찰과 용역에 맞닥뜨리면서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권의 언어로 이야기하고자 노력하였다. 싸우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편이기는 했지만, 인권운동은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장 그 자체로부터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객관성을 담으려는 ‘그것으로’ 인권운동의 위치성을 잡으려고 하였던 것 같다. 또한 집회에서 경찰감시 활동을 할 때마다 집회참여자들에게 듣는 소리가 있다. “수고하세요.” 물론 고생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집회참여자들과 유리·분리되고 있는 느낌을 받았고, 대신 싸우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경찰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집시법이라는 합법의 틀 속에서 철저하게 관리, 규율, 통제하기 위해 준법시위양해각서체결을 강제하고, 심리적으로 차벽과 물포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였다. 경찰은 합법의 틀 속에 우리의 자유를 가두어서 조금이라도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득달같이 해산명령을 내리곤 한다. 어느덧 사회운동도 패기와 씩씩함을 잃고 경찰이 허가해준 길로 행진하고 참여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봉쇄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러다가 2008년 촛불집회나 2011년 희망버스를 경험하면서 인권운동이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할지 다시금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나에게 80년대와 90년대 초반까지 거리에서 데모가 세상을 바꾸는 집단의 힘을 경험한 ‘원체험’이라면, 2008년 촛불집회와 2011년 희망버스는 20여 년이 지나서 다시금 집단의 힘을 경험한 ‘추체험’이다. 사람들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권력과 자본의 힘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이제 서울 그 어디에서도 규모 있게 집회할 수 있는 공

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모였고 경찰을 무서워하지 않으며 싸웠다. 그 힘을 촉진하고 독려하며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인권운동의 위치성을 다시금 자리 잡으려 한다.

가끔 이런 상상과 고민을 한다. 인권운동이 갖고 있는 경찰과 집시법에 관한 지식, 싸우고 항의하는 노하우를 집회참여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경찰, 검찰, 사법부는 일사분란하게 법과 질서를 앞세워 대응하는데, 왜 우리는 각자 고군분투하는 걸까? 집회시위가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적인 권리로 인식되지 않고 자신의 싸움주제와 일치시키면서 국가에 대한 대항권을 넘어 우리의 자유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4.19나 6월 항쟁 등은 불법폭력시위를 통해 쟁취되었는데, 왜 지금 우리는 집시법의 왜소한 틀에 갇혀 있는 걸까?

고민의 물꼬는 희망버스 후속활동으로 기획된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아래 돌려차기)’ 활동을 통해서 났다. 집시법, 일반교통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은 인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주로 범법자가 되는 법률인데, 그동안 피해자들은 그냥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겪으면서 운동이 책임지지는 못했던 것 같다. 그런데 돌려차기 경험을 통해 피해를 겪는 개인을 연결하고 우리 운동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가운데, 우리가 싸우려는 세력을 노려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공안세력은 단순히 벌금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들의 싸울 수 있는 패기, 당당함, 자신감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공안세력이 의도하는 바가 아닐까 싶다.

이런 성찰 속에서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하는 온갖 조치에 저항하며, 경찰이 금 그어놓은 선을 자유롭게 들고나면서 거리에서 표현하고 연대할 자유를 외치고 싶었다. 합법의 억압을 벗어던지고 불법의 자유를 만들고 싶었다. 이를 위해 저항과 연대할 자유를 만들어 사람들에게로 ‘스며들고’ 싶었다. 그래서 ‘집회시위 제대로’ 라는 모임으로 투쟁사업장, 인권단체 활동가, 법조인 등이 모였다. 현장과 법제도의 구분을 넘어서는 총체적인 시야와 대

응능력을 갖추고, 현장에서 경찰의 횡포에 주눅 들지 않고 싸우며, 변호사의 도움 없이도 검경 수사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인권침해 당사자로서 투쟁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여 사회적으로 알려낼 수 있는 역량을 함께 채우고 있다.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을 통해 만난 사람들이 소중한 이유는 모이고 싸우는 우리의 이유를 서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런 통로 자체가 오랫동안 사회운동 안에서 흐르지 못하면서 고립되고 분절되었던 경험을 넘어섰기 때문이다. 불의와 부정의에 맞서는 사람들 사이에 오고가는 정감을 나누었기 때문이다. 인권이 갖는 힘은 보편 가치라는 성격도 있지만, 무엇보다 함께 모이고 싸우는 사람을 연결하는 언어이기에 가능한 힘이 아닐까.

두려움의 무게

홍이 || 돌움활동가

*이 글은 '인권오프' 제342호에 실린 '홍이의 인권이야기'를 옮긴 것입니다.

상처입고 아파하는 제주 섬을 담아낸 영화 <비념>을 봤더랬다. 4·3 사건부터 강정마을 해군기지 저지 투쟁까지……. 영화 속 장면 하나하나 무척이나 아름다웠다. 4·3의 그날을 증언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기억 속에 남겨진 상처들과는 너무나 달라 역설적이게 보일만큼 제주는 아름다웠다. 영화를 봤던 그 날부터 내리 일주일간을 꿈쩍없이 앓아누워야 하였다. 우연히 공짜 표가 생겨서 친구들 따라 나들이 삼아 갔던 게 화근이었다.

한국이란 나라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미 있었던 '빨갱이'와 요즘 한국 사회에 유행하는 '중북 프레임'이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떠올릴 수 있다. 여전히 국가는 사람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지만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할 수 있구나 싶었다. 국가공권력이 전면에서 나서지 않고도 구성원들 스스로 다른 생각들을 배제하게 만들고 숙청하게 만드는 것 말이다. A급 전범으로 결국 법정에서 섰던 아돌프 아이히만이 너무나 평범한 한 인간이더라는, 한나 아렌트의 경악에 찬 어려운 이론을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되겠다.

영화가 끝난 후 열린 감독과의 대화 때, 4·3을 다룬 『순이 삼촌』을 쓴 현기영 작가님도 함께 나오셔서 인상 깊은 말씀하나를 던지셨다. “감독은 무당이다.” 자신의 작품으로 억울한 영혼들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 것이란 말씀. 난 이 말에 너무나 공감한다. 나도 그런 경험을 자주 했었다. 사람의 상처와

아픔에 공감하는 능력은 꽤나 탁월한 편이었다. 그리고 자주 그 무게가 온전히 내 것이 되었던 때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나도 꽤 유명한 무당이 되었을 테지.

〈비념〉을 보았던 날이 그랬다. 흑백 자료화면 속에서 죽어가던 당시의 희생자들. 풀리지 않을 한을 가득 담아 당시를 증언하던 어르신들. 하루하루가 전쟁터인 그리움 가득한 강정마을 풍경. 이 복잡한 영상이 뒤섞여 악몽이 되어 가위에도 놀리고……. 꿈속에서도 온몸을 떨며 기도했었다. 그렇게도 고통스럽게 내 무의식에 남아 날 괴롭히는 이것은 무엇일까.

2011년 12월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었다. 나에게 국가라는 존재는 이러한 잊지 못할 기억을 안겨주었다. 수감과 포송에 묶이는 것, 호송차에 실려 감옥 정문을 넘나드는 것, 금지물품 확인이란 이유로 속옷 하나까지 훔짝 까 보이는 것. 이것 역시 내가 몸으로 겪어내어야 했던 국가란 이름의 폭력이었다. 그것도 아주 순수하고 진한 맛의……. 이후 수감생활 내내 사소한 징벌이나 경고에도 가석방이 없어질 수 있다는 등의 압박은 나의 당연한 권리를 같이 되게 만드는 것이어서, 끊이지 않는 갈등을 하였다. 그동안 8년여라는 짧지 않은 시간동안 활동가로 살아왔던 시간들에 대해 끝도 없을 고민도 하였다. 그 시간은 어쩌면 국가폭력 앞에 철저히 고립된 시간이었고 무의식 속의 트라우마와 정면으로 마주한 시간이었다. 힘들었던 기억들만큼 내 몸은 무척이나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14개월 만에 출소한지도 벌써 한 달하고 보름쯤 되어간다. 다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처절하게 끊어내어야 했던 인연도 있었다. 조금씩 정리되어가는 느낌이다. 다시 처음으로 내가 있던 자리로, 시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길은 여기에 있을 테지. 이 기억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지 더 파 내려가고 싶다. 하지만 두렵기도 버겁기도 끔찍하게 다시는 직면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과의 작업이기도 하다. 다만 이 작업이 나와 친구들의 트라우마를 함께 보듬는 힘의 원천이 되어주기만을 바란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것도 바꾸지 못할 거야”

박석진 || 톨음활동가

지난 몇 년 동안 사랑방 활동을 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다. 항상 쫓기듯이 바쁘게 활동했지만, 이 활동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 수 없었다. 나, 그리고 사랑방의 활동이 이 사회를 인권적으로 바꾸는 데 무엇을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도 잘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에만 집중하지 않고 그러한 사건들을 낳고 있는 구조에 대해 문제제기하며 바꿔 나가고 싶은 것인데 과연 우리의 활동들은 그러한 큰 틀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조직적 위기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사랑방의 다른 활동가가 무슨 활동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고 활동의 고민을 함께 나누기도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회의에서 운동에 대한 서로의 비전과 고민을 나누기보다는 사무적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데에만 급급하다는 느낌이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자 답답함을 넘어 고립감까지 느껴지기도 하였다. 그런데 나 혼자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이야기해 보니 사랑방 활동가들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변화의 지점을 모색해 보자.’는 서로의 욕구를 확인하며, 사랑방 20주년을 기점으로 사랑방 운동의 전략을 함께 모색해 보게 되었다.

전망은 멋진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실이 발

딘고 있는 역사를 풍부하게 인식함으로써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랑방에서는 지난해 운동 전략 논의를 시작하면서 사랑방 20년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았다. 매달 발행하는 사랑방 후원인 소식지인 <사람사랑>을 1호부터 검토하고 예전 회의록과 인터넷 게시판들을 뒤지면서 사랑방 20년 활동 연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사랑방 운동의 근간을 이루고 활동의 기풍을 만들어 온 주요한 문서들도 정리해 공유하기도 하고, 각 팀별 활동의 역사를 정리하고 평가하면서 이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의 평가틀을 고민하기도 하였다. 또 사랑방 운동의 핵심 기조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권운동의 진보성과 대중성’을 현재적인 의미에 맞게 새롭게 조망해 보기도 하였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사랑방의 역사에서 활동과 조직의 큰 흐름과 몇 가지 경향성 및 변화를 흐릿하게나마 읽어낼 수 있었다.

사랑방의 역사를 통해 나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나는, 내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사랑방 20년의 역사가 사랑방 활동가들이 충분히 자랑스러워 할만한 역사라는 점이다. 사랑방은 언제나 권력과 타협하지 않고 진보와 변혁의 입장을 견지하고자 치열하게 운동을 고민해 왔다. 그 과정에서 권력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가끔은 ‘우리(진보 진영)’에 대한 쓴소리도 마다치 않았다. 그리고 사랑방 스스로도 엄격한 잣대로 성찰하는 것에 그다지 게으르지 않았다고 본다. 선배들로부터 전해진 이런 운동의 분위기를 통해 지금의 사랑방이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 및 사회운동의 변화와 역사 속에서 사랑방의 독특한 위치성을 살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사랑방이 처음 만들어진 1993년 즈음은 여러 시민단체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였다. 87년 6월 항쟁과 이어진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는 수많은 대중운동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 운동들이 민중운동의 큰 흐름을 주도하였다. 전국민적인 지지를 통해 민주화운동은 민주와 인권이라는 시대적인 가치를 형성할 수 있었고, 민중운동은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때 형성된 시대적인 가

치는 90년대에도 이어지면서 사랑방 활동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민주와 인권이라는 시대 가치하에서 인권은 규범적인 힘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90년대 초반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 사회주의권이 잇달아 무너지고 한국 사회에서도 ‘문민정부’가 등장하는 등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공론장이 열리면서 시민운동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 시민운동의 주류는 기존의 민중운동과는 선을 그으면서 독자적인 활동가 조직으로서 전문성으로 무장한 정책 중심 활동을 주요한 정체성으로 삼게 된다. 사랑방은 이러한 시민운동 주류의 흐름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면서도 인권운동의 전문화, 국제화, 대중화를 통해 일종의 전문적인 역량으로서 사회 변혁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사랑방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경계에서 시민운동적 방식을 통해 민중운동을 확장시켜 나가고자 하는 전략을 통해 일정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다. 그 기반에는 민주화운동이 만들어 낸 사회적인 규범으로서 인권이 갖고 있던 힘도 작동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랑방 선배들은 종종 이 시기를 “인권이라는 말만 해도 새롭고 먹힐 수 있었던 시기”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이때 사랑방은 많은 사회 의제들을 선도적으로 제기했고 타협 없는 투쟁을 통해 성과를 쟁취하였다. 때론 인권이 거부하기 힘든 사회적인 규범이었기 때문에, 또 때론 당시 존재하던 대중운동과 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97년 IMF 관리 체제와 소위 ‘민주정부’라는 김대중 정부의 등장 이후 한국 사회에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민주화운동과 인권운동의 성과가 일정 정도 제도화되면서 많은 것들이 변화하게 되었다. ‘인권 대통령’을 표방한 김대중 정부의 등장 이후 인권은 더 이상 저항의 언어만이 아니라 제도 정치의 언어로 포획되면서 가치 경합적인 언어가 되었다. 인권은 더 이상 “말만 해도 새롭고 먹히는” 의제가 될 수 없었다. (물론 우리 활동가들의 부족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존의 대중운동은 급격하게 쇠퇴하였다. 대중들도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가운데 사랑방은 활동 방식과 필드에 있어서 여전히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이미

이 경계도 모호해졌지만)의 경계 전략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사랑방이 제기한 의제에 공명할 만한 힘 있는 대중운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촛불 대중’처럼 거대한 대중의 흐름은 없지 않았지만, 그 흐름은 좀처럼 운동과 결합하기 어려웠다. 사랑방은 변함없이 치열하게 활동하고 끈질기게 대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했지만, 언제부터인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느낌보다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함과 답답함이 더 커졌던 것 같다. 나의, 우리의 활동이 세상을 바꿔 나가고 있기는 한 건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사랑방은 지속적으로 운동 전략을 모색해 왔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해답을 찾지는 못하였다. 이번 사랑방의 전략도 그 해답이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이전의 사랑방 전략과는 달리 사회운동에서의 사랑방 운동의 위치성에 대한 분석과 고민을 주요한 변수로 사랑방의 역사를 고민하였다는 점에서 때문에 진전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전략을 통해 사랑방으로서도 일종의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 자유권·사회권·반차별과 같은 권리 영역별 팀을 해체하고 통합적인 활동 단위를 만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았다. 또 이런 결과를 통해 기존의 운동 성과마저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이 들었던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될까, 이게 과연 괜찮은 길일까 하는 걱정을 수도 없이 하였다. 하지만 역시 가보지 않고서는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러던 때, 요즘 읽고 있는 만화책 한 장면이 가슴 속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할 거야.”

그래, 비틀거리며 가는 게 인생이지, 라고 일단 위안을.

인권운동사랑방, 다시 걷다

설렘과 두려움 사이로 내딛는 발걸음



인권운동사랑방(아래부터 ‘사랑방’)은 안산의 반월·시화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활동을 2013년에 시작하였다. 심지어 중심활동이다. 당연히, 의아해 하는 눈길과 기대 반 우려 반의 질문들이 쏟아졌다.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을 조직한다고? 왜 노동자야?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인권단체가 왜? 중심활동?.....

정성껏 답을 해보려고 하지만, 사랑방도 명쾌하게 답을 할 수가 없다. 이 모든 질문이 사랑방의 질문이기도 하다. 관계를 조직하는 인권운동을 해보자, 체제를 거스르는 관계. 20주년을 돌아보며 다시 내딛는 한 걸음의 약속이다. 입 밖에 내고 나니 너무 당연한 말을 굳이 힘주어 하는 듯도 하지만, 다시 그렇게 근본을 되짚는 것도 필요한 때인 듯하다. 정답을 아는 이가 있을까. 놓칠 수 없는 질문이 있다면 그걸 붙들고 나누면서 가보고 싶다. 사랑방 안팎의 기대와 우려들을 헤아리며.

20년 동안 한국의 인권운동은 크게 성장하였고 한국사회를 바꾸려는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사랑방도 든든한 인권활동가 동료들 덕분에 그 안에서 뚜벅뚜벅 걸어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인권운동을 ‘인권’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시간이기도 하였다. ‘인권’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인권침해’라고 말하면 함께 분노하던 기운이 사그라지는 시간이었다.

한때 인권운동이 바라던 인권의 대중화는 인권의 ‘남용’을 우려해야 하는 현실로 우리 눈앞에 있다. 인권 사안이 많아지는 것이 문제일까?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충분히 말하지 못했나? 인권이라는 언어는 어쩔 수 없는 걸까?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인권을 주장하는 방식의 문제일까?…….

이러저러한 질문들 속에서 투명해진 것이 있다. 사람답게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보려고 모이는 사람들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인권’을 열심히 말하면 거기에 감응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들 거라는 기대에 마냥 빠져있었던 것은 아닐까? 모여서 함께 싸우려는 사람들이 인권의 언어를 통해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을, 인권의 언어가 있어 싸우려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이라고 어느새 거꾸로 생각하게 됐던 것은 아닐까? 인권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려던 포부가 인권에 시야를 고정시키느라 세상의 변화를 놓치게 했던 것은 아닐까? 함께 사회를 바꾸기 위해 치열하게 변혁을 모색했던 운동들의 흐름을 제각각의 몫이 있다는 생각으로 지켜보기만 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다시 사람들이 모이는 조직, 관계, 장소들에 주목하면서 ‘조직화’를 함께 하려고 하였다. 우리의 질문이 활동가들만의 붕붕 떠다니는 질문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움직여 보기로 하였다. 조직하는 주체와 조직되는 대상을 구분하는 조직화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관계로 밀어 넣는 조직화를 모색하려고 한다. 인권운동을 삶으로 실천하려는 우리들과, 우리가 만나려는 사람들을 다른 조건에서 다른 고민을 하면서 살아간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운동이 아니라, 서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함께 싸우기도 모호하는 것이 운동이라면, 우리의 위치에서도 ‘조직화’를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보이지 않는 걸 보고 들리지 않는 목소리를 들으려고 애썼던 노력이, 길 떠나기 시작할 노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조직’이라는 말에 달라붙어 있는 느낌들, 형식성, 딱딱함, 배타성, 이기주의, 고체성, 견고함 등도 조금은 어색하다. 세상을 바꾸려는 운동들 안에서 ‘조직’의 역사와 구조적 위치들도 무시할 수 없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싸우는 장소가 되기도 하지만, 노동법이 정한 틀 안에 노동자들의 불만을 가두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조직’이 원래 그런 건 아니다. 살다 보면 더 자주, 더 안정적으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은가. 같이 복잡복잡 일을 벌여보고 싶은 사람들, 사고 한 번 쳐도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괜찮다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런 사람들과 만드는 ‘조직’이라면 서로 얼마나 행복할까.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조직이라면 그것은 언제나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 움직임을 가두지 않는 조직은 새로운 형태의 결속으로도 가능하고 낯은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사람들이 ‘인권의 주체’로 설 수 있기를, ‘권한 강화’되기를 바라는 것과 조직화는 다른 말이 아니다. 다만, 인권이 관계를 통해서만 서로에게 힘을 주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그런데 왜 굳이 노동자? 사람들이 많이 묻는다. 우리도 스스로에게 오래 묻게 될 듯하다.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배경이 있을 것이다. ‘노동’, ‘노동자’, ‘계급’, ‘노동운동’과 같은 말들은 사전적 정의만 가진 말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자본주의 질서를 넘어설 힘, 사회주의의 유산, 패권과 위계 등 저 말은 다양한 맥락에서 언급된다. 그 중 하나의 맥락을 선택하려는 것은 아니다. 사랑방은 변혁을 꿈꾸며 이 세계가 굴러가는 방향, 그 방향을 만들어내는 힘을 더욱 잘 들여다보려고 한다. 사람들의 노동을 조직하는 사회적 관계들, 그것을 지탱하는 동시에 만들어내는 물적 조건을 봐야 한다. 특히 ‘인권’의 언어가 놓치기 쉬운 것이라 더욱 신경을 쓰려고 한다. 체제를 변혁하려는 의지가 노동을 우회할 수 없다는 고민은, ‘생산관계’를 분석하는 것 이상이기도 하다. 인간의 존엄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만 선언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관계를 구성하는 서로의 노동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려는 것은 ‘노동자’이지만은 않다. 이미 구획된 특정한 운동의 조직화에 일손 보태려는 것도, 특정한 의제로서 ‘노동권’에 집중하겠다는 거나 ‘노동자의 권리’에 착목하겠다는 것도 아니다. 인권운동이 ‘큰’ 운동들이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 이야기들을 세상에 전해 오려고 노력했던 대로, 그런 이야기들을 품은 사람들을 만나려는 것이다. 그/녀들로부터 우리는 세상을 배우고 인권을 재구성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이 밥 먹여 주냐며 비웃는 세상을 향해, 인권으로 먹고살고 서로 먹여 살릴 수 있는 관계와 물질 조건을 보여주고 싶다. 그건 그저 만나러 가는 것을 넘어, 관계를 조직하려드는 실천을 통해서만 꿈꿀 수 있는 것임을 다시 상기하면서.

사랑방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여러 단체들과 함께 모색하고 있다. 공단 영세사업장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뿐만 아니라 최근 사랑방의 활동은 모두 다른 단체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단체가 독자적으로 하는 활동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긴장도 있었다. 하지만 ‘연대활동’도 ‘활동’인데 혼자 하느냐, 여럿이 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어쩌면 인권운동에서 ‘연대’는 인권의 내용과 형식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기도 하다. 사랑방 초기의 활동가들이, 스스로 독자적인 단체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여러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일의 공동사무국 역할을 염두에 두었던 것도 그 때문인 듯하다. 이왕 그런 거라면 ‘연대’를 외부화하지 말고 연결의 흐름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자는 생각이다.

그래서 전략조직화 사업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여러 활동들에서 사랑방의 질문을 함께 나누고 싶다.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 인권운동은 흔히 감시단 역할을 분담해왔다. 그러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싸우기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게 된 상황이라면, 감시단 이상의 역할을 고민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차별을 없애 나갈 힘은 평등한 관계를 꿈꾸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려고, 모이려고, 함께 싸우려고 할 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평등을 꿈꾸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서 서로를 엮어갈 수 있을까. 어딘가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지키려는 각자의 장소가 ‘우리’의 장소들일 텐데, 그 소중한 장소들을 서로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이런 질문들은 사업이나 활동에 대한 것만은 아니다. 사랑방에 모여 있는 다양한 활동가들이 각



자의 삶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고민, 세계에 대한 인식, 인간을 이해하는 감수성들이 만나면서 생기는 질문들이기도 하다.

물론 전략조직화 사업을 ‘중심활동’으로 둔 것은 사랑방의 무게중심을 그 활동으로부터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다. 더 중요한 활동이기보다는 사랑방의 구심에 있는 활동이라는 의미다. 무게중심은 한 자리에 버티고 앉아 무게를 잡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고 움직이면서 자신의 몸을 헤아릴 때 차츰 만들어질 것이다. 그 흔들림과 움직임들이 다른 여러 활동을 통해 만들어질 때 무게중심도 더욱 잘 잡게 될 것이다. 이 글과 함께 실린 여러 활동가들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고, 몸을 움직일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바란다.

여러 기대와 우려, 아직 다 헤아릴 수 없는 가능성과 한계를 만나게 될 것 같다.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한다. 언젠가는 안 그랬나. 20주년이라니 무게감이 괜히 커지는 듯도 하다. 그럴수록 많은 걸 내려놓고 몸을 가볍게 하고 가야지. 우리가 바라는 게 거창한 것도 아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싸우며 서로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것, 그게 부러워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 인권이 그 흐름에서 매력적인 언어가 되고 든든한 힘이 되기를. 인간의 존엄에 대한 절대적 긍정만 내려놓지 않으면 무엇이든 괜찮다.

서로 기대다

사랑방 20주년에 부치는 글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창립일도 불분명한 사랑방이 대강 20살을 먹었다(준비모임부터 따지면 사실 22년 차가 된다). 격려와 연대의 글을 쓰라 했지만 공상맞은 추억과 푸념이 될 것 같다. 여름에는 환기가 불가능하고 겨울에는 손가락과 화장실이 어김없이 얼었던 사무실 환경, 무급이다가 처음으로 활동비 체계를 정할 때 당시 최저임금에 맞췄던 기본급 35만 원이 2006년 내가 사랑방을 떠날 때까지 계속 기본급이었다(물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다. 내 눈에는 사무실도 여인숙에서 호텔급이 됐다). 그리고 20대 중반이었던 나는 40대 후반이 됐다.

92년 8월에 준비모임이 시작됐고, 93년 초 어느 날엔가 점심 먹고 둘러앉아 똑딱 지은 이름이 '인권운동사랑방'이었다. 단체 이름 같지 않은 그런 이름을 지은 건, 처음엔 단체를 만들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인권운동을 횡으로 연결하며 정보와 자료를 공동으로 축적하고 인권의제를 발굴·도전하는 일에 손발이 되는 행동대(혹은 인권단체 공동 사무국) 같은 것이면 됐지,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런 바람의 실현은 여의치 않았고 이름도 없이 활동을 해나가기 불편하여 임시로 지은 이름이 '사랑방'이었다. 당시 원종배 아나운서의 'TV 사랑방'이 있었고, 길거리마다 '사랑방 카페'가 많았으니 우리의 창작 수준이 그 주변 어디쯤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이 굳어졌고 20년 동안 불리게 됐다.

처음엔 인권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서 매일 신문 스크랩만 하고 지냈다. 그러면서 ‘아니 그런 것도 인권 문제인가요?’란 반응이 일상일 만큼 사람간의 관계나 거대 구조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들에 인권을 붙여 다시 들여다봤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국제인권에 눈을 떴고, ‘군부독재정권 하 인권문제’를 벗어나 세계사 속에서의 인권을 생각하게 됐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접하면서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도발(?)하게 됐고, ‘도덕교육을 인권교육으로’란 당돌한 구호를 외쳤다. IMF 구제금융 사태를 계기로 자유권만이 아니라 사회권이라는, 인권의 잃은 날개를 찾아 헤맸다. 탈출자와 출소자와의 조우 때문에 수용시설의 인권을 제기하면서 피해자들에게나 당국에게나 이중으로 원망을 들어야 했다. 불심검문에 반대하는 캠페인의 성공 덕에 경찰들이 제일 싫어하는 인권단체가 됐고, 인권영화제란 걸 열어서 국정원(당시 안기부) 직원까지 동반된 사무실 압수수색도 받아봤다. 인권에도 이론이 필요하다고 내부에 연구소를 만든 후에는 책상에 감금돼 수험생처럼 공부도 해야 했다. 제대로 된 국가인권위 설립을 위한 한겨울 노숙단식농성은 그 치열함 때문에 농성의 강도를 너무 높였다는 불만을 들었다. 13년 동안 낸 인권신문 <인권하루소식>은 13년 동안의 밤샘을 의미했다. 우리가 늘 밤을 새우는 걸 알기에 한밤중에도 전화폭주는 계속됐다.

이런 일들을 하는 내내 우리는 끊임없이 싸웠다. 회의를 하고 나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기 싫을 정도로 우린 늘 격렬했다. 그 탓에 끊긴 관계도 많다. 사람을 잃고 또 새로운 사람을 얻으며 그렇게 20여 년이 갔다. 끊긴 관계의 끈 저편에 있는 사람들의 땀과 고뇌를 오늘 아프게 기억한다.

지금의 사랑방 활동가들에겐 앞서의 20년보다 할 일이 더 많아졌고 그 구조는 더 복잡해졌고 맺고 다독여야 할 관계의 끈도 깊어졌다. “미련한 자가 그 미련함을 다하면 현명해진다.”, “꿈꾸면서 계속 걸어라.” 내가 지독히 미워했던 한 구성원이 우리를 채근하면서 늘 했던 말이다. 마찬가지로의 말을 지금의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하고 싶다. 사랑방은 요령 부리지 않고 원칙에 충실하려

애썼다. 잘 모르는 것일수록, 잘 모르는 때일수록 원칙을 고집하는 미련을 떨었다. 늘 터지는 것이 사건이고 인권현안이다. 몸도 시간도 모자라지만 다른 세상에 대한 꿈도 공부도 기획도 같이 해야 하는 것이었다.

내가 사랑방에서 독립하여 인권연구소 ‘창’을 만든 후에 ‘창’을 가장 많이 드나든 것은 사랑방 사람들이다. 우린 계속 토론하고 싸우고 또 다독였다. ‘계속 하자’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고 삶이다. ‘계속하라’가 아니라 ‘계속 하자’고 말할 수 있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내가 당신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당신들이 내게 그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한밤중에 사랑방을 떠올리니

한날 ||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사랑방과의 첫 만남은 석연치 않았다. 정확히 말해, 그 석연치 않음으로 인해, 제대로 된 첫 만남은 2년 뒤에나 성사될 수 있었다. 잠시 랩 그룹 활동을 했던 시절, 인권운동사랑방의 공연 섭외가 있었는데, 의사를 묻는 멤버들에게 나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운동 단체 이름에 '사랑'이 들어간다니, 이 달짝지근함과 느슨함의 정체는 무어란 말인가. 어딘지 모르게 자선 행사 냄새가 났고, 일정 핑계를 대긴 했지만, 내가 갈 자리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이 행사가 2006년 가을, 사랑방이 보다 안정적인 사무 공간을 얻기 위해 준비한 <은행 털고 싶은 날> 후원 주점이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기억의 조각들을 맞춰본 후에야 알 수 있었다. 그 날 주점의 수익을 주춧돌 삼아 얻은 중립동 사무실이 나의 첫 인권운동의 터, 인권교육센터 '들'의 보금자리였다는 것은 재밌는 삶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나는 최근 긴 연애를 마감했다. 젓가락 사이에서 휘청거리는 목처럼 위태롭고, 나일론 고무줄 마냥 번덕스럽기 짝이 없는 그 '사랑' 때문에 마음앓이를 심히 하고 있다. 이별 앞에 사람이 이토록 누추하고, 비겁해질 수 있다니. 온갖 똑똑한 척은 다하며 오랜 기간 만나왔는데, 막상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니 원칙도 예의도 뒤틀도 없이 생채기만 내는 데 여념이 없었다. 모질게 아프고 나서야, 이런 게 사람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구나 싶다.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고, 사람을 쉬이 바꿀 수 있다 여기는 것도 오만이다. 그래서 사랑보다는 이별이, 성공보다는 실패가 보편이라는 것을 가슴 저리게 깨닫는다. 내가 참 좋아하는 한 활동가는 연대는 연애와 같은 것이라 말했다. 연대는 상품이 아니라 선물이고, 틀어진 연대는 연인의 배신처럼 시리다 했다. 운동의 대의와 원칙을 옹호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 그러나 운동의 길에서 정녕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이 풍진 세상, 한 몫의 사람으로 살기도 벅찬 세상, 다시금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고, 복잡다단한 사람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자 하는 사랑방 활동가들이 안쓰러운 한 편, 대단하다 느껴진다. 때때로 쨍한 눈빛에서, 날선 말씨에서, 깊은 한숨에서, 만성적인 속쓰림에서, 싱거운 웃음에서, 영성만 농담에서 역설적으로 이들의 결기가 흘러나올 때 나는 마냥 이들과 복닥거리며 서로의 짐을 나누고 싶다 생각한다.

내가 일하고 있는 인권교육센터 ‘들’과 인권운동사랑방은 여전히 사무실을 공유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 사무실이지, 홍대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꽤나 많은 생활의 시간을 보내는 재생산의 장소이기도 하다. 사무실의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하루 두 끼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해야 한다. 바쁜 일정에 갑작스레 서러움이 복받쳐도, 먹고 치우는 문제는 제쳐둘 수 없는 일이기에 애써서 챙기곤 한다. 그렇게 서로 얽히고설켜 적어도 하루 한 번은 식탁에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니 사무실에서는 사람 냄새가 가시지 않는다. 넉넉지 않은 서로의 살림살이 탓에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된 것만은 아니다. 같은 공간을 쓰는 것이 그리 부대끼지 않는 것은 사랑방과 ‘들’이 운동의 정신에 있어 서로 닮은 구석이 꽤나 많기 때문이다. ‘들’의 독립과 탄생은 여러 단체와 개인들의 힘으로 일군 것이기에 전적으로 사랑방의 공이라고만 평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인권운동을 사유화하지 않으며, 지나치게 덩치를 키우지도 않겠다는 사랑방의 운동 원칙이 없었다면 인권교육을 중심에 둔 하나의 센터가 만들어지는 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 ‘들’ 은 인권교육을 ‘들’ 을 포함한 특정단체가 독점하거나 독식하는 것을 경계합니다. 각 인권운동의 영역이 스스로 인권교육의 역할을 키워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판을 여는 것이 ‘들’ 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 인권교육의 불모지의 경우, 독자사업을 통해 인권교육을 확산합니다. 그러나 함께할 수 있는 주체(단체)가 있을 경우 반드시 연대를 통한 공동사업을 추진합니다. / ‘들’ 이 인권교육을 통해 만나는 사람과 현장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인권교육을 접할 기회로부터 멀어진 사람들, 인권을 통한 변화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만나려 노력합니다. / ‘들’ 은 강연 중심의 대규모 집체식 교육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참여자와 진행자 간의 평등한 상호소통 속에서 참된 변화의 씨앗이 움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 해 한창 논의 중인 인권교육센터 ‘들’ 교육 및 활동 원칙의 일부분이다. 사랑방이 뿌린 자유와 연대의 씨앗은 이렇듯 ‘들’에 날아와 견고한 뿌리를 내렸다. 사랑방이 꼬장꼬장하게 지키고 써내려간 20년 인권운동의 역사는 사랑방 운동에만 그 자취를 새긴 것이 아니다. ‘들’에 그리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싸우는 모든 이들의 운동 속에서 되살아나고 있다. 당신들의, 그리고 우리들의 간절한 바람처럼.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으로 20주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랑방 활동가들의 모습을 보며 ‘들’의 20년 후를 상상해본다.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 민망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사람 속에 흔들리고, 섞이고, 그러면서 한 발 더 나아가는 운동을 어딘가에서 하고 있어야 할 텐데.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당신들과 주머니 받거나 술잔 기울일 날이 곧 오기를. 결국 또 술타령으로 글을 끝맺고 마는구나.

새로운 봄을 기다립니다

은진 || 서울인권영화제

20년이라는 시간. 아득한 것 같기도 하고, 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20년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에 수많은 사람들이 머물다 지나갔고 저도 그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사랑방은 부족한 제가 ‘인권활동가’라는 이름을 달고 살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곳입니다. 그런데 20주년을 맞는 축하의 글을 써줘야 하는 입장이지만, 사실 아주 감격스럽지도, 두근거리지도 않습니다. 20년간 잘 해왔다고 칭찬을 해주자면 칭찬할 거리가 많은 것 같기도 한데, 웬지 살짝 민망하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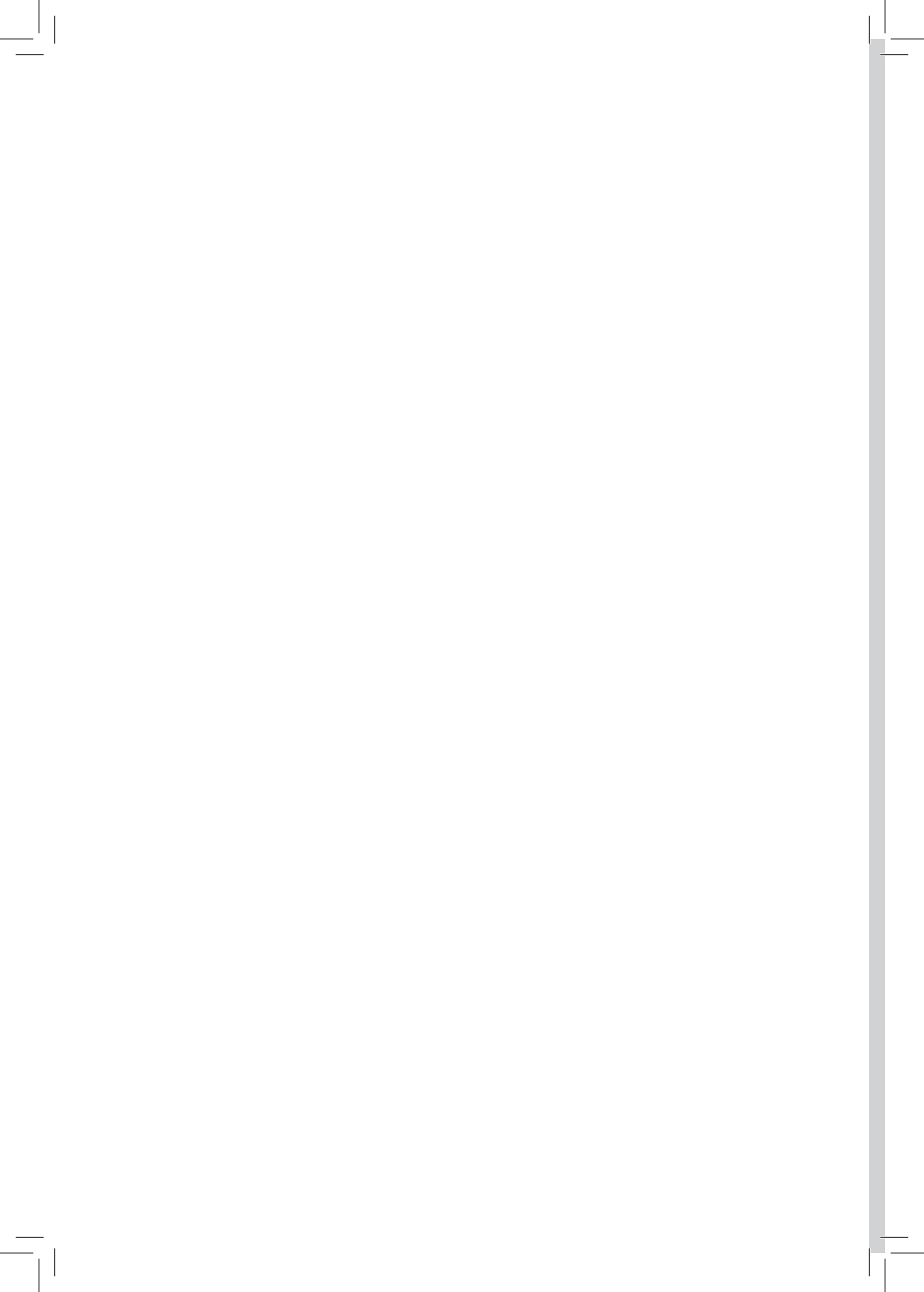
올해 1월, 서울인권영화제가 인권운동사랑방으로부터 분리·독립했습니다. 인권연구소 ‘창’, 인권교육센터 ‘들’에 이어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굳이’, ‘왜’라는 물음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인권운동이 한 단체로 집중되지 않고, 전체 인권운동의 성과로 확장되는 것을 지향해왔기 때문입니다. 사랑방이 처음 만들어졌던 2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열악한 인권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척박한 현실 속에서도 인권영화제를 만들고 지켜와 준 사랑방 활동가들에게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 단체로서 서울인권영화제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도 다시 한 번 느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햇수로 2년 가까이, 인권단체로서의 내일을 이야기하기 위해 말 그대로 고군분투 해왔습니다. 활동가들끼리의 고민과 갈등은 글로는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아, 글로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인권운동사랑방 안에서 서울인권영화제 독립을 준비하는 내부자로서, 또 독립한 후 다른 단체의 입장으로 그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아쉬워하거나, 답답해하거나 또는 흥미진진해하면서 말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제가 사랑방을 알기 이전부터 때로는 아주 치열하게, 때로는 꼬장꼬장하게 있어준 것 같습니다. 사랑방 활동가들이 잔소리가 어찌나 심한지요, 회의는 무슨 마라톤처럼 긴지요. 하아, 가끔 왜 저렇게까지 사나 싶기도 하지만 그 치열함이 20년을 굳건히 그렇게 제자리를 지켜올 수 있었던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치열함으로 또 다른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 전 읽은 한 책에서 사람의 인생을 사계절에 비유하더군요. 조직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명성이 높아지고 화려했던 여름에서 가을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룬 성취를 과감하게 버려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책에서 말합니다. 그 문장을 보면서 지금의 인권운동사랑방이 생각났습니다.

활동가들은 흔히 “이 땅에 인권단체가 필요 없어질 때를 바란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땅에 인권운동사랑방이 존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방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봄을 만들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내일,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숨고르다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돌아보다



0.

90년대 인권운동을 했던 활동가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다. “그때는 ‘인권’이라고 하면 다 먹혔어.” 시대는 변했다. 지금 여기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의 고민은 이렇다. “이러다가 ‘인권’에 먹히는 거 아냐?” 국가‘인권’위원회의 변모를 보며, 사무실로 걸려오는 ‘가해자 인권만 주장’한다는 항의 전화를 받으며, 우리는 ‘인권’에 대한 긴장을 끈추세운다.

그러나 ‘인권’이 언제나 저항의 언어일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은 그때에도 없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오히려 ‘인권’을 경계하기도 했다. 인권이 체제를 포장하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인권’을 놓지 않고 20년을 걸어왔다. 그것은 ‘인권’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다. 20년의 역사 동안 만나 온, 인간의 존엄을 깨우치는 목소리들이 우리에게 남긴 울림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 그것은 더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더 어려워지거나 더 쉬워지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다. 인권이 저항의 언어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질문을 멈추지 말라는 요구일 것이다. ‘인권’을 살피기 위해 ‘지금, 여기’를 살피라는 요구.

인권운동사랑방(아래부터, 사랑방)은 ‘인권’에 대한 긴장과 믿음 사이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며 걸어왔을까. 20주년이라는 핑계를 빌어 사랑방은 역사를

돌아볼 시간을 얻었다. 좌고우면과 좌충우돌 사이에서 사랑방이 걸어온 길이 보였다. 뿌듯함과 아쉬움이 그리 쉽게 구분되지는 않았다. 어느 순간에도 완결된 역사란 없겠지만, 때로는 사랑방을 통해 때로는 길 밖의 풍경을 통해 더듬어본 기억을 함께 나누려고 한다.

쉽게 긴장을 풀거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 덕분에 사랑방이 다시 걸어갈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걸 새삼스레 깨닫게 되기도 했다.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고마움을 전한다. 되돌아보는 이 길이 많은 이들에게 반갑기를 바란다.

1.

인권운동이 한국 사회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 운동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다. 사랑방은 민중운동과 시민운동의 경계에 자리를 잡았다.

80년 광주민중항쟁은 한국 사회에 ‘민중’을 등장시켰다. 엄밀히 말하면 ‘민중’을 발견한 이들이 80년의 항쟁을 광주민중항쟁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한국 사회의 변혁을 꾀하는 이들은 ‘민중’의 거대한 저항을 조직하기 위해 애썼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주체로 ‘시민’이 아닌 ‘민중’을 세우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민중’은 극소수의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대중을 일컫는 말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삶과 연결할 수 있었던 보편의 이름이기도 했다. 87년 민주화항쟁을 전후로 만들어진 대중조직들이 이와 같은 운동의 전망 아래 대중의 힘을 조직했다.

독재 타도를 위해 모였던 운동들은 87년 민주화항쟁 이후 분화하기 시작했다. 1990년대 초반, 사회 개혁을 주장하며 ‘시민’을 다시 세우려는 시민운동이 등장했다. 그것은 민주화항쟁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80년대 후반 경제 호황을 거치며 한국 사회의 계층 구조가 변화한 결과이기도 했다. 당시 한국 사회의 변화, 그리고 세계사적 변동 속에서 시민운동의 주장은 변혁의 포기로 이해되었다. 새로운 ‘현상’으로서의 시민운동과 정치적 ‘주장’으로서의 시민운동



은 순식간에 ‘현실’이 되었다.

사랑방은 ‘탄원서 써주는 단체’라는 자리를 넘어서려고 했다. 민중운동의 하위 파트너로만 인식되던 역할을 벗어나 ‘인권운동’이라는 독자적인 자리를 마련하려고 했다. 이것은 모든 운동을 하나의 운동으로 수렴하려는 시도를 경계하며 더욱 다양한 영역에서 운동을 펼쳐가려는 의제별 운동들이 만들어지던 시민운동의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대중화, 전문화, 국제화’라는 목표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다. 그러나 시민운동이 만들어내는 정치적 효과는 금세 드러났다.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었던 사랑방은 시민운동과 경계를 그으려고 했다. 사랑방이 인권운동의 인프라를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기본 기능의 구조를 의미한 것은 아니었다. 체제에 갇히지 않는 인권운동에 대한 다짐을 실물화할 수 있는 운동의 조건, 땅을 다지려는 도전이기도 했다.

2.

그 땅은 좌표를 재고 세밀하게 측량을 하면서 설계한 땅은 아니었다.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물러설 수 없는 곳에 맞닥뜨리며 인권운동의 자리를 확인했다. 그 곳에 누구나 문턱 없이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사랑방’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사랑방의 한 활동가가 연행되면서 발행한 속보가 ‘인권하루소식’이라는 매체가 되었고, 인권하루소식 700호를 기념하자며 시작한 ‘인권영화제’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현장이 되었다. 한국 사회를 움직이던 민주화의 기운 속에서 ‘인권’은 아직 민중의 것이었다. 체제에 갇히지 않는 인권운동을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은, 육체의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한 번 붙들면 끝장을 보는 태도를 통해 구현될 수 있었다. 당시 운동의 풍토에 대해 스스로 다른 풍토를 보여주려고 했다. 바람을 일으켜 땅이 보이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인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었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은 여전히 낯선 언어였다. 사랑방도 마찬가지였다. ‘인권’은 익숙하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배우고 찾아야 하는 것이었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다녀오면서, 국제인권규약들을 탐독하면서, ‘인권’이 무엇인지를 탐구했다. 인권은 “민중에 의한 기본적 통치이념”이어야 한다는 시선을 통해 ‘인권’을 읽어냈다. 그리고 ‘인권’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다. 인권을 알리는 것은 인권 규범을 소개하고 인권 소식을 전하는 것 이상이어야 하므로 인권교육의 장을 개척하기 시작했다. 누구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자원활동가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들과 나누기 시작한 ‘인권’ 이야기는 그 전까지 사람들에게 익숙한 인권만은 아니었다. 87년 민주화항쟁 이후 반독재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과거 청산의 과제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사랑방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것에 그치지 않았다. 감옥인권운동은 양심수나 정치범의 권리를 넘어 모든 수감자들의 권리에 대한 주장으로 나아갔다. 감옥과 다름없는 시설의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며 모든 갇힌 자들의 벗이 되고자 했다. 사람들에게 익숙해져버린 불심검문에 대한 불복종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이라는 생소한 말을 인권운동의 의제로 만들어갔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들으려는 노력은 인권하루소식의 독자들, 인권영화제의 관객들, 인권자료실을 찾아오는 연구자들, 인권교육실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이렇게 집단으로서 또는 개인으로서 ‘인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인권운동의 자리를 넓혀 주었다. 그러나 차차 넓어지는 자리가 인권운동만의 것은 아니었다.

3.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은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사건을 만들어냈다. 김대중은 스스로를 ‘인권대통령’이라 불렀다. 인권이 어느새 대중적인 언어가 되어 갔다. ‘민주개혁’은 인권의 요구들을 담은 듯 보였다. 인권운동의 요구이기도 했던 인권 의제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각종 과거사



위원회의 설치 등 기구와 정책을 통해서 인권의 제도화가 눈에 띄게 이루어졌다. 운동의 제도화도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정부기구, 각종 위원회, 제도적 절차들이 세상을 바꾸는 유력한 수단으로 부각되었고 운동의 의미는 좋은 정책을 관철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다양한 운동들이 인권의 언어를 사용했다. 인권은 다른 의미에서 ‘떡히는’ 언어가 되어갔다. 사람들에게 올림을 전하는 저항의 언어가 아니라, 정책의 정당성을 설명하며 제도로 밀어 넣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가 되었다. 법과 제도의 근원으로서 선언되던 ‘인권’은 차츰 법과 제도로부터 나오는 권리인 것처럼 뒤집혀 보였다.

80년대의 운동들이 버렸던 꿈, 87년 민주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의 성과와 한계 사이에서 뻗어나가던 운동의 기운들이 급속하게 휘감겨 들어갔다. 정치적 민주화를 향한 꿈은 반독재 민주 정권의 수립에서 멈췄고 경제적 민주화를 향한 꿈은 세계경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장 합리성의 확립에 가로막혔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싸웠던 많은 이들의 꿈은 ‘민주화’로 더 이상 설명될 수 없었다. 운동들은 흔들렸다. 여러 길 중 하나의 길일 뿐이던 곳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금세 큰길이 됐다. 세상을 바꾸려고 조금씩 내온 많은 길들이, 다니는 사람 없어 흔적이 지워질 듯했다. 가던 길을 가려는 운동들은 고집스럽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면서 고립되기도 했다. 사랑방도 함께 흔들렸다. 하지만 인권운동의 오랜 요구였던 국가인권기구의 설립이 정권의 장식물이 되게 두어서는 안됐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요구하며 인권활동가들은 노상단식농성을 벌였고 국가보안법을 끝장내기 위한 싸움을 조직했다. 제도가 말하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인권’을 말하려는 노력을 놓지 않았다.

4.

“5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인권 대통령’이 구제금융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인권 억압 대통령’으로 변신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 상황”에서 사랑방은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했다. 한국의 인권운동 현

황을 살피며, 비틀린 ‘인권’을 넘어서기 위해 인권운동의 나아갈 길을 모색했다. 진보적 인권운동을 만들기 위한 이론의 개발, 인권운동으로서의 사회권운동 창조, 국가안보 논리와와의 전면적 대결,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접근 등이 과제로 제시되었다. ‘인권’ 자체를 통해서 인권운동의 자리를 보여줘야 한다는 다짐이었다. 사랑방은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활동을 모색했고 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를 설립해 우리의 인권이론을 만들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제정된 ‘운동원칙선언’(1998)은 내적으로는 운동의 독립성을 지키고, 외적으로는 명망을 꺾이는 운동의 풍토에 경종을 울리려는 노력이었다.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았다. 김대중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사건은 IMF 구제금융 사태와 함께 찾아왔기 때문이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이 사람들의 삶을 해일처럼 덮쳤다. 일자리가 있는 것만으로도 안도해야 하는 현실에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확산되었고,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구조조정에 맞서 싸울 힘이 있던 현장을 향한 국가의 폭력은 거침없었다. 사랑방은 경찰 진압의 부당함과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알리면서 정권에 항의했다. 평화적 집회 문화라는 담론으로 저항을 통제하려는 정권의 의도에 맞서기 위해 노력했다.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실태를 밝히기 위한 조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만들어낼 변화들을 모두 짐작할 수는 없었지만, 인권운동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헤아리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 현장들에서 사람들의 힘이 흩어지고 있음을 미처 보지 못한 채 ‘인권’이라는 말로 그/녀들을 지키려는 노력이 관성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다만 사랑방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라는 변화 속에서 ‘인권’이 어떤 의제나 사안을 설명하는 말 이상이 되어야 함을 느끼고 있었다.

5.

진보적 인권운동이 주목하고 도전해야 할 것으로 제시한 사회권과 북인권은 의제를 개발하는 것 이상을 뜻했다. 체제에 쉽사리 포섭되지 않을 ‘인권’을



만들려는 노력이었다. 그리고 세계인권선언 28조가 말하는 ‘질서에 대한 권리’의 내용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경제위기 이후 사랑방이 발행한 『인간답게 살 권리』는 한국 사회에 ‘사회권’을 등장시켰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빈곤의 현실을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도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러나 이론적 탐색에 그쳐서는 안 됐다. 사랑방은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권 운동을 벌여가려고 했다. 신자유주의가 인권을 침해한다면 인권이 실현되는 질서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 질문했다. 그 질서를 만드는 싸움은 권리의 주체인 사람들로부터 출발해야 했다. ‘당사자와 함께 하는 사회권 운동’을 만들기 위한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고려대학교 청소용역 노동자들과 만나면서 노동조합 결성까지 함께 이루게 된 경험이 가능성을 엿보게 했다.

인권의 실현은 인권 자체의 규범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능한 사회구조를 만듦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었다. 인권침해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인권이 실현되는 질서의 방향을 밝히기 위해 공공성을 검토했다. 구체적인 권리 영역에서 도전해 보자며 주거권 운동을 시작했다. 그 후 다양한 권리영역으로 확장하며 사랑방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으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권리의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말하고, 권리 주체들이 함께 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을 했다.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 주거인권학교를 열었고, 의료급여 개악 시도에 맞서 쪽방 주민들을 만났고, 주민들 스스로 마을을 바꾸는 대안 개발을 모색하며 장수마을에 갔다.

북인권 역시 하나의 의제 이상이었다.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침해 국가로 지목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맥락을 무시한 ‘인권’은 강대국들의 세계질서 재편 의도를 치장하는 들러리일 뿐이었다. ‘북인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연구했다. 사회주의 인권론을 학습했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만들기 위한 인권운동의 역할을 토론했다. 국가안보 논리와 대결하기 위해 분단체제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지 질문했다. 그러나 북에

대한 정보는 심각한 수준으로 통제되고 있었고, ‘인권’을 말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북 민중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는 조건에서 북인권 운동을 이어 가기는 어려웠다.

6.

사랑방의 중요한 기둥이었던 인권운동연구소와 인권교육실이 독립하기도 했다. 전문화된 영역을 독립시키고 스스로 문어발식 의제를 다루는 큰 단체가 되지 않으려는 지향은, 단순히 단체의 규모나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었다. 운동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는 경향에 대한 경계였다. 2007년 인권자료실의 이전과 함께 인권연구소 ‘창’이 창립하고, 2008년 인권교육센터 ‘들’이 창립했다. 인권영화제의 독립(2013)을 위한 준비도 시작했다. 인권하루소식을 3000호로 종간하고 새로운 주간인권신문인 〈인권오름〉을 창간하면서, 사랑방은 창립 당시의 모습과 크게 달라졌다.

사랑방은 작아졌지만 운동의 자리가 더욱 넓어진 것이기도 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내는 운동들도 있었다. 2000년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은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운동들, 체제가 요구하는 삶을 거부하며 새로운 삶의 가치들을 조직하는 운동들도 번져 나왔다. 사랑방은 점차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운동들을 만나게 됐다. 인권활동가대회를 통해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만나 운동의 전망을 토론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와 같은 수평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졌고 그 외에도 다양한 네트워크들이 인권운동 안팎으로 만들어졌다. 여러 영역에서 전문화된 인권단체들은 각자의 운동을 통해 만난 세상을 교류했고 그 세상에 함께 덤비기 위한 힘을 나누었다.

연결이 연대체의 구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인권활동가들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를 위한 투쟁에서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가치를 제시하며 불복종행동을 조직했다. 이와 같은 실천 속에서 인권운동과 다른 운동



의 자리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었다. 이런 흐름들을 엮어 ‘소통, 연대, 변혁을 위한 사회운동포럼’을 함께 열기도 했다. 가치들의 횡단이 운동들의 연결로 바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사랑방은 다른 운동들을 보며 변혁을 꿈꾸는 자리를 다시금 헤아려볼 수 있었다.

7.

2007년 말의 ‘누더기 차별금지법 사태’는 운동들의 연결을 더욱 고민하게 했다. 차별금지법이 성적 지향 등 특정한 차별금지 사유를 삭제함으로써 추진되는 모습을 보며 더 이상 그것이 ‘소수자’의 문제로만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차별을 금지하려는 법이 차별당하는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만 이해될 때, 자신을 차별하는 위치에 놓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장이 손쉽게 먹혀들었다. 혐오가 그렇게 힘을 얻어갔다. 성소수자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었으나 차별금지법 제정 논란을 계기로 정치적 현상이 되었다. 혐오는 특정 세력에 의해 사회적 힘으로 조직되고 있었고, 그것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이나 타인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못하는 마음의 문제가 아니었다.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보수우익 정치세력들은 늘 혐오를 선동한다.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물적 조건을 봐야 했고, 그 위에서 사람들의 관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들여다봐야 했다. 사람들이 자신을 세상 속에서 어떻게 인식하게 되며 어떻게 살아가기를 도모하는지 이해해야 했다. 다양한 소수자운동과의 만남을 통해 조금씩 이루어졌던 가치의 횡단은 한 발 더 나아가야 했다. 사랑방은 ‘차별’을 소수자 운동의 의제로 여겨왔다. 여러 소수자 운동이 움틀 때 사랑방은 그 자리를 함께 다지기 위해 연대했지만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면 다시 우리의 자리로 돌아오곤 했다. 그것은 다른 운동들과도 비슷했다. 노동권이든 주거권이든 건강권이든,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만들 뒀은 다른 운동들에 있고 인권운동은 그 자리를 옹호하는 것으

로 제 몫을 한다고 여겼다.

자유권과 사회권이 마치 서로 다른 권리인 것처럼 여겨지게 한 이분법적 접근의 문제를 누누이 지적해왔지만 사랑방의 활동은 권리의 영역별로 이루어져왔다. 각각의 영역에서 인권침해를 낳는 구조에 대한 인식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어디에선가 부족했고, 그 안에서 펼칠 수 있는 운동의 전망은 어디에선가 공허해졌다. 권리의 영역들은 세상을 보는 하나의 길잡이들일 뿐인데, 그 안에 갇히다 보니 정작 인권의 주체라고 강조해온 ‘사람’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충분히 보지 못했다.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과 항의집회 등을 쉴 새 없이 했지만 인권운동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헤아리기 어려웠던 것도 그 때문인 듯했다.

8.

이명박 정권은 법치와 안전을 강조하며 새로운 공안체제를 구성하기 위해 국가기구들을 적극적으로 조직했다. 검찰, 경찰, 국정원 등 전통적인 공안 기구들을 심분 활용할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기구들을 공안의 수호자로 끌어들였다. 성범죄를 선정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사람들을 불안에 가두고 안전을 위해 감시체제와 국가 형벌권을 강화했다. 이 시도들이 이전 정권들에서 만들어온 변화의 방향을 거스르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다져진 토대 위에서 더욱 밀어붙였을 뿐이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눈치를 볼 줄 몰랐다는 정도.

그러나 어느새 ‘정치’는 모두 여당과 야당 사이의 대결에 갇혀 버렸다. ‘독재 타도’의 구호가 다시 등장한 거리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거기에서 사람들은 정권에 항의하는 개별 국민으로만 존재했다. 안전을 바라는 개인들의 기대는 전자발찌와 같은 정책으로 손쉽게 수렴되었다. 먹고사는 문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강요되는 경쟁을 견디는 것으로만 풀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혐오는 더욱 거세졌고, 어느새 사람들은 집단행동을 통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



려는 패기를 잊어갔다.

자유권이 다시 ‘정치’의 쟁점으로 불려나갔으나 흩어진 목소리들은 현실을 바꿀 힘이 되지 못하고 제도화된 정치에 갇혔다. 복지국가, 경제민주화 등의 주장은 사회권을 말했지만 살아 있는 목소리가 아닌 규범적 근거로만 떠돌았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겠다는 오만한 시도는 막았지만 지배 권력으로부터 스스로 독립적일 수 없음은 분명해졌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너도나도 인권조례를 만들 때 ‘인권’은 그들의 권력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분절된 인권의 요구들로는 제도화된 정치를 넘어설 힘들을 만나기 쉽지 않았다. 정권은 인권을 어떻게 탄압할지 고민하지 않는다. 통치체제를 조직하면서 누구의 어떤 저항을 막아야 할지 고민한다. 인권운동은 그것에 인권침해라는 딱지를 붙이며 싸울 수 있었다. 그러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점점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인권침해를 주장하는 것으로 통치체제가 흔들리지는 않는다. 목소리를 만들고 전하고 모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로부터 나올 수 있을 뿐이다. 희미해진 목소리들을 듣기 위해 ‘인권’은 다시 귀를 여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

9.

인권운동으로부터 배운 감수성을 더듬어 삼아 인권의 현장을 찾아 다녔다. 촛불 인권침해감시활동에 이어 세계인권선언 60주년에 즈음한 2008 인권선언 운동을 조직했다. 용산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강제퇴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공권력 감시 및 대응팀, 표현의 자유 연대 등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였다. 청소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에도 결합했다. 희망버스와 함께 달렸고 강정의 평화도 지원했다. 차별금지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여러 단체와 함께 부대꿨다. 그러면서 헛헛함을 숨길 수 없었다.

우리의 더듬이가 향하는 곳, 향해야 할 곳을 더욱 분명하게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기억을 되새겼다.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라진 것만은 아니었다. 2008년 촛불은 거리로 넘쳐흐르면서 대중의 흐름을 보여주었다. 기존의 운동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힘이 번져 나오면서 서로를 물들여갔다. 정치적 결속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거리의 가능성을 일깨워 주었다. 물론 거리는 이내 조용해졌지만 스스로 두려움 없이 거리로 나서는 사람들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현하는 힘이라는 걸 새삼 깨달을 수 있었다.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인권’은 살아있는 언어일 수 있다.

용산참사는 공간을 통해 이운을 창출하려는 시도가 국가의 무력과 사적 폭력을 통해 어떻게 관철되고 있는지 참혹하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망루를 지어 ‘여기, 사람이 있다.’는 외침을 전하려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짓눌리지 않고 공명하는 사람들의 흐름을 만들었다. 저항의 연대는 조금씩 변형을 거치며 넓어지고 깊어졌다. 한진중공업의 85호 크레인으로 향했던 희망버스는 그 흐름들이 우발적으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줬다. 개인에게 주어진 자리에 갇히지 않으며 서로를 넘나드는 힘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였다.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주민발의로 만들어졌고, 물려설 수 없는 원칙을 지키기 위한 교육청 농성이 조직되었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과 강정 주민들이, 밀양의 주민들이 함께 살자고 힘을 모아 외쳤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싸우는 것은 꿈이 아니다.

0.

그 꿈을 더욱 버리기 위해 다시 걸어가려고 한다. 스스로의, 그리고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집단적 저항에서 ‘인권’이 여전히 울림을 만드는 언어일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버리지 않는다. 그러나 울림만으로 세상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체제를 변혁하는 것이 무엇일지, 사랑방을 만들 때에도,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알지 못한다. 그것은 단 하루의 봉기도 아닐 것이고 그저



개혁의 시간이 누적된 결과도 아닐 것이다. 치밀하게 구성된 전략을 통해 추진하는 프로그램도 아닐 것이며, 사람들이 어디에선가 모여 흘러가기를 기다리며 대기 상태에 머무르는 것도 아닐 것이다.

‘지금, 여기’를 직시하며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시 묻는다. 충분히 잘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절망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희망을 버리는 실마리로 삼으려고 한다. 충분히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가능했던 관계로 우리를 당기거나 밀었던 힘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한다. 변혁을 먼 미래의 사건으로 유예하지 않고 오늘의 것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 스스로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질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새삼 환기하는 데서 시작될 것이다. ‘인권’은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힘을 통해서만 의미 있는 언어로 세상을 흔들었다는 점을 기억한다. 존엄을 호령했던 사람들, 그리고 끊어질 듯 이어지는 목소리로 인권의 신호를 보냈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운동들이 몸으로 보여준 미래를 기억한다.

스무 살로 자란 우리의 몸은, 오늘도 변혁을 꿈꾼다.

인권운동사랑방 20년 발자취

1992년

새로운 인권운동 구상 시작

서준식을 비롯한 몇몇의 활동가들이 새로운 인권운동을 모색하기 위해 모였다. 유신·5공 시대의 인권운동은 독자적인 사회운동 장르였다기보다 엄밀한 의미에서 '민권운동', '민주화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렸다. 반독재투쟁의 맥락에서 이뤄진 인권운동은 주먹구구식으로 열심히 싸워 성과를 낼 수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당시 인권운동은 구속된 사람들의 탄원서를 써주거나 민주화운동으로 구속된 양심수를 석방하는 운동으로 인식되었다. 이런 인권운동에 문제의식을 느낀 서준식은 인권운동의 쇄신을 촉구하는 「우리의 인권운동 어디로 가야하나」라는 문건을 작성하였다. 이 글은 인권단체활동가 간담회를 통해 구상을 공유했고, 내부 토론을 통해 다듬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엄과 민주법학6호(1993)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 글은 인권운동이 전문화되기 위해 활동가들이 공부하고 자료를 축적해서 운동이 자료에 의해 탄탄히 뒷받침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또한 이름만 나열하고 실제 활동의 뒷받침이 없는 유명공대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여러 인권단체의 수평적 연대를 촉진할 구상을 밝혔다.

1993년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인권운동사랑방」으로 단체 이름을 짓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단체이름

을 사랑방이라고 지은 것은 인권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턱 없이 찾아올 수 있는 곳이 되자는 바람 때문이었다.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인권 활동가들이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사랑방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참가와 인권운동의 국제화

1993년 유엔이 주최하여 6월 14일부터 25일까지 171개 정부대표, 11개 유엔인권기구, 10개 유엔전문기구, 24개 국가인권기구, 800개 민간단체(NGO) 등 7,000여 명이 모여 비엔나세계인권대회가 열렸다.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참석자들은 전원 합의로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한국에서도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20여 명이 참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인권운동 진영은 ‘국제화’를 실감하고 국제인권 무대에 눈을 떴다. 또한 국제연대를 모색하던 일부 활동가들이 인권운동사랑방 성원으로 입방하기도 했다. 인권운동은 비엔나세계인권대회를 계기로 국제인권규범을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며, 한국의 인권 이슈에 대해 도움 받는 것만이 국제연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국제연대 활동이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인권운동에 공유되기 시작했다. 국제연대 관련 인권운동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실감한 인권운동은 인권단체협의회 구성까지 시도하게 되었다.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총자료집 발간 및 진상규명 활동

1991년 4월 26일 명지대 학생 강경대가 전경의 구타로 죽은 이후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가 분출하였다. 노태우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극에 이르자 많은 열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항거했고 민중의 저항이 이어졌다. 5월 8일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철이 분신 후 투신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검찰은 김 씨에게 분신을 사주하고 유서를 대신 써주었다는 이유로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을 기소하였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민주화운동을 이끌던 사회운동 세력들을 도덕적으로 망가뜨리기 위해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였다. 서준식은 강기훈의 무고함을 밝히려 하였으나 오히려 검찰은 보안관찰법 등 위반혐의로 서준식을 구속하였다(1991년). 이후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총자료집」을 발간하였다(1993년). 강기훈은 3년간 수감되었고, 1994년 만기 출소 후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14년의 세월이 흘러 2005년 전민련 관계자와 당시 유서대필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함께 했던 이들, 인권단체들이 모여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대책위원회는 유서대필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 씨와 김 씨의 명예 회복을 선언하고 나섰다. 2007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기훈이 김기설의 유서를 대신 쓰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법원의 재심을 권고하였고, 2012년 10월 대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인권운동사랑방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을 조작한 당시 정치검찰 강신욱 대법관 임명 반대(2003년), 광상도 청와대민정수석 임명 반대(2013년)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내 최초 인권 전문 팩스 신문 <인권하루소식> 창간

당시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였던 노태훈이 공안기관원들에게 연행되었을 때 팩스를 이용해 빠르게 소식을 전달한 방식에 착안해 <인권하루소식> 준비1호를 발행하였다. 신속한 정보공유는 노태훈 사건을 크게 부풀려 한건 올리려는 공안기관의 의도를 막아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매체 발간과 관련해 제도 언론에서 홀대받는 인권소식을 전달하고, 인권소식을 ‘기록’으로 남기며, 인권의 언어로 사건을 해석할 필요가 있겠다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을 창간한다. 창간사에서 “우리는 참다운 자유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진실을 찾기 위해 본질을 파헤침에도 두려움이 없다. 뜨거운 연대와 애정은 우리의 용기를 북돋을 것이며, 날카로운 비판은 우리의 필봉을 더욱 날선 칼날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그 ‘시린 칼날’로 인권유린의 현장을 가차 없이 내리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권하루소식>은 당시 문민정부가 행한 ‘개혁’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밝히며 인권 침해 현장을 속속들이 보도하였다. 이후 <인권하루소식>은 팩스에서 PC통신으로(1995년), 인터넷(1996년)으로, 우편으로 부지런히 소식을 전달하였다. <인권하루소식>은 제도 언론에서 보지 못하는 인권소식을 전달함으로써 수 많은 특종을 만들어내 기성언론의 주요 취재원이 되었다. <인권하루소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인권운동의 역사를 보여주는 활동이었다. <인권하루소식>은 12년 6개월의 역사 동안 인권의제를 형성하고 관점을 제시하는 ‘인권 전문 일간지’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였다.

1994년

사회권규약에 따른 최초민간단체보고서 제출

한국 정부는 1991년 자유권규약과 사회권규약을 비준하고 3년 안에 최초보고서

를 작성해야 하였다. 이에 민변과 함께 「사회권규약 최초 반박보고서」를 작성하고 유엔에 실무진을 파견하는 활동을 하였다. 또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인권제도를 한국에 소개하고, 인권단체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국제인권봉사회와 공동으로 펼치기도 하였다.

인권정보자료실 구축

사건이 터지면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감정적 대응,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정리가 안 되어 적절히 쓸 수 없었던 경험 속에서 자료가 뒷받침되는 전문적인 인권운동을 구상하였던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를 위해 자료실의 물적 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각자 가지고 있던 자료를 모으고, 자료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서가를 만들기 위해 앵글로 간이 책장을 만들었다. <인권하루소식>을 취재하면서 모은 각종 성명서, 선언문, 보도자료 등 1차 자료들이 축적되었다. <인권하루소식>이 팩스, PC통신으로 서비스되기 시작하였고, 인권자료실의 명칭을 인권정보자료실로 변경하면서 인권자료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인권자료를 더욱 잘 분류하기 위해 2000년에 새로운 인권분류체계를 만들었다. 인권정보자료실을 2006년까지 운영하였고 인권연구소 ‘창’ 독립을 계기로 인권정보자료실의 주요 자료 대부분은 연구소로 이전되었다.

새로운 시민운동 창립에 잠시 결합과 분리

인권운동사랑방이 창립됐던 90년대 인권운동은 아직 독자적인 운동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 한편 87년 6월 항쟁을 거치면서 사회운동은 변화를 요구 받았다. 노골적이고 강압적이던 통치방식이 합법과 절차를 내세운 통치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사회운동을 바라보던 대중들의 시선에도 변화가 왔다. 사회운동은 대중들에게 설득력을 갖는 새로운 방식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됐다. 이 시기 인권운동사랑방은 연구자-법조인-활동가를 유기적으로 엮어서 인권운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시민들과 함께 인권교실을 운영하려 하였다. 이는 당시 민중운동과는 다른 움직임이었다. 이에 ‘참여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이후 참여연대로 명칭 변경) 창립에 참여하여 참여연대 내 인권센터로 결합하였다. 변화된 사회상황에 맞게 새로운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참여연대 결합으로 이어졌으나, 진보적 인권운동은 시민운동이라는 틀을 넘어서야 한다고 판단해 6개월 뒤 분리하였다.

동티모르 독립운동가, 5월 광장 어머니회 초청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참석이후 국제화에 눈을 뜬 인권운동은 동티모르 독립운동

가 마리 알카타리를 초청하였다. 그의 방한으로 1950년 인도네시아 침략으로 식민 상태에 있는 동티모르의 인권 실태와 독립의 필요성이 널리 알려졌다. 또한 아르헨티나의 의문사진상규명 단체인 '5월 광장 어머니회'를 초청하였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과거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의문사, 조작간첩 등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인권이슈가 제기되고 있었다.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아르헨티나 '5월 광장 어머니회'의 방한은 국제연대가 서로 아픔을 나누고 공통의 인권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라는 걸 일깨웠다. 또한 과거 인권침해행위가 처벌되지 않은 것을 가리키는 '불처벌'이 한국 사회에 처음 의제로 등장했다.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해 과거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국가의 사죄와 배상이 함께 이뤄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두 초청 행사를 계기로 한국 인권운동은 전 세계 고통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풀뿌리 연대를 시도하였다.

1995년

아동권리협약 민간단체보고서 작성, 인권교육 활동 시작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에 대해 배우는 것 자체가 권리임을 인식하고 초기부터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고민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 아동권리협약 1차 민간단체보고서를 준비·제출하면서 '어린이청소년권리연대'를 결성하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회의에도 참석하였다. 아동권리협약 1차 민간보고서 내용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보고서는 『아동의 권리 세계의 약속』으로 출간되었다. 당시 '아동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말이 중요한 화두가 되었다. 인권교육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특히 어렸을 때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아동권 사업과 인권교육 사업이 병행되었다. 참여형 인권교육 방법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인권교육활동가 양성 교육, 인권교육 워크숍 등 인권교육 활동을 시작하였다. 한편,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인권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였다. 1993년부터 전문가 세미나를 13회 진행하고, 1995년 인권활동가를 위한 공개강좌를 6개월 동안 두 차례 진행하였다.

운영위원장, 자문위원단 구성 및 소식지 <사람사랑> 발행

1995년 1월 참여연대에서 나와 갈월동으로 이사하면서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인권센터의 구상을 현실화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서준식 대표가 미국 워싱턴 주립대 객원연구원으로 가면서 인권운동사랑방을 책임질 수 있는 단위를 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운영위원단과 자문위원단을 구성하였다. 이때부터 후원인 소식지 〈사랑 사랑〉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인권단체협의회 구성 및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개최

비엔나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만들었던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해소되고 인권단체들의 연대 틀로 인권단체협의회(아래 ‘인권협’)가 만들어졌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초대 간사단체를 맡았다. 인권운동의 국제연대를 한 단체가 독식하거나 고유하게 할 수 없는 일임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함께 대응하자는 취지였다. 특히 비엔나세계인권대회 이후 구성된 국내외 네트워크를 통해 ‘국가보안법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을 열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인권침해가 한국만이 아니라 아시아 지역 공통의 문제이며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국제적으로 공론화되었다. 한편, 인권협은 1999년 발전적으로 해소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운동의 연대성 확대 및 강화가 요구되는 점, 국가인권기구의 민간 측 카운터 파트너의 역할을 할 강력한 연대기구 형성의 필요, 인권협 자체의 논의력과 집행력의 취약으로 인한 역동적인 인권현실 대처 능력 부족 등을 들어 인권협의 발전적 해소를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인권단체들은 몇 차례 워크숍을 통해 대표자회의를 갖고 인권협의 발전적 해소와 새로운 연대기구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였다.

1996년

홈페이지 구축 및 〈인권하루소식〉 인터넷 제공

인권단체로서는 최초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인권하루소식〉을 매일 업데이트 하였다.

인권협, 96년 연세대 범민족대회 인권침해 조사

김영삼 정부에서도 공인의 갑낱은 조직된 사회운동을 겨누고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1994년 주사파 파동, 1996년 연세대 범민족 대회 탄압을 통해 저항을 꺾으려 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특히 국가보안법과 경찰물리력을 앞세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한총련에 대응하였다. 한총련 학생들이 연세대에 갇혔을 당시 일어난 경찰의 여학생 성추행 사건 조사부터 시작해 인권운동사랑방은 경찰이 저지르는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8·15 범민족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한총련 학생들이 연세대에 모였다가 경찰에 의해 고립되는 사건이 있었다. 인권 단체들은 학생들이 겪었던 인권침해를 수집한 실태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수화하였고, 국회를 통해 경찰을 압박하였다. 이는 인권의 관점으로 국가폭력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제1회 인권영화제 개최

〈인권하루소식〉 창간 3주년, 700호 발간을 기념하기 위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인권의식을 널리 전파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시키기 위한 인권영화제를 기획하였다. 당시 공연윤리위원회는 사전심의로 모든 영상물을 검열하였다. 오래 전부터 사전심의를 거부해 온 독립영화인과 법조인 등이 참여하여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거부한 인권영화제에 그 어떤 영화관도 상영관을 대여해주지 않아 결국 1회 인권영화제는 이화여대에서 개최되었다. 영화제 기간 내내 공안당국은 이화여대를 압박하면서 영화제를 중단하도록 했다. 서대문구청은 이화여대 측에 공연을 중단시키라는 공문을 보냈고, 영화제 조직위원회에도 공연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연금지명령을 내렸다. 공안당국의 압박에도 1회 인권영화제를 맞이하는 관객의 반응은 뜨거웠다. 1회 인권영화제는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라는 슬로건으로 11월 2일부터 8일까지 32편의 영화를 상영하였고 총 1만 5천여 명이 관람하였다. 또한 서울에서 영화제가 끝나자마자 전국 6개 도시로 순회상영을 하였다.

1997년

제2회 인권영화제 조기 폐막과 서준식 대표 구속

‘인간을 위한 영상을 찾아서’라는 슬로건을 내건 2회 인권영화제는 준비부터 가시밭길이었다. 2회 인권영화제 역시 사전심의를 거부하여 상영관이 아닌 홍익대학교에서 개최하려 하였다. 그러나 홍익대의 시설물보호 요청을 핑계로 경찰이 홍익대를 봉쇄하였다. 영화제 기간에도 영화 기자재와 영화 테이프를 숨기는 숨바꼭질이 계속되었다. 관객들도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가까스로 홍익대로 들어왔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2회 인권영화제는 하루 일찍 폐막하였다. 〈인권하루소식〉 1천호를 하루 앞둔 1997년 11월 4일 서준식 대표가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공연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 혐의로 연행되었다.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념식은 표현의 자유 탄압과 서준식 구속 규탄으로 이어졌고, 인권운동사랑방은 전국적으로 '레드헌트' 상영회를 조직하면서 표현의 자유 운동과 서준식 대표 석방운동을 전개하였다. 공안당국은 2회 인권영화제에서 '레드헌트'라는 이적표현물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서준식 대표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으나 이후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감옥 인권에 대한 고민 시작, 전국 교도소 실태조사 진행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이 찾아와 보호감호소 내의 비인간적인 처우실태를 고발한 것을 계기로 기존의 양심수/정치범을 넘어 일반재소자들의 감옥 내 처우와 인권신장을 위한 운동에 착수하였다. 또한 전주교인권위와 함께 최초로 전국 교도소의 행형 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한국 감옥의 현실』로 발간하였다. 실태조사를 계기로 과밀수용, 가혹행위, 집필서신, 의료, 징벌 등 감옥 내 인권문제들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후 행형법 워크숍, 감옥인권 문제 상담 및 사례 분석, 구금시설 내 수용자의 의료권 보장을 위한 활동 등 '갇힌 자들의 벗'으로서 다양한 인권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사회구조, 계급, 빈곤의 관점에서 범죄 발생의 구조적인 문제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는 시도이기도 했다.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1995년 수많은 사람들의 투쟁의 결과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진압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당시 민주화 운동 참여자의 명예회복 내용을 담은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관련자들을 특별사면 하였고 법원에서도 관련자들에 대해 비교적 가벼운 형량을 선고하자 1996년 12월에 '5.18 완전해결과 정의실현·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위원회는 수감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반대운동을 비롯해 5·6공 수혜자 재산환수운동, 대선관련 공약에 과거청산 반영하기 등의 활동을 벌였다.

1998년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과 법률지원

'법대로 하자! 불심검문'이란 모토를 내걸고 경찰의 불법검문에 대한 불복종 운동

을 전개하였다. 한총련 탄압이 극에 달하면서 각종 집회에서 경찰이 불심검문을 통해 대학생들의 출입을 막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대학생들과 함께 한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은 큰 반향을 얻었다. 불심검문의 문제점을 선전하고 경찰의 불법검문에 대해 제보를 받았으며 제보를 받으면 집회현장 등을 찾아가서 경찰에게 항의하였다. 불법적인 불심검문 소송이 이어졌고 일반인들도 경찰의 불심검문에 대해 자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경찰의 불법적인 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소송이 잇따랐고 법원은 이에 대해 국가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았다.

양지마을 조사 등 시설문제 다루기 시작

1998년 7월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성재 국회의원, 김병후 연세정신클리닉 원장 등으로 구성된 진상조사단과 언론사 취재진 등 40여 명은 충남 연기군 전동면 소재 양지마을을 기습적으로 방문한다. 그곳에서 수용인들을 심층인터뷰하여 폐쇄시설에서 발생한 강제감금과 노역, 구타 및 강제투약 등의 인권유린 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소송도 진행하였다. 그러나 20여 명 수용자들은 사회로 나온 후 후속 지원이 되지 않아 다시금 노숙인이 되거나 사망하기도 하였다. 양지마을 인권유린 조사활동은 양지마을에만 그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이를 계기로 사회복지수용시설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시설의 인권문제를 사회가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인권영화제 안정적 개최

인권영화제는 3회(동국대)부터 5회(이화여대)까지 대학에서 개최되었다. 1999년 헌법재판소가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17조 심의와 25조 별칙 조항에 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를 반영하여 영화진흥법(현재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률에 따라 영화진흥위원회가 개별영화제의 심의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졌다. 그러나 개정법에서도 사실상 검열 장치는 존재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고 보고 영화제 등급분류신청을 전면 거부하고 영화제를 진행하였다. 이후 2001년 그동안의 인권영화제를 돌아보는 5.5회 인권영화제를 개최한 후 6회부터는 일반 상영관에서 영화제를 개최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고민을 놓을 수 없었다. 흥국생명의 노동자 탄압 문제가 발생하자 그동안 상영관으로 쓰던 아트큐브를 포기하였다. 10회 인권영화제는 당시 국가 폭력에 맞서던 평택 미군기지 싸움에 연대하는 의미로 폐막일에 상영관을 평택 대추리로 옮겼다. 인권영화제는 단순히 영화제를 여는 것을 넘어 인권 현장과 호흡하려 하였다. 인권 침해 현장을 찾아가 같이 영화를 보며 인권 문제를 이야기하는 ‘찾아가는

영화제 반딧불'과 같은 형식이 그것이다. 또한 영화제 기간 동안 영화 주제와 관련된 인권 활동가들을 초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진보적인 인권운동론 제시

민변 1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서준식 대표는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 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인권운동의 한 초상」이란 글을 통해 서구 중심의 자유주의적 인권과 결별/구별을 선언하며 진보적 인권운동론을 주장하였다. 이 글에서 서준식 대표는 서구 자유주의 인권보장체계가 형식은 보편을 띠고 있으나 내용은 부르주아 계급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자유주의적 인권을 넘어서서 현 체제에 대해 도전하는 인권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기존 인권운동 내에 섞여 있던 민원 해결성, 시혜성 권리 접근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것과 결별하고자 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진보적 인권운동을 구체화하기 위한 의제로서 사회권, 감옥인권, 북인권 운동 등을 제시하였다. 진보적 인권운동의 담론과 내용을 생산하기 위해 인권운동연구소 설립을 고민하게 된다.

전면적인 조직 재편과 자원활동가 모임 '인사동'

인권운동사랑방은 유명무실화된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실질적 재편, 사무국 및 자원활동가 조직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주요 내용은 운영위원회를 정책자문위원회로 재편하여 정책과 전문적인 기획능력을 증대시키기, 기존의 자문위원회를 후원회로 재편하여 재정 안정화와 인권운동의 대중화를 꾀하기, 자원활동가 모임 '인사동'을 발족하여 자원활동가들이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인권운동사랑방 사업에 함께 하기 등이다.

운동 원칙 선언 - 활동과 재정을 동시에 책임지는 활동가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끌어오는 일은 활동가들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혼란과 내부 분열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1997년부터 지난한 논의를 거쳐 인권운동사랑방 운동 원칙(일명 '독립군 원칙')을 선언하였다. 독립군 원칙의 핵심은 자생력을 갖는 활동가가 되자는 것, 과도기적 조치로 나이·직급에 관계없이 활동비를 지급하되 상근활동가가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의 참여 속에 이루어지는 운동, 자원활동가에 중심을 두는 운동으로 나가자는 것, 재정에 맞춰서 활동가를 뽑는 방식을 없애고 인권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독립군 정신에 대한 함의는 곧 활동가 전원이 사랑방의 운영주체라는 의미를 갖는다. 독립군 원칙은 올바른 지향이었으나 다양한 현실적인 어려움·차이 등이 고려되지

못한 점이 지적되어, 2006년 운동 원칙이 수정되었다. 운동의 독립성, 활동가의 기본자세 등의 원칙은 고수되어야 하나, 활동비를 최소화하고 활동가 개인이 독립적인 생계 수단을 마련할 것을 지향하는 재정 원칙의 비현실성이 주로 논의되어 활동비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1999년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운동 참여

1998년 전국유가족협의회를 중심으로 국회 앞 천막농성장을 설치하고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만들려던 노력은 1999년 5월까지 지속되었다. 유가족들은 기자회견, 항의성명서 발표, 기습농성, 단식농성에 이르기까지 숭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농성 420일째, 의문사 진상규명 투쟁을 시작한 지 12년 만인 1999년 12월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이 있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독립적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활동

국가인권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관심이 한국의 인권단체들 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은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때부터이다.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여했던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기구 설치를 국가에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98년 출범한 김대중 정부는 스스로 인권대통령을 내세웠고 국민의 정부, 인권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1999년 법무부가 국가인권위원회를 법무부 산하 특수법인으로 만들려고 하자 27개 단체로 구성된 ‘인권법 제정 및 국가인권기구 설치 민간단체 공동추진위원회’를 결성해 이에 맞섰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기구의 설계를 맡은 법무부의 구상에 반대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 4월 일주일간 명동성당에서 연합단식농성을 진행하였고 꺼져가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안을 다시 수면위로 올렸다. 이후 74개 단체로 확대 개편된 ‘올바른 국가인권기구 실현을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법무부와 계속 싸움을 이어나갔다. 그러던 중 2000년에 본격적인 두 번째 싸움이 이어졌고 그해 12월부터 2001년 1월까지 명동성당에서 국가인권

위법 올바른 제정 등 개혁입법 과제를 위한 12박13일 노숙노상단식 투쟁을 전개하였다. 각각 약진하던 개혁입법 과제를 모아 하나의 줄기로 만들고 함께 투쟁하였다. 단식농성은 당시 개혁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체념과 냉소를 버리고 희망을 찾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01년 4월 30일 독립성을 확보한 ‘국가인권위원회 회법’이 제정되었으나 조사권한은 한참 미약했다.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운동 전개

김대중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천명한 이후 전국적으로 국가보안법 개정 및 폐지 투쟁이 전개되었다. 천주교 신부들의 단식 삭발 농성을 시작으로 농성, 집회, 신문광고, 서명운동이 연일 이어졌다. 여기에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자유권규약에 대한 한국정부 2차 보고서를 심의한 뒤 국제인권규약에 부합하도록 국가보안법 7조의 즉각적인 폐지 등을 권고해 힘을 보탤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보안법 7조(찬양, 고무, 동조 및 이적)의 완전 삭제가 관건이라는 인식 하에 7조의 완전삭제를 최소한의 공통분모로 삼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개인이 참가하는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를 주도적으로 결성하였다.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제7조가 ‘내부의 적’에 대한 탄압장치이며 우리 국민의 의식을 심층에까지 내려가 억압하고 자기검열을 강요하는 통제장치”이자 “수구세력들이 끝까지 남기고 싶어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7조의 존폐를 둘러싼 싸움이야말로 진정 우리 사회가 민주사회로 가느냐 마느냐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국보연대 제안이유 중)고 보았다. 그러나 이를 둘러싸고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라는 과제에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 섞인 비판도 받았다. 국가보안법반대국민연대는 “국가보안법 7조 삭제”를 연대에 소속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삼았고, 이에 속한 115개 시민사회단체는 홍보사업, 설문조사, 집중캠페인 등을 진행하였다.

인권교육운동 본격 시작

아시아 지역 인권교육가들과의 교류, 국내에서 인권교육을 진행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최초의 본격 인권교육 교재라고 할 수 있는 『인권교육길잡이』를 발간하였다. 이어서 어린이·청소년·대학생 인권캠프를 개최하였고, 2000년 활동가·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가 양성 워크숍, 2001년 청년 인권캠프 등을 잇달아 개최하여 인권교육의 원칙과 지향, 참여형 방법론과 프로그램을 보급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이후 학교를 중심으로 한 인권교육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면서, 2004년부터는 빈곤 아동, 소년원 수용 청소년, 장애인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들을 찾아가 인권침해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인권교육 활동을 적극

적으로 별이는 등 인권교육의 현장성과 진보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2005년 어린이를 위한 인권 교재 『똑딱똑딱 인권짓기』, 2008년 『인권교육, 날다: 인권교육길잡이2』 등 인권교재를 지속적으로 발간해나갔다. 2003년에는 전국인권활동가대회의 후속모임으로 ‘인권교육네트워크’가 제안되었다. 이를 통하여 인권운동 내부의 인권교육 경험을 확산시키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교육사업 모니터 등을 통해 제도화된 영역의 인권교육을 견인해내면서 인권교육을 인권운동의 주변에서 중심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인권교육네트워크의 결성과 이후 이어진 공동 실천을 통해 축적된 역량과 고민은 별도의 인권교육 단체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2008년 ‘인권교육센터 들’의 창립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권을 알리는 『인간답게 살 권리』 출간

IMF 구제금융 이후 본격적인 신자유주의적 시장질서가 자리 잡으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초래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사회권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이 초래한 사회권 침해 현상을 종합하는 『인간답게 살 권리-IMF 이후 사회권 실태 보고서』를 출간했다. 그동안 빈곤이나 실업, 무주택 등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생존권의 위기는 경제가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일반적 시선이었다. 하지만 『인간답게 살 권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인간다운 삶의 조건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내맡길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인 권리로서 사회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모두 16장으로 구성돼 있는 이 책은 외환위기 이후 변화한 한국의 인권상황을 사회권의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시도이다. 또한 사회권 이론화 작업의 일환으로 『사회권규약 해설서 1-사회권의 역사와 성격』도 발간하였다. 이 책은 1966년에 채택된 유엔 사회권규약을 중심으로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을 살피고, 규약의 내용이 국내적·국제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두 책은 당시까지 한국사회에 생소했던 사회권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국민 감시·예비 범죄인화에 반대하는 지문날인 불복종

1999년부터 전국적으로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바꾸는 정책이 시행되었다. 이를 계기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인권단체들은 주민등록제가 인권침해임을 밝히는 캠페인을 벌였다. 주민등록제는 중복되고 과도한 정보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며, 이의 전산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나아가 주민등록증 확인 절차가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는 등 차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비판하였다. 주민등록제를 바꾸기 위해 여러 사회단체들이 ‘지문날인

거부운동본부'를 결성하고 주민등록증 갱신 작업에 필요한 지문날인 거부 선언 운동을 하였다. '지문날인 제도와 지문 전산화 폐지'를 요청하는 헌법 소원도 제기하였다.

집시법 개악에 맞선 활동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성과로 1989년 3월 29일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은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그동안의 오명을 일정 정도 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는 오히려 집회의 금지·제한 사유를 종전보다 강화하고, 질서유지선을 설정하는 등 집시법 개악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맞서 인권단체들은 집회금지지역에 대한 항의, 집시법 독소조항에 대한 불복종운동(집회금지구역 1인 시위, 집회방해금지위장집회구탄 등) 등을 통해 집시법의 문제들을 널리 알렸다.

2000년

비정규직 노동권확보를 위한 연대활동

점차 비정규직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인권운동사랑방도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버린 비정규직 문제를 인권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위해 「노동자 간접고용 실태보고서」 조사 작업에 참여하였다. 또한 일용직·파견직 노동자 등 비정규직 증가에 따라 '파견노동자들의 노동권 확보와 간접고용철폐를 위한 공대위'에 참가하였다.

롯데호텔과 사회보험 노조에 투입된 경찰폭력 조사

경찰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적정인력 확보를 요구하는 롯데호텔 노조원들의 파업농성과 사회보험노조의 농성을 무차별하게 진압하였다. 대테러부대인 솔개부대까지 동원해 장애인, 여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당시 정부는 롯데호텔과 사회보험노조의 파업을 '불법과 폭력으로 의사를 관철시키려는 집단이기주의'로 몰아갔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파업 현장에 경찰이 투입되면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 대응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롯데호텔파업 폭력진압사건과 관련해 이무영 경찰청장을 비롯한 당시 진압책임자들, 폭행에 직접 가담한 전·의경들을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하였다.

아셈(ASEM) 반대 투쟁 등 신자유주의 반대투쟁

2000년 서울에서 아셈(ASEM) 회의가 개최되었다. 사회단체들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면서 구조조정 반대, 외채탕감, 투기자본에 대한 과세, WTO 등 국제기구의 폐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요구하며 아셈 반대 투쟁을 벌였다. 그러자 정부는 행사장 주변에 장갑차를 배치하고, 경찰 병력을 늘리는 등 시위에 강경대응하려 하였다. 이에 맞서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인권운동사랑방 등 ‘자본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인권포럼’ 소속 10개 인권단체들은 현장에서 발생할 인권침해 행위를 적극적으로 감시·제지하는 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하여 활동하였다.

간힌 자들의 벗과, 부설 인권운동연구소 개소

감옥인권운동의 주체는 감옥 내 재소자 및 출소자여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출소자들을 중심으로 ‘간힌 자들의 벗’(가칭) 모임을 결성하였다.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운동조직을 만들기 위해 서울 삼선동에 작은 사무실을 얻고 감옥운동단체 인큐베이팅을 실험적으로 시도하였다. 한편, 1998년 진보적 인권운동을 천명한 이후 진보적 인권운동의 이론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으로 부설 인권운동연구소를 만들었다. 인권운동연구소는 2006년 ‘인권연구소 창’으로 독립하였다.

청년후원회원모임 ‘꿈꾸는 사람들’ 발족

인권운동사랑방 후원회원 청년모임인 ‘꿈꾸는 사람들’이 만들어졌다. ‘꿈꾸는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하면서 생활 속의 인권 사안을 발견해내고 인권의식을 가지고 삶 자체를 바꾸는 활동도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꿈꾸는 사람들’은 소모임 운영을 통해 일상에서 느끼는 인권이슈를 서로 나누기도 하였고 인권영화정기상영회 ‘반딧불’을 진행하였다.

2001년

학생인권운동 시작

1990년대 후반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을 찾기 위한 중고등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학생 탄압 사건에 대응하는 활동을 조금씩 확대해 왔다. 그러던 가운데 중고등학교 교칙에서 드러난 제도화된 인권침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2000년 12월부터 ‘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과 함께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에 돌입하였다. 용의복장규정, 선도규정, 학생회

칙, 학생회 선거규정 등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인권문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교칙을 모아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홍보 전단지 배포와 거리 캠페인,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소속 회원들의 정보망, 전국 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총 244개교의 교칙이 수집되었고, 그 분석 결과를 2001년 10월 발표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은 이 분석보고서를 통해 교칙이 금지와 처벌 중심에서 인권을 정의하고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학생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고 있는 규정들은 삭제하거나 수정하라고 요구하였다. 이 보고서 발표는 한국사회의 학생인권에 대한 관심을 크게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학생인권운동이 성장하는 데 든든한 버팀목 구실을 한 하나의 사건이었다.

울산인권영화제 사태 조사 발표

‘밥·꽃·양’은 1998년 현대자동차 식당여성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반대 투쟁 과정을 다룬 다큐멘터리이다. 그런데 2001년 울산인권영화제에 이 작품이 출품되고 울산인권영화제 측에서 이 작품을 미리 집행위원회에서 볼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영화제작사 측에 했다. 이에 제작사는 이를 사전검열이라 여기고 항의하였고, 이런 논란 과정에서 울산인권영화제 측은 영화 상영 결정은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제작사는 외압 의혹을 제기하면서 상영 거부를 결정하였고, 현대자동차노조 식당운영위원회에서도 이를 비판하였다. 논란의 와중에 울산인권운동연대는 활동 중단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울산인권영화제는 울산인권운동연대가 주최하는 행사인데 이것이 인권운동사랑방 주최 행사로 잘못 알려지면서 인권운동사랑방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절차를 거쳐 이번 사건은 ‘사전 검열’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게시판을 폐쇄하는 등 잘못된 절차가 있었음을 분명히 하고 울산인권운동연대가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에바다 농아원 정상화를 위한 공동 대응

1996년 11월 27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에바다 농아원에서 “더 이상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쓰레기통을 뒤질 수는 없다” 며 일군의 농아원생들이 농성에 돌입하였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인 에바다는 시설의 사유화, 족벌 지배체제, 지방 토호세력 및 관과의 결탁, 각종 공금과 후원금의 착복, 인권 유린, 항상적 인권침해 문제 등 온갖 시설 비리가 집약적으로 일어난 곳이다. 비리 재단을 몰아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등이 4년여 간 긴 싸움을 벌였다. 그 결과 2001년 3월에 옛 비리 재단과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측이 각각 2명 씩 이사를 선임하기로 합의했지만 옛 비

리 재단이 합의를 반복하였다. 당시 시설 문제에 책임이 있던 평택시, 평택 경찰서, 경기도 교육청 등이 사태를 수수방관하거나 방조하여 사태해결은 지연되었다. 결국 7년여를 끌던 에바다 문제는 2003년 5월 새롭게 구성된 이사회가 농아원을 불법 점거하던 옛 비리 재단 인사들을 몰아냄으로써 정상화되었다.

국가정보원 권한 확대를 노린 테러방지법 저지 운동

‘9.11 테러’ 이후 국정원은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는 것을 골자로 하는 ‘테러방지법’을 입법 예고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국정원의 조치를 널리 알리고 사회단체들과 함께 테러방지법 저지 활동을 진행하였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철회를 요구하며 제인권·사회단체들은 공동투쟁을 결의하였다. 의견서 발송, 기자회견, 국정원 앞 항의시위, 거리농성, 국회 앞 1인 시위,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대한 청원,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 진정서 제출 등이 이어졌다. 그 결과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막아냈다.

사회권규약 2차, 3차 반박보고서

인권운동사랑방은 IMF의 구조조정 정책이 한국의 사회권 실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유엔 사회권 규약 2차 심의에 대응하였다. 2000년 6월부터 17개의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사회권규약 제2차반박보고서연대회의는 IMF 이후 비정규직의 확대로 인한 빈곤과 불안정노동에 대해 다루었으며,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 이주민과 여성의 사회적 권리 등도 포괄적으로 다룬 반박보고서를 유엔 사회권위원회에 제출하였다. 2001년 5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사회권위원회 25차 회기에도 참여하였다. 이후 2007년에는 한국정부 3차 보고서 제출에 대응하기 위해 연대체를 구성하고 반박보고서를 작성했다. 특히 사회권심의회가 열린 2009년 용산참사와 쌍용차 점거파업 노동자에 대한 국가폭력, 인권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조직축소와 무자격자 현병철 위원장 임명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처벌과 공소시효배제 입법 운동

수지 김 피살 및 간첩 조작 사건이 안기부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이 밝혀졌다. 이에 천주교인권위, 참여연대 등 7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하여 형사고발하였다. 또한 인권단체들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이에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운동 사회단체 협의체’를 구성하고, 고 김옥분(수지

김) 씨 유족, 고 박영두 씨 유족 등과 함께 반인도적 국가 범죄 처벌과 공소시효배제 입법 운동을 벌였다.

대표-사무국장 제도 폐지

서준식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한 후 인권운동사랑방은 조직체계를 모색하는 토론을 진행하여 '활동가 전원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자고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운동단체들의 일반적인 조직형태였던 대표-사무국장 체제를 폐지하고 집행조정담당을 신설하였다. 집행조정담당은 사랑방 정책의 내외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적인 사업 조정, 팀별회의 점검, 대외사업의 전달과 배분, 회의 소집 및 진행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집행조정담당은 2년 임기 선출직으로 두었다. 또한 분기마다 열리는 활동가 총회를 두게 된다.

성차별 금지 및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 제정

2001년 인권운동사랑방이 반성폭력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활동가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를 계기로 '피해의 구제,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현, 양성평등한 문화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내규제정 준비를 하였다. 그 결과 2002년 2월 8일 총회에서 '성차별금지 및 성폭력사건 해결을 위한 내규(아래 내규)'를 채택하였다. 이후 2006년 내규 전문 중 성의 개념에 '섹슈얼리티(sexuality)'를 포함하고, 구체적인 내규 적용 과정에서의 문제를 보완하는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두 차례 내규가 부분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내규에 따라 상임·돌봄 활동가 중 3인이 매년 반성폭력위원회를 구성하여 반성폭력 교육과 성폭력 사건 관련 업무를 맡게 되었다.

2002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을 위한 활동

2001년부터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은 봉사 단체 등에서 일정기간 복무하게 하는 대체복무제가 제안되었다. 2001년 말 오탈양 씨가 공개적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하였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여러 단체들이 모여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를 구성하였다. 국

방부에서도 한 때 대체복무제를 검토하기로 하였으나 결국 이를 철회하였고, 아직도 병역거부자들은 1년 6개월의 실형을 살고 있다.

국가인권위 관료화를 막기 위한 투쟁

국가인권위원회는 설립준비과정부터 폐쇄적인 운영을 하여 많은 회의가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되었으며 인권위원 대다수가 법조인으로 구성됨에 따라 법률가주의 경향을 띠고 있었다. 2002년 5월 21일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법 제정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진정 처리에 있어서의 소극적 자세와 운영의 폐쇄성, 관료화를 비판하며 ‘국가인권위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공개질의’를 보냈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있다”는 관료적 답변만 돌아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고심 끝에 6월 1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일체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2005년 조영황 위원장, 박노현 사무총장의 취임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도 변화의 움직임이 보였다. 회의의 전면적인 공개와 투명한 운영을 시작했고 정책, 조사, 교육, 협력사업 등에서 인권단체와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2005년 4월 11일 협력거부선언 철회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2006년 인권활동가대회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응에 관한 전략을 논의하며 전원위원회 등에 대한 기본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제안하였다.

〈인권하루소식〉 ‘붉은 악마’ 논평

2002년에는 월드컵 열기가 전국을 휩쓸었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은 당시 월드컵 열기가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애국주의 기승을 부리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다. 이에 〈인권하루소식〉 6월 22일 자에 ‘붉은악마를 부추기지 말라’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논평에서 “정의에 대한 열망이 아닌 승리에 대한 열광이 있을 뿐이며, 체제에 대한 순응과 정치적 무관심과 인간의 주체성을 죽이는 군중심리가 있을 뿐이다. ‘붉은 악마’ 현상은 파시즘을 가능케 하는 병적인 현상” 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러자 항의성 공격으로 홈페이지가 다운되었고, 운동 사회 내에서도 논쟁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붉은 악마 현상에 대해 긍정성과 부정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논쟁의 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남겼다.

제1회 전국인권활동가대회

전체 인권운동 진영의 소통과 연대를 위한 공간을 만들자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이에 2002년 11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전국의 인권활동가들이 모

이는 제1회 인권활동가대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 인권 운동 10년의 평가와 과제’가 전체 토론 주제로 잡혔고, ‘인권 운동의 연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2003년 ‘인권운동 오늘과 내일을 묻는다’를 주제로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 문제를 다루는 등 매년 전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모여 공동의 문제의식을 가진 주제나 다양한 소주제들을 가지고 고민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04년의 경우에는 준비 모임 차원에서 반차별 연속 포럼을 개최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였다. 인권활동가대회는 인권 단체들이 대부분 소수 활동가로 운영되고, 지리적 이유로 평소 만나기 어려운 조건에서 인권단체 간 연대 강화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하월곡동 사회권 실태조사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간답게 살 권리』, 『사회권규약해설서』 작업을 통해 이론화 작업을 마무리한 후 현장에서 사회권운동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억압받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의 삶으로 들어가 그들의 입장에서 사회권 운동의 과제를 바라보자는 취지로 서울에 몇 남지 않은 달동네인 성북구 하월곡 산2번지와 산7번지 주민들을 만나면서 사는 이야기를 들었다. 두 달에 걸쳐 인터뷰를 했고 결과물은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기사화되었다. 재개발사업을 앞두고 있던 하월곡동 주민들은 철거 이후의 삶의 불안정성과 빈곤을 이야기하였다. 재개발 이전에는 동네 공동체가 있어서 취업정보도 얻고 일감도 얻고 공부방에 아이들도 보냈는데 재개발, 철거를 통해 주민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시내의 지하셋방으로 들어가며, 이제 낮은 수준의 공동체마저 깨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빈곤은 사회권 중 한 권리의 박탈이 아니라 연쇄적인 권리 박탈 구조라는 점을 제기하였다.

노동자, 농민 집회에서 경찰감시 활동

발전노조파업 인권탄압 실태 인권단체 공동조사를 진행하였다. 2003년부터 ‘경찰폭력조사팀’을 구성하여 노동자 대회, 불안 경찰폭력 조사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2004년 인권단체연석회의를 결성하고 인권운동의 과제 중 하나로 ‘민중들의 저항을 옹호하자: 국가폭력이 가해지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폭로와 감시를 하자’를 정했다. ‘인권단체 경찰대응팀’을 구성해 팽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투쟁에서 경찰과 용역을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했고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 사망 사건의 진상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2006년 평화로운 집회문화 정책을 위한 민관합동위원회가 결성되자 이에 반대하며 연대의 폭을 확장해서 ‘집회시위의 자유 확보 연석회의’를 민중운동진영과 함께 만들었다.

2003년

출소자모임 지원 등 사회보호법 폐지운동

재범의 가능성을 이유로 만기복역 출소자들에게 7년간의 보호감호를 가능케 했던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며 11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사회보호법폐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였다. 당시 청소보호소 피감호자 6백여 명은 사회보호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집단단식에 돌입했으며,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공대위는 6백여 명의 피감호자 헌법소원, 청송감호소 실태조사, 감호 출소자 증언대회 등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였다.

NEIS 반대 투쟁

교육부는 2003년 3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 시행하려 하였다. NEIS는 당시까지 학교별로 관리해온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교육부로 집중시키는 교육정보화 정책이었다. 그러나 아무런 법적 근거나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축적 및 집중하는 행위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시스템이었다. 이에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23개 인권·사회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교육정보시스템의 도입 중단과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하였다. 전교조는 조직적인 거부운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원폭2세 공동대책위 결성

일본에 원자폭탄이 터진지 반세기가 지나도록 원폭 피해자의 인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8월 5일 9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원폭2세들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원폭2세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원폭2세환우였던 고 김형률은 당시 폐 기능의 70%가 손상되고, 몸무게가 37kg이 안 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열정을 아끼지 않고 싸움에 나섰다. 공대위는 원폭 환우들이 오랜 기간 가난과 질병 속에 사회에서 격리되는 생활을 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모두 이를 묵인하였음을 비판하였다. 이에 정부의 시급한 의료·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2004년

북인권 대응 활동 본격 시작

인권운동사랑방은 1998년 인권운동의 진보성을 강화하고자 '진보적 인권운동'을 제기하면서 그 과제 중 하나로 '북인권 대응 활동'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서구 자유주의 사회에서 주로 발전되어온 인권의 역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진보적 인권운동'의 성찰적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북인권에 대한 연구와 대응 활동을 통해 북 사회에서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대응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유주의(자본주의) 인권과 사회주의 인권의 내용과 한계를 더욱 풍부히 고민하며 그 둘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하는 적극적인 시도를 했다. 그러기 위해서 자유주의 인권에 대한 연구와 고민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인권(북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대응 활동도 필요했다. 그래서 먼저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북인권에 대한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북한자유법안과 북한인권법안 제정이 추진되고 유엔 인권위원회(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북인권결의안이 논의·채택되면서 한국 사회의 인권 시민단체들이 공동 대응 활동을 모색했다.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북한인권법안에 대한 보고서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유엔 대북인권결의안에 대한 의견서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북한인권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동향과 우리의 대응' 워크숍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2005년에는 내용적으로 보다 심도 있는 고민을 위해 '북인권 문제의 대안적 접근' 워크숍을 사랑방의 주도 하에 다른 인권단체들과 공동 개최하여 보수적 '북한인권 운동'과는 다른 맥락에서 북인권 대응 활동을 만들어가고자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집중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폐기 혹은 개정해야 할 4대 악법 중 하나로 국가보안법을 지정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1월 까지 국회 앞 농성과 집중집회, 선전전을 이어가면서 집중적으로 활동했다. 당시 여론 또한 국가보안법이 개정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이런 여론의 눈치를 보듯 한나라당조차 개정을 주장했다. 그러나 수구세력의 공세와 다른 개혁 입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야합으로 국가보안법은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결국 폐지는커녕 개정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라크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법정 개최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노무현 정부가 한국군을 파병했다. 파병연장동의안의 국회 통과를 막고 전쟁을 중단시키고자 인권사회단체들이 모여 12월 '부시, 블레어, 노무현 등의 이라크 전쟁범죄와 파병에 대한 민중법정'(이하 전범민중재판)을 열었다.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정현 신부, 오우희 활동가 등 평화유랑단이 전국을 유랑하면서 반전평화 메시지를 전달하고, 1만 명의 기소인을 모집했다. 최종 선고공판에서 이덕우 수석판사 등 4인의 민중재판관들은 “이라크 전쟁은 침략전쟁으로 이를 주도한 조지 부시 미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 노무현 대통령은 전범”이라고 판결 내렸다.

인권운동의 연대 강화를 위한 인권단체연석회의 출범

2003년 10월 노동기본권 탄압 중단과 이라크 파병안 철회를 요구하는 비상시국성명 발표와 함께 이어져온 인권단체들의 공동행동을 해소하면서 2004년 새 연대체 구성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1차 간담회에서는 △인권운동진영의 연대 강화 △민중들의 저항 옹호 △인권운동의 전략적 방침 확정 △인권의제의 확장이 인권운동진영의 과제로 제시되었고, 2차 간담회에서는 새 연대체 구성에 합의할 수 있는 원칙으로 △다양성과 민주적 과정, △낮은 수위에서 점차 높은 수위로, 닫힌 구조보다는 열린 구조로, △신뢰와 협동 속에 소수자, 특수 영역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는 어느 단위나 개인도 전체회의의 동의 없이 연대체를 대표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제안되었다. 2004년 5월 27일 인권단체연석회의의 1차 정기회의가 열린다. 1차 정기회의에서 KT 상품 판매팀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대응활동이 제안되었다. KT가 일부 직원에 대해 '명예퇴직 거부', '114 분사거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상품판매 전담부서로 일괄 인사조치를 하며 지속적인 차별과 감시를 자행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사측에 항의서한 발송, 인권침해실태조사 및 피해자 증언대회, 집담회를 진행했고 2005년 국가인권위가 진정 기각, 각하하는 결정을 내려 이에 항의하는 행동을 이어갔다.

고려대학교 청소 노동자와 연대, 노동조합 결성과정 지원

고려대가 6월 학내 청소경비업체 재입찰 선정 과정에서 시간제, 교대제 노동을 추진하면서 노동 강도를 강화하려는 것에 항의하는 노동자들과 연대해 고려대 학생들과 여러 인권사회단체들이 '고려대 청소용역 노동자 노동권 쟁취 공대위(준)'를 구성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당시자와 함께 하는 사회권 운동을 고민하면서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과 만나 공대위 준비부터 함께 했다. 이 투쟁을 계기로 7월 130여 명의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자'임을 당당히 선언하며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이후 고려대 청소 노동자들은 업체 선정과정에서 전원 고용승계를 쟁취한다.

『Making Standards Work』번역

일반재소자들이 감옥의 일상적인 생활에서 직면하는 반인권적인 행태들을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감옥법령 및 훈령, 예규와 감옥과 관련된 판결을 모은 판결자료집 등을 엮어 발간했다. 또한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국제 감옥인권단체인 Penal Reform International의 『Making Standards Work』번역에 착수, 감옥 시설은 물론 수형자의 처우기준의 향상을 도모했다.

대안적 신분등록·증명제도에 관한 연구와 입법운동

여성운동계를 중심으로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호주제와 관련된 민법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05년 3월 2일 호주제 폐지를 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호주제 폐지 이후 호주제를 뒷받침하고 있던 혈연·이성에 중심적인 '가족개념'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속에, 대법원과 법무부가 제시하고 있는 호적을 대신할 '국가신분등록제도'에 그대로 녹아들어 있었다. 이에 맞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정보인권·여성·소수자 운동단체들과 함께 '목적별 신분 등록법 제정공동행동'을 결성하여 새로운 국가신분등록제도로서 '목적별 편제방식'을 제안했다. 이 운동은 한국사회에서 가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개인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문제, 특정 가족형태를 '정상 가족'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사회적으로 제기했다. 이에 발맞추어, 입학·취업 시 불필요한 가족 정보를 요구하는 관행에 반대하는 운동, 가족관계를 증명해온 호적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증언하는 등 정상가족 중심성을 깨려했다. 2007년 4월 2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가신분등록제는 한걸음 진전을 하기도 했으나 혈연·부계·친족 중심의 '가족주의'를 떠받치고 있는 국가신분등록제의 문제점은 현재 진행형이다.

2005년

사람을 죽인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진상조사

11월 쌀 개방 반대 시위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전용철·홍덕표 농민 열사의 죽음에 대해 정부가 거짓 발표를 하고 여론 조작을 했다. 이에 여러 인권단체들이 공동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활동했다. 열사들의 죽음에 대해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인권활동가들이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 자리 잡은 경찰청 인권보호센터를 점거했다. 결국 허준영 경찰청장은 해임되고 노무현 대통령은 사과를 발표했다.

사회권의 실현 경로 모색하며 주거권에 주목

사회권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가려는 과정에서 인권을 실현하는 질서의 방향으로 공공성을 검토하고 보다 구체적인 권리영역에서 주거권을 주목하며 주거공공성의 문제를 제기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각종 대책을 정부가 발표해도 가난한 사람의 주거비 부담은 급증하고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철거민, 쪽방거주자, 노숙인 등 전통적인 주거권 침해 당사자뿐 아니라 시설생활자, 가출청소년, 성폭력·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 혹은 여성 등 주거권 담론에서 보이지 않는 당사자들을 만나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인권하루소식> 기획기사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를 연재했다.

2006년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미군의 군사재편전략에 따라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한다 판단하고 미군기지 저지투쟁에 참여했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투쟁 범국민대책위’에 참가하며 미군기지 건설을 막기 위한 현장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였을 뿐 아니라 여론 형성을 위해 광화문 촛불집회, 온라인 활동 등을 했다. 2006년 5월 정부는 평택 대추리 군사점령 작전인 ‘여명의 황새울’을 전개해 주민과 활동가들을 대추리에서 쫓아내고 9월 대추리와 도두리 마을을 강제철거하며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강행했다. 이를 인권운동으로 엄호하기 위해 국가폭력 감시, 주거권 침해조사를 하였을 뿐 아니라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인권의 목록도 만들었다. 2007년에는 강제이주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협상안을 인권적으로 지원하고 강제이주에 대한 인권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평택 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인권하루소식〉 종간과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 창간

인터넷 매체의 성장으로 다양한 진보언론이 활성화되면서 인권매체의 소임으로 속보적 성격보다는 분석과 대안 제시를 지향하게 되었다. 2006년 2월 3000호를 끝으로 〈인권하루소식〉을 종간하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주간매체 〈인권오름〉을 4월 창간했다. 〈인권오름〉은 주간인권신문으로 4개 섹션을 기본으로 [숫을터], [놀이터], [세움터], [나들터]가 차례로 발행된다. 인권이 파고들어야 할 삶 곳곳에 인권의 렌즈를 들이대고 억압과 차별을 드러내며 가진 자들의 인권이 인권으로 둔갑되는 현실에 맞서, 보편적 인권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진보적 인권의 관점을 소통하고자 했다. 〈인권오름〉은 인권, 생태, 평화, 여성주의 등 다양한 가치들이 소통되고,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길러지는 공간을 만들며 현재 363호까지 발행했다. 〈인권오름〉은 인권운동사랑방이 편집을 맡고 다양한 인권활동가들과 인권단체들이 고정꼭지를 생산하여 인권운동의 공동매체를 지향한다.

반빈곤프로젝트팀 구성과 신자유주의 반대 활동

신자유주의 세계화반대운동이 분출되던 시기, 2003년 경제자유구역법 폐기 범국민대책위에 함께 하며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경제자유구역의 반인권성을 폭로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등은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위원회'에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와 한국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인권단체들은 생리휴가 무급화, 파견업의 확대,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 의무 면제 등이 인권침해임을 들어 한국정부에 신속한 권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2006년 한미FTA 체결을 앞두고 사랑방은 중점사업으로 빈곤대응을 설정, 반빈곤프로젝트팀을 구성했다. 빈곤사회연대 등과 함께 반빈곤운동에 대한 고민을 나누며 한미 FTA 반대 투쟁에서 공공서비스가 FTA에 의해 훼손되는 과정을 풍자하는 3분극, 게릴라 선전전을 진행했다. 인권교육을 준비해 빈곤철폐 현장 활동에 함께 하였으며, 세계빈곤의 날에 참여했다. 〈인권오름〉에 다양한 대안적 실천들을 통해 빈곤 해결의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가라가라 빈곤'을 연재했다.

주거인권학교, 당사자와 함께 하는 인권운동의 가능성

당사자와 함께 하는 사회권 운동에 대한 고민을 진전시키려 노력하며 인권교육을

하나의 과정으로 삼기로 했다. 4월부터 6월까지 매주 ‘노숙당사자모임과 함께 하는 주거인권학교’를 열었다. 당사자 조직화를 꾀하는 단체와 함께 당사자운동의 가능성을 모색하되 인권운동의 고유한 역할을 찾아보려고 했다. 권리를 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지만, 당사자들에게도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온 것을 ‘문제’ 삼으며 인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것이 당시 참여자들의 평가였다. 주거인권학교는 활동의 한 전형을 창출했고,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며 사회권운동의 문제의식을 깊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인권운동연구소, 인권교육실의 독립

2000년 진보적 인권운동의 이론을 만들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부설로 인권운동연구소가 설립됐다. 학기제로 인권연구소에서는 인권문헌연구와 기본적 인권론 공부, 인권운동비평, 진보운동동향 등의 세미나를 했다. 2006년 7월 인권운동연구소는 분리 독립하고, 2007년 5월 ‘인권연구소 창’으로 공식 창립했다. 사랑방이 커지는 것보다 인권운동의 확대를 고민하던 사랑방은 인권교육운동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진영 확대와 인권교육 활동의 전문성,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2007년 인권교육실이 독립했고 2008년 2월 ‘인권교육센터 들’이 창립했다.

청소년인권운동의 본격화

2000년대 들어 학생인권을 비롯하여 청소년인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었고, 청소년노동, 청소년 선거권, 학내 종교자유, 학생 정보인권 등 청소년인권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다양한 청소년모임들이 형성되었지만 이내 사라졌고 청소년인권 의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고양시킬 단위의 부재가 큰 장벽으로 평가되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초기부터 인권교육실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활동을 지속해왔고 관련 사안들에 대응해 왔었지만, 청소년인권운동이 잠시 확장되었다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다. 이에 2006년 3월 대안적 운동을 기획하기 위한 단위로서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된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청소년과 비청소년들이 청소년인권이라는 하나의 의제 아래 평등하게 결합하면서 청소년인권운동의 일상적 소통을 강화하고 현안 대응, 장기적 과제 도출, 활동가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결성과 동시에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학생들의 학내 시위 지원과 보복성 징계 저지 활동, 거리 청소년 집회, 활동가 캠프, 파란만장 청소년인권 전국행진, 청소년인권운동 역사 연구 등을 진행해나가면서 기동성과 집중력을 갖춘 단체로 성장해 나갔다. 이후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

워킹은 전통적 학생인권 의제를 뛰어넘어 청소년노동, 십대 여성주의, 보호주의, 입시경쟁교육, 청소년의 정치적 권리 등 청소년인권의 의제를 점차 확대시키는 한편 다양한 청소년모임들을 지원하는 구심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갔다. 2012년 3월에는 '청소년활동기상청, 활기'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전환하여 청소년인권 담론 개발과 활동기반 조성이라는 두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8년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성원들이 주축이 된 '인권교육센터 들'이 창립된 이후에는 인권운동사랑방의 청소년인권활동은 '인권교육센터 들'의 활동으로 이어졌다.

돈움활동가 멤버십 신설

인권운동사랑방은 새로운 멤버십에 대한 고민을 했다. 고민의 배경은 기존의 상임활동가, 자원활동가로 제한된 멤버십이 의사결정권과 다양한 활동 방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에서였다. 이에 돈움활동가 제도를 신설해 활동의 형태를 다양하게 보장함으로써 활동가를 확대하고 조직의 외연을 넓히려 했다. 돈움활동가는 상임활동가와 같이 사랑방 활동을 책임지고 대표하는 활동가이지만, 생명의 중심은 사랑방이 아닌 성원이다.

후원의 밤 '은행 털고 싶은 날'

'임대료를 줄여 활동비도 늘리고 새 활동가도 들이자,' 그렇게 시작한 이사 프로젝트로 십 년 만에 후원의 밤 '은행 털고 싶은 날'을 열었다. 많은 분들의 지지와 지원으로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줄여 대학로 시대 10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인권교육센터 들'과 함께 중립동에 새로운 터전을 잡았다.

2007년

이랜드 투쟁에 함께 하며 노동권의 길 찾기 모색

기만적인 비정규직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흠에버-뉴코아에서 여성 비정규노동자를 대량 해고했다. 이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선전문화 행동팀 카트라 이더 활동을 벌였다. 점거투쟁 진압과정에서 발생할 경찰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뉴코아 농성장에 대한 경찰의 인권침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파업의 형사처분, 민사책임 면책을 위한 운동전략 워크숍을 열며 파업권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비정규직 투쟁에 함께하며 인권운동이 노동 운동에 어떻게 함께 하

면 좋을지 고민하게 되었다. 주로 인권단체에 요청되어온 진상조사와 경찰폭력 대응도 의미가 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인권운동의 노동권 활동에 대한 길 찾기가 필요하다. 이는 인권회의의 내 노동권 준비모임을 꾸렸다.

소통—연대—변혁, 사회운동포럼

2006년 평택 투쟁 속에서 인권운동이 다양한 사회운동과 관계를 맺으면서 공동으로 사회운동을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이어졌다. 이를 구체화하는 시도로 여러 사회운동단위와 ‘소통—연대—변혁’을 기치로 사회운동포럼을 공동주최했다. 3일간 진행된 포럼에서 다양한 가치들의 횡단대화가 이어졌고, 이를 전후로 각 의제별/영역별로 만나고 교감하는 여러 흐름이 형성되었다. 지속적으로 연대를 통한 상호침투와 상호교류를 기대했으나 이후 후속활동이 이어지지 않았다.

반차별공동행동 결성

2007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예고한 후 발의 과정에서 7개의 차별사유가 삭제되었다. 처음 성소수자 단체들을 중심으로 ‘누더기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펼쳐나갔고 이후 다양한 시민사회단체들이 결합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누더기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에 함께 하고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반차별공동행동’의 결성에도 함께 했다. 반차별공동행동은 2008년 ‘반차별 상상더하기(연속 포럼)’, 2010년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등을 진행하며 의미 있는 담론들을 제기하며 지평을 확장 했다. 그리고 인터넷 웹진 <차.차.차.(차별, 그리고 차마 말하지 못한 차이)>를 발행해 내부에서 고민해온 반차별 담론을 외부와 소통하고자 했다. 그동안 고민하던 인권 담론은 반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더 넓은 인권 담론을 모색해 나갔다. 추상적인 보편성을 넘어 구체적인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적극적으로 의미화해 나갔고, 인권의 보편성을 새롭게 구성해 나갔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내부에 반차별팀을 구성하였고 인권운동 차원의 반차별운동을 모색하였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

주거권 활동은 다른 여러 단체와 함께 했다. 2007년 뉴타운 개발에 대응하자는 방향을 정하고 웹진 <진보복덕방>을 매달 발행하기 시작했다. 미아뉴타운 면접설문조사 등을 진행하는 한편, 사회운동포럼을 통해 더욱 다양한 운동들과 주거권에 대한 고민을 나누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2008년 주거권운동네트워크라는 이름을 정하고 『개발에 저항하는 당신을 위한 안내서—그 많던 동네는 어디로 갔을까』라는 책

을 만들었다. 2010년에는 <진보북덕방>에 실렸던 글들을 모아 『집은 인권이다』를 출판했다. 주거권운동네트워크는 소수자의 주거권에도 주목해왔고, 2011년에는 ‘소수자 주거권 확보를 위한 틈새모임’에 참여해 「주거권과 가족상황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는 소책자를 만들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악 저지 활동

복지부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악에 대응하기 위해 구성된 ‘의료급여 개악 저지와 가난한 사람들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에 함께 했다. 의료급여수급자들이 많이 있는 동자동 쪽방촌의 실태조사를 하고, 주민들과 함께 동자동 건강권 배움터를 진행하며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악에 대해 알렸다.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복지부에 공개질의서도 제출했다. 당사자들과 만나면서 당사자권한강화, 자력화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키기 위해 하반기에는 인터뷰, 자료조사 등을 통해 임파워먼트와 관련된 고민을 이어갔다. 2008년 초 공동행동 단체들과 함께 ‘환자권리선언’을 만들고, 의료급여당사자모임을 시도하였으며,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또한 동자동 지역단체인 동자동사랑방과 함께 ‘건강권리학교’를 진행하고, 건강에 대해 다루는 기획기사를 <인권오름>에 ‘그대 건강권은 안녕한가’로 연재했다.

2008년

물 공공성과 물에 대한 권리에 주목

사회공공성을 사회권의 구체적 실현경로로 보면서 여러 공공성의 영역 중 물 공공성에 주목하기로 했다.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물 공공성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물 사유화 저지를 위해 UCC를 제작·배포했다.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 발의소식에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폐기를 요구하는 엽서/이메일 보내기 행동을 벌였다. 2009년에는 단수가구, 생수공장 주변 지역 주민, 비닐하우스촌 거주민의 물 권리 실태를 알아보며 물에 대한 권리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했다. 생수업체와 분쟁 중인 밀양 감물리 현장답사, 단수현황파악을 위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하며 물에 대한 권리 실태를 정리했다. 또한 서울지역 사회공공성 연대회의에 참여하며 선진화, 민간위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민영화를 진행하고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윤보다 생명! 의약품 접근권 확보 투쟁

백혈병 치료제인 스프라이셀과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의 약값이 결정되는 시기를 앞두고 의약품 접근권 실현을 위한 연대활동을 했다. 한국은 건강보험제도가 있어서 약값 결정이 제약회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지만 초국적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완전히 제어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높은 가격의 약을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백혈병 환우회와 HIV/AIDS 감염인인권연대 나누리+,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과 함께 의약품 접근권 확보를 위한 연대활동을 진행했다. 2009년 환자들의 건강권 침해 인권위 진정에 이어 에이즈치료제 푸제온에 대한 강제실시를 청구했다. 특허의약품에 대한 강제실시는 특허권자의 사익과 공익 간 균형을 맞추는 특허제도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3자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로슈가 푸제온을 무상 공급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강제실시는 기각 당했지만,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의약품 특허제도의 문제에 대해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장수마을에서 진행한 대안개발연구모임 활동

성북주거복지센터와 함께 재개발지역 조사와 세입자 상담을 진행했다. 사업완료 후 재정착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사업추진 초기부터 모든 정보에서 배제되는 세입자들의 사례를 접했다. 대안개발계획의 필요에 공감한 단위들이 모여 대안개발연구모임을 구성했다.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하나 수익성이 없어 방치된 지 오래인 성북구 장수마을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정든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물리적 여건 및 사회경제적 여건 방안을 모색했다. 뉴타운 재개발 사업의 폐해와 부동산 경기가 하락되면서 개발기조가 마을재생으로 변화하였고, 이러한 모색을 꾸준히 해온 장수마을이 주목을 받았다. 2013년 4월 재개발예정구역에서 해지되고 주민 참여형 재생 사업을 서울시-성북구가 추진하게 되면서 대안개발연구모임은 해소했다. 2013년 현재 장수마을에서는 마을기업 '동네목수'가 주민참여형 재생사업을 추진 중이다.

2008 촛불기획단 활동과 촛불인권침해감시활동

2008년 5월 청계광장을 시작으로 전국 거리를 가득 메웠던 미국산 광우병 의심쇠고기 수입반대를 외치던 시민들의 직접행동에 인권활동가들도 함께 했다. 인권단체 연석회의는 촛불기획단과 촛불인권침해감시단을 구성했다. 촛불기획단은 당시 경찰청장이었던 어청수 수배전단을 뿌리고, 촛불인권침해감시단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인권을 지키는 시위대를 위한 안내서」를 배포하면서 집시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장해야 할 권리를 알리고 시민감시단을 모집해 운영했다. 특히 6월 10

일 정부가 컨테이너 박스로 광화문 광장에 세운 명박산성 앞에 인권활동가들은 스티로폼을 쌓고, 우리의 권리와 행동은 권력이 쳐놓은 울타리를 뛰어넘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얼어붙은 세상을 녹이자’ 2008 인권선언 활동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앞두고 지난 촛불시위 당시 울려 퍼져 나온 인권의 요구를 우리의 선언으로 새롭게 만드는 ‘2008 인권선언’ 활동을 진행했다. 몇 달간 인권활동가들의 논의와 워크숍을 거쳐 다양한 인권선언이 릴레이로 발표되었다. 성소수자인권선언, 청소년선언, 장애인권리선언, 비정규직 노동자권리선언, HIV/AIDS 감염인선언, 빈곤에 맞선 권리선언, 환자권리선언, 이주노동자권리선언, 집은 인권이다-주거권선언, 표현의 자유 선언,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등 분야별, 주체별 선언을 만들어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신자유주의시대 우리의 인권을 무엇인지 발표하는 기자회견과 문화제를 했다. 이듬해 인권선언의 내용을 모아『2008 인권선언』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서울인권영화제 다시 거리로

2006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며 등급 분류를 의무로 하고, 대신 영화제 등은 등급분류면제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것은 기존의 영화진흥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구조였기에 인권운동사랑방은 등급분류면제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1998년의 결의가 유효함을 다시 확인했다. 그러자 기존에 영화제에 장소를 대관해주던 극장은 영화제 유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거리에서 영화제를 진행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영화등급위원회의 사전 등급 심사와 일부 영화제에 대한 사전 등급 심사 면제 추천 조항을 없애기 위해 영화단체 및 사회단체와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영비법 개정 공동행동(준)’을 결성했다. 제12회 인권영화제는 ‘그들만의 심의를 심의한다’는 슬로건으로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개최되었다. 2009년에는 사용 허가를 얻어 청계광장에서 영화제를 개최하려 하였으나 서울시에서 개최 이틀 전 불법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용 허가를 취소했다. 영화제 개최 당일 아침까지 경찰이 영화제 준비를 방해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으나 결국 청계광장에서 13회 서울인권영화제는 성황리에 열렸다. 이후 2008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인권영화제는 거리 상영을 하고 있다.

독립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활동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흔들었다. 2008년 초 인수위 시절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려다 인권단체들의 활동으로 철회했지만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을 축소하려했다. 인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직축소 저지투쟁을 하며 국가인권위를 길들이고 흔들려는 정부에 대응하고 국가인권위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견제할 필요성이 느껴졌다. 2009년 결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가치와 기준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무자격자 현병철 인권위원장 취임 저지투쟁, 집단기획진정, <거꾸로 인권>을 발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계속된 파행으로 2010년 11월 문경란, 유남영 상임위원의 사퇴 이후 인권단체들은 점거농성을 벌이고 전국적으로 서명을 받는 등 대규모로 인권위원장 사퇴운동을 벌였다. 201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10주년 토론회를 준비하며 분야별 인권운동의 현황과 인권위의 역할 평가 등을 했다. 2012년 다시 현병철 위원장이 연임되는 상황에서 이를 막기 위해 ‘현병철 인권위원장 연임반대와 국가인권위바로세우기 긴급행동’을 결성하여 활동했다. 인권위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제대로 된 인권위원 선정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009년

한국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용산참사

2009년은 용산참사로 시작되었다. 국가에 의한 살인, 개발이 내몬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비통함과 분노를 느꼈다. 사랑방은 사건 직후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에 결합해 경찰 진압의 문제점과 용산4구역 개발의 문제점을 조사하였다. 한편, 비슷한 시기 꾸려진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에 박래군 활동가가 결합하면서 많은 사랑방 활동가들이 대응 활동을 하게 됐다.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 등 국제인권기구에 사건을 알리는 노력을 진행하는 한편, 용역폭력 증언대회 등을 열어 한국사회가 개발과 강제퇴거의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애썼다. 경찰이 모든 집회와 추모제를 금지하거나 진압하는 것에 항의했고,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직접행동을 모색하였다. 가을에는 여러 단체들과 함께 용산국민법정을 진행하였다. 용산참사를 책임져야 할 자들, 김석기, 오세훈, 이명박(당시 서울경찰청장, 서울시장, 대통령) 등을 기소하여 죄를 다루었다. 한국

사회 인권의 현 주소를 보여준 사건이었던 용산참사는 현재진행형이다. 2010년 1월 장례식 이후 구성된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제도 개선위원회’에 참여해 지금까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 파업 과정에서 인권침해 감시 활동

인권회의 노동권팀과 민변 등은 정리해고에 맞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벌인 공장점거파업 과정에서의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다. 당시 경찰과 사측은 점거파업 중인 공장에 식수와 전기를 차단하고 헬기를 동원해 강력한 최루액을 노동자들에게 살포하였다. 인권활동가들은 공장 안에서 벌어지는 사측과 용역의 인권침해, 경찰폭력에 대한 감시 활동을 벌였다. 이를 토대로 인권침해보고서를 작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등 여론 작업을 하였다. 조사를 통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파업권의 침해와 정리해고로 인한 노동자 간의 관계 파괴 및 공동체 파괴 등이 드러났다.

‘북한 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모색

2008년부터 북한인권에 대한 진보운동의 새로운 담론 형성을 목표로 <북한인권>을 보는 새로운 시선 한반도인권 뉴스레터>를 발행하였다. 2010년까지 3년여에 걸쳐 뉴스레터를 발행하면서 북한인권에 대한 진보운동의 의제들을 발굴하고, 자유주의적 인권론에 갇히지 않는 진보적 인권론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고 버리고자 하였다. 그리고 2009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UPR 심의가 처음으로 진행되자 천주교인권위와 공동으로 유엔에 NGO 보고서(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이나 세부적인 인권 사항에 대한 현황과 관점, 우리의 한계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하면서 이를 보고서에 담고자 하였다. 이후 북측이 유엔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자 해당 보고서에 대한 의견서 또한 제출하였다. 이를 통해 북의 인권 상황에 대해 종합적이면서도 다각도로 접근할 수 있었고,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인권이 자본주의(자유주의) 인권과는 어떻게 달리 작동되는지, 보장되는 과정과 침해되는 과정은 어떠한 것일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었다.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 민간단체 보고서 제출

2006년 3월 유엔 인권위원회가 총회 산하의 인권이사회로 격상되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국제인권규약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유엔에 가입한 모든 나라의 인권현황을 검토하는 제도인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를 2008년부터 도입하기로

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은 UPR 심의가 다른 국제인권조약기구와 달리 전문성이 떨어지는 정부 관계자가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이주민권리협약이나 여러 선택의정서가 있는 현실에서 이를 활용하기 위해 민변, 참여연대 등과 함께 공동대응을 하였다. 민간단체보고서를 제출하였을 뿐 아니라 2008년 5월 열린 UPR 한국인권상황 1차 심의에 참여하였다. UPR 대응은 권리영역별로 흩어져있던 인권현황을 분야별 인권단체가 모여 함께 대응하면서 한국인권 현황을 총괄하고 교류하였다는 의미가 있었다. 2012년 2차 UPR 심의 대응에도 함께 하였다. 한편, 성적 지향을 삭제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이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대응에 함께 하였다. 현재 후속작업으로 정부에게 적극적인 권고이행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안식년 제도 도입

2000년대 초반부터 1년에 1달을 쉬는 안식월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제 잘 지켜지지 못하였다. 게다가 오랜기간 활동한 활동가들의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커졌다. 이에 따라 만 6년 활동을 하면 1년 안식년을 사용할 수 있는 안식년 제도가 도입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다.

2010년

청소노동자의 존재와 권리를 외치는 캠페인 활동

공공노조의 제안으로 청소노동자에게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단이 구성되어 2011년까지 활동하였다. 당시 많은 청소노동자들은 저임금을 받으며 대부분 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지만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 창고에서 밥을 먹고 쉬어야 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 놓여 있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여러 단체는 이러한 상황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우린 유명이 아니다”, “밥과 장미의 권리를” 라는 슬로건으로 청소노동자 행진을 진행하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캠페인단 활동을 하며 만난 청소노동자들의 이야기를 <인권오름>에 기획기사 ‘청소노동과 청소노동자의 삶’의 형태로 연재하기도 하였다. 2011년 4월에는 150여 명의 학생, 시민, 단체회원들이 조사원으로 참여하여 서울 지역 98개 건물, 165명의 청소노동자에 대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및 청소노동자들이 함께 저임금 해소, 고용안정, 휴게 공간 설치 제도화, 노동안전보건 및 건강권 강화

등 21개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입법청원하였다. 캠페인단은 2010~2011년까지 2년간 활동 이후 해소하였고, 이후에도 매년 봄 청소노동자 행진 준비단을 구성하여 청소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야간집회 금지 및 미신고집회 처벌에 맞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과 함께 야간집회금지법인 집시법 10조 개악안에 대해 대응하였다.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자, 한나라당은 야간집회가 가능한 시간을 제한하는 형태의 집시법 10조 개정을 발의하였다. 이에 2008년 촛불집회에 결합했던 네티즌,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국회 간담회 및 국회의원 항의면담, 항의 엽서보내기, 기자회견 등으로 국회를 압박하고, 집시법 10조 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조직하려 하였다. 2008년 촛불의 힘과 인권단체 노력으로 야간집회금지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고 2010년 7월부터 야간집회가 합법화됐다. 한편, 이명박 정부 들어 경찰은 미신고집회라는 명목으로 집회시위 자유를 제한하였다. 경찰은 불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기자회견, 1인 시위, 플래시몹, 추모제, 문화제 등 다양한 표현의 방식을 미신고집회로 간주하여 처벌하였다. 이에 집시법의 신고제의 위헌성과 미신고집회 처벌의 문제점이라는 문제의식을 통해 집회 신고제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냈고, <인권옴>에 기획 기사를 연재하는 등의 대응활동을 하였다. 2012년 대법원이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불응죄에 대해 무죄를 판결한 것과 관련하여 사회단체 워크숍을 개최해 이를 널리 알렸다.

경찰 권한강화 시도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저지

경찰의 권한 강화 시도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악 추진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은 불심검문 강화, 소지품 검사 강제, 경찰장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맞서 인권운동사랑방은 의견서 제출, 대안적인 개정안 마련, 불심검문 거부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개정안의 가장 큰 목적은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만드는 것이었다. 물포, 최루액 등 2009년부터 논의해온 경찰장비의 문제를 계속 이어가며 음향대포 도입 등 경찰장비규정 개악을 막았다.

G20, 차별이 자유를 옥죄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첨병대 역할을 하고 있는 G20정상회담을 유치하였다. 더구나 정부는 G20에 참여하는 정상들의 안전을 지킨다며 G20특별법을

제정하여 시민의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 정보인권을 무작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노숙인과 노점을 단속하였다. G20 대응을 기획 사업으로 정해 차별의 관점에서 자유권이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살펴보고, 'G20정상의 책임을 묻는 금융투기 자본 피해자 모임'을 구성하여 증언대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G20이 세계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할 당사자일 뿐 아니라 노동자 민중들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인권영화제 반딧불을 열었다.

2011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발족

2010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차별금지법제정을 검토했다. 반차별운동에서는 2007년 누더기 차별금지법과 보수 기독교 세력의 성소수자 혐오를 보여 올바른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해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발족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18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였으나 18대 국회가 폐회하며 법안은 자동 폐기되었다. 한편, 2011년 9만 명의 서울시민 서명을 받아 만든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 사유 조항 중 '성적 지향, 임신 및 출산'이 삭제될 위기에 처하자 긴급하게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이 구성되었다. 12월 14일 본회의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진행했고 그 결과 12월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차별금지 사유를 포함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활동과 함께 우리 동네 개발 대응

2010년부터 개발과 강제퇴거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온 인권·사회단체와 철거민 단체들이 워크숍을 진행하며 강제퇴거금지법안을 마련했다. 2010년 겨울에는 7개 지역을 대상으로 강제퇴거감시단을 운영하여 문제점을 조사하고 밝혔으며, 이를 기초로 강제퇴거금지법의 방향과 세부 내용을 점검했다. 2011년 1월 용산참사 2주기 추모토론회에서 강제퇴거금지법안을 발표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연속 쟁점포럼을 열어 당시 제기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강제퇴거금지법안을 확정했다. 많은 사람들의 서명과 함께 2012년 1월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회기 만료로 제정이 이뤄지는 못했다. 한편, 2011년에는 사랑방 사무실이 있던 서울시 중립동이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동네 모임을 구성하여 동네 주민들과만

나고 서명을 받는 등의 활동을 벌였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희망버스 투쟁

정리해고에 맞서 싸우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85호 크레인에 올라 농성 중인 김진숙을 지지하기 위한 5차례의 희망버스에 함께 하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찰 폭력을 감시하는 인권침해감시단 활동을 했다. 이를 토대로 작성한 인권침해보고서를 바탕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도 진행했다. 2012년에는 무작위로 남발되는 벌금과 소환장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에도 함께 했다. 당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하다 연행되어 공무집행방해혐의로 기소된 사랑방 활동가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역 거리노숙인 강제퇴거방침 철회하라

한국철도공사 서울역이 8월부터 23시 이후 역사 내 노숙인 퇴거 조치 방침을 밝혀 이를 철회하고 공공역사 내 홈리스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처음에 서울역은 역사 내 야간노숙을 금한다며, 퇴거조치를 시행했다. 하지만 공동대책위원회의 우려대로 특수경비용역을 고용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역사 내 노숙인 퇴거를 시행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인 서울역에서 홈리스를 쫓아내는 행위는 결국 가난한 이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로 이어졌다. 공동대책위원회는 매주 금요일 서울역사랑방, 실태조사, 1인 시위, 서울역주소지이전 등의 활동들을 이어가며 서울역을 압박했지만 퇴거조치를 철회시키지 못하고 공동대책위는 해산했다.

북 관련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명령 거부

자유게시판에 북미관계에 대한 비평 글, 북의 정치지도자에 대한 찬사와 현지지도 내용을 담은 게시물들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평소 사회단체 홈페이지를 사찰해오던 경찰 보안과에서 사랑방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이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므로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거나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전국 각지의 경찰서 보안과에서 연락이 왔다. 그리 주목받지도 못하고 비슷한 내용의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오는 것임에도 경찰은 단체와 개인들의 게시판을 일일이 확인해 내용삭제를 요청했다. 북에 대해서 국가가 제공하고 걸러내는 정보만 볼 수 있는 현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이 우리의 사상과 표현을 규율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사랑방은 단호히 거부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 행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2년

인권운동사랑방 20주년 내부 워크숍 진행

사랑방의 내외부 조건이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2013년 인권운동사랑방 20주년을 맞아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향후 운동방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모색해보고자 내부워크숍을 진행했다. 2007년 중장기전망 논의가 내적으로만 이루어졌다면 이번에는 좀 더 한국사회의 현실, 사회운동의 조건이 변화한 것을 살펴보고자했다. 또한, 사랑방의 위치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고 사랑방, 나아가 인권운동의 역할을 구체화하고자 했다. 향후 전략의 중심방향으로 '대중의 힘을 변혁적으로 조직화'로 설정하고 전략 실현을 구체화하고자 2013년 1/4분기 총회에서 기존 권리영역별 팀 체계를 해소하고 중심활동팀을 신설했다.

평화를 염원하는 강정 해군기지 반대운동에 힘을 보태

2011년 강정 제주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반대하며 제주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와 함께 '평화비행기'를 준비했다. 또한 제주시민들에게 해군기지가 파괴할 한반도 평화와 생태계 위협, 주민들의 삶에 관해 얘기하는 평화유랑단도 함께 했다. 2012년 3월 강정에서 구럼비 발파가 시작되면서 여러 인권단체가 모여 강정지킴이 활동에 함께하고 강정인권침해 조사단을 구성했다. 6개월간의 조사활동을 통해 7년간 투쟁의 역사를 되짚으며 2011년 9월부터 2012년 5월까지 극심하게 벌어졌던 인권침해를 조사했다. 강정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주민들과 평화활동가들의 권리조차 완전히 차단된 무법 공간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보고대회를 열고 국제인권기구에 진정했다.

표현의 자유를 외치다

이명박 정권 들어 거리에서 직접 모이는 집회시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류나 의견제시, 다양한 형태의 소통과 연대가 전 방위적으로 탄압받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직되지 않는 개인에 대한 형사소추가 두드러지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이명박 정권의 노골적인 시도가 계속 되는 가운데 표현의 자유가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2008년 촛불집회부터 경찰폭력에 대한 유엔인권기구 기획진정, 2009년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참여 및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초청 심포지엄 공

동 주최 등을 했다. 2010년에는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튀가 한국을 공식방문했다. 인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한국방문을 계기로 국내외에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널리 알리고 공론화하기 위해 대응했다.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2010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대회’를 열었다. 더욱 확장된 표현의 자유 전반에 대한 대응과 사회적 확산을 위해 2011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가 결성된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연속포럼을 진행하면서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2012년 「표현의 자유 정책제안서」를 발간하고 정책제안 발표 토크쇼와 시민강좌를 진행했다. 이후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는 표현의 자유 담론 형성을 위한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의 연대 - 함께 살자! 농성촌

“노동자가 하늘이다. 구름비가 하늘이다. 쫓겨나는 민중들이 하늘이다” 라는 모토로 쌍용, 강정, 용산참사의 의제를 알려내기 위한 SKY 공동행동이 6월 결성되었다.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고 내몰리는 사람들과 뭇 생명을 만나고 연대하는 2012 생명평화대행진이 10월 5일 강정에서부터 11월 3일 서울까지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대한문 쌍용차분향소 옆에 ‘함께 살자! 농성촌’이 세워졌고, 지역의 이슈를 서울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고자 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대한문을 연대의 장소로 만들기 위해 힘을 보탰다.

2013년

영화를 통한 진보적 인권운동, 서울인권영화제 독립

1월 서울인권영화제가 분리·독립했다. 표현의 자유, 인권감수성 확산, 인간을 위한 대안적 영상 발굴을 위하여 매년 개최해온 인권영화제의 장기전망에 대한 논의가 2007년 본격적으로 진행되다가 이명박 정부 시기 거리상영 문제로 중단되었다. 거리상영 5년의 시간 동안 재정 등의 어려움은 많았지만 관객들의 지지와 응원으로 더 단단해졌다는 믿음으로, 2012년 조직 독립을 결정했다. 곳곳에서 ‘인권영화제’의 이름으로 인권영화를 상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영화란 무엇인가? 어떤 인권영화를 상영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한 과정으로 1회 인권영화제 슬로건이기도 했던 ‘영화 속의 인권, 인권 속의 영화’라는 이름으로 서울인권영화제 분리 독립 기념포럼을 진행했다.

수신확인, ‘을’들의 이어말하기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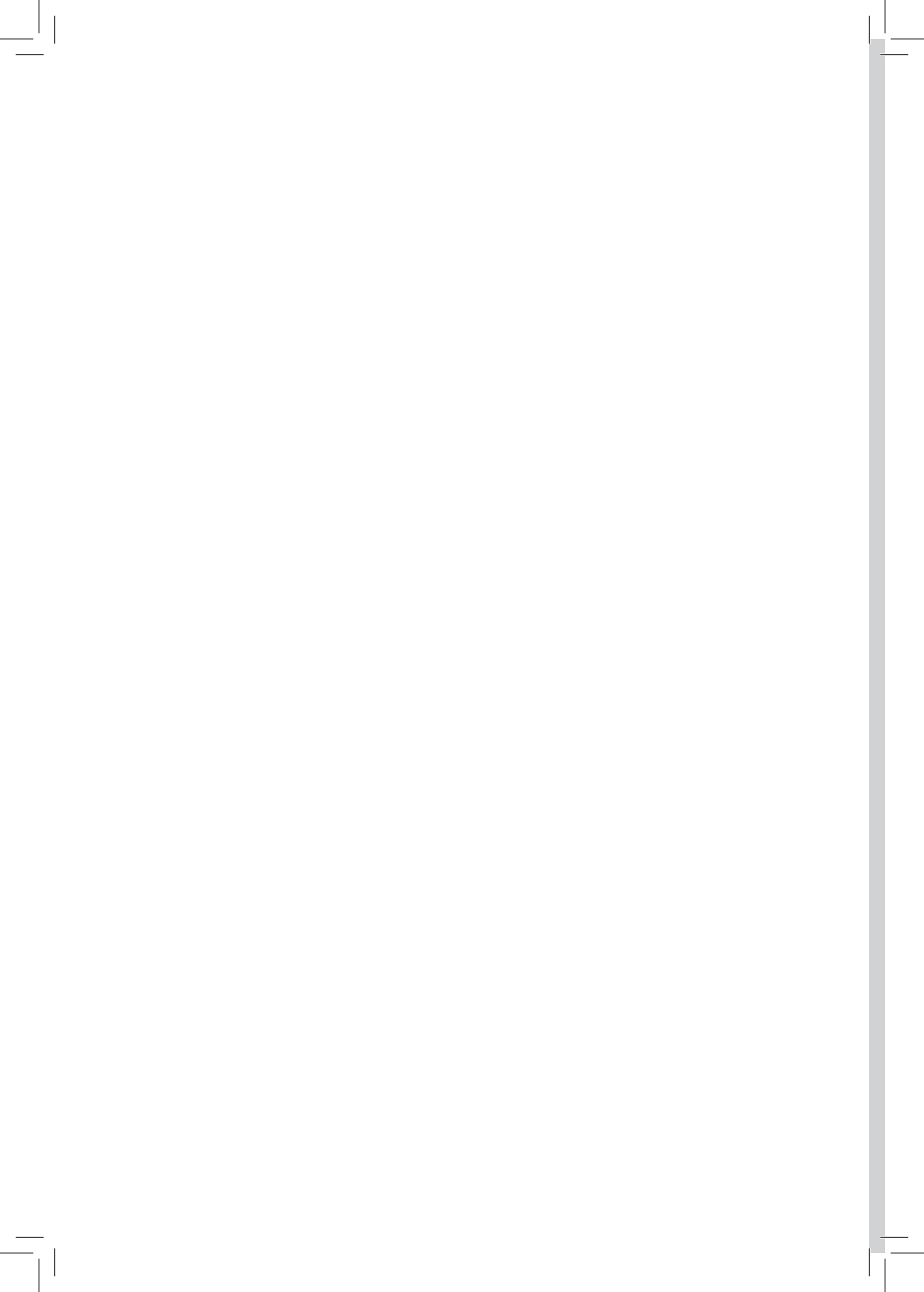
2011년 변두리스토리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차별당사자들의 생애구술사 작업을 진행했다. 초기에 사례/사건에 대한 보고서 출간 계획을 변경하여 이야기로 재구성, 『수신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로 출판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이 반대세력에 의해 철회되고 혐오와 차별이 더 극심해지는 현실에 맞서고자, 사회가 배제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이야기를 건네면서 서로를 연결 짓는 “평등예감_을’들의 이어말하기”를 대한문에서 진행되고 있다.

돌려차고 집회시위 제대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감시가 인권활동가들의 활동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집회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이 스스로 저항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활동을 각종 매뉴얼,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해 시도해왔다. 2011년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탄압이 광범위하게 펼쳐지면서 이에 대해 개인이 책임지는 구조가 아닌 공동대응을 적극 모색하며 2012년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활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장기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나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력에 대한 저항과 대항의 지점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집회 시위 제대로’ 모임을 결성하였고, 대한문에서 ‘꽃보다 집회’를 기획하여 진행했다.

밀양 등 한국의 인권탄압 현실, 모으고 알리고

765kV 초고압 송전탑 공사에 반대하며 9년간 밀양 주민들이 싸우고 있었다. 한전이 다시 공사를 강행하면서 절박하게 맞서는 주민들의 소식이 연일 전해졌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밀양 765kV 송전탑 인권침해조사단을 구성하여 협의과정에서부터 공사과정까지 인권침해 문제를 조사하여 발표했다. 그리고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의 공식방문을 계기로 인권시민단체들이 함께 진행한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에서 밀양뿐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실태를 알렸다.





샘솟다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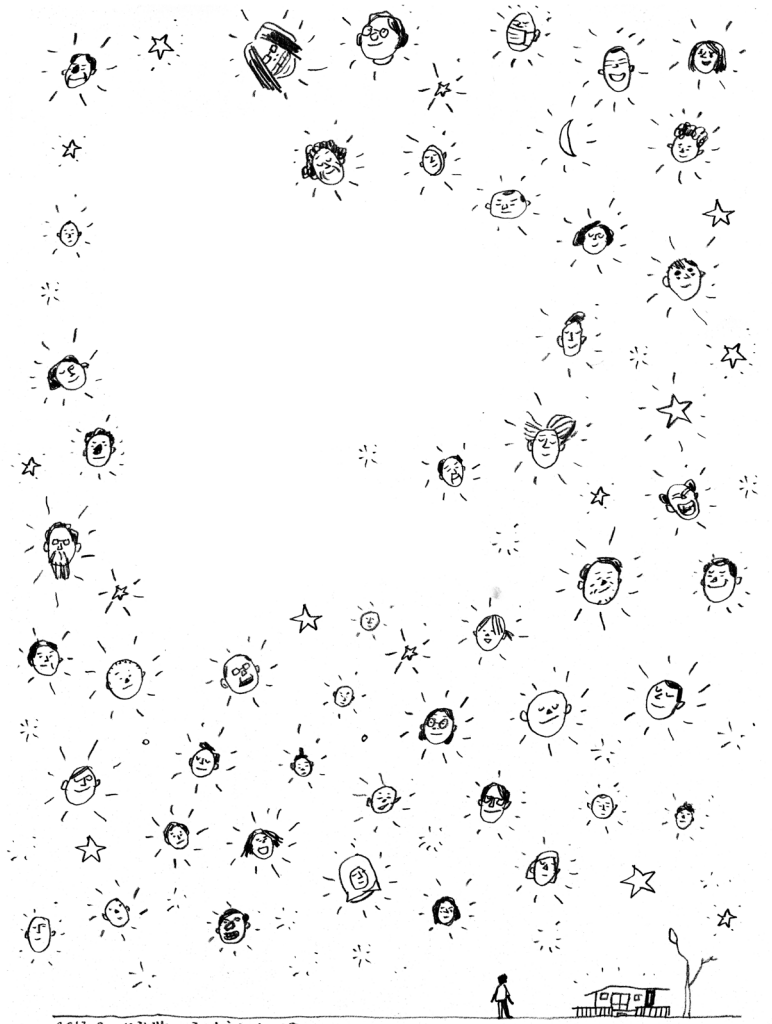
인권운동사랑방 20년, 그 위에서 다시 시작하는 인권운동을 응원하며
많은 분들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새만화책 대표/만화가 김대중

어느 날 찾아간 사랑방.
밖에서만 맴돌다 조근조근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는 결심이 되고 계획이 되고 행동이 되어 열린 문틈으로
문지방을 넘어 담벼락을 넘어 거리를 넘어
나는 또 사랑방 아닌 곳에서 사랑방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나는 멈추어서 그 말들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행동에서 서정이 흐른다고, 멈추어 노래를 듣자고, 하는 순간,
몸은 꺾어진 골목으로 발을 옮기고
그저 한 명 지나가는 행인이 되는 것으로 편안해 하며
점잖은 듯 아닌 듯.

그러나,
그 소리는 문득문득 떠오르는 기억처럼,
마음 속 어딘가에서 항상 흐르고 있어서
순간순간 낮을 밝히고 행동을 쉬게 하고 선택을 고민하게 합니다.
나는 음악이 들리지 않는 곳에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나는 또 멈추어서 그 말들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2013. 9. 사랑방 20주년 축하! 내조.

권기자 _ 창립 20주년 축하해요. 인연을 맺은 지 10여 년이 되었네요. 아들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지요. 소수자들과 소외받는 사람들, 힘없는 노동자들 그리고 인권 시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위해 힘쓰고, 못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도 노력하는 모습이 자랑스럽네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따뜻한 아랫목이 되어 주길 바랄게요. 다시금 20년 생일 축하해요.

레알로망캐리커처리스트 현장시사만화가 이동수 _ 사람답게 먹고살 수 있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에 담아 가야 할 것 하나. 그것은 '인권'입니다. '인권'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것입니다. 인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제 삶은 충분히 행복합니다~!

세 아이의 아빠 훌륭한 옆지기 쌍용차해고자 고동민 _ 인권이란 나와는 무관한 줄 알았어요. 쫓겨나고 배제된 삶을 살고 나서야 인권이란 숨 쉬듯 필요한 공기 같은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해고된 게 마냥 나쁘지는 않아요. 팍 맞물린 톱니바퀴마냥 기계적인 삶을 살았다면 숨 쉴 때 뭐가 필요한지 모르고 살았을 테니. 우리에게 산소처럼 중요한 인권운동사랑방의 20년을 축하드리고 함께하겠습니다.

영화활동가 김혜준 _ 1996년에 처음 인연을 맺었습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 '표현의 자유'를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권영화제가 계기였지요. 서울역에서 숙대입구역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던 사무실, 혜화동 로터리 근처 사무실 등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던 낯날들! 자체 발전기를 돌려야 했을 정도였던 방해 공작, 1997년 서준식 당시 집행위원장 구속 등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여러 반민주적인 장애물들을 정면으로 돌파해 온 사랑방 활동가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수고에 대해 고맙다 말씀드리자니 실은 염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이 저의 인권의식을 지키는 '풋대'이자 '깃발'인 것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늘 감사드리며, 함께하겠습니다.

누구나 집, 땅, 마을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법학적으로 논증하는 데 많은 시간을 쏟으며 매일 막걸리를 혼자 마시는 이계수 _ 사랑방은 제게 고향 같은 곳입니다. 20년 전에는 공간을 같이 썼구요, 10여 년 전에는 같이 열심히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운동도 했습니다. 제2회 인권영화제 때문가요? 저도 자막 번역 작업을 함께 했어요.^^ 서준식 선생님과 기자회견 이후 같이 술 한잔하던 기억도 새롭네요. 팩스뉴스에 어떤 기사가 실릴까 기다리던 시절도 있었지요. 사랑방은 우리 인권운동의 '사랑방'이었습니다. 사랑방이 커지면 사랑채가 되고 아흔아홉 칸 '큰집'도 되는 게 세상사인데 사랑방은 언제나 사랑방인 게 좋습니다. 한강, 낙동강도 작은 연못에서 시작하잖아요. 누구나 사람답게 사는 인권 세상에서 언제나 마르지

않는 검룡소, 황지연못이 되어 주세요.

제주에서 꿈꾸는 사람들 ... 알리 _ 멀리 제주에서 알리가 응원합니다. 벌써 20주년이네요. 사랑방 자원활동 모임을 하며 10주년 행사 준비를 도왔던 게 새삼스럽게 생각도 납니다. 벌써 10년이 지났나 싶은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것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주에서 10년 동안 살다 보니 사랑방 사무실을 한 번도 구경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쉽네요. 사무실 한 번 가보지 못했어도, 특별하게 만날 약속을 정하지 않았어도, 문득 참여하게 되는 집회 장소에서 활동가들과 마주치면 이제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랑방을 늘 애정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사랑방의 다음 10년에 대해서 꿈을 꾸어 봅니다. 그때에는 지금보다 더 희망적이라 믿습니다. 20주년 생일 축하합니다. ~~~~~

공감에서 사랑방을 만난 장서연 _ 20주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권의 현장'에서 사랑방 활동가들을 만나면 늘 든든합니다. 물대포가 몰아치는 희망버스에서, 폐허가 된 용산에서, 화장실에 숨어 점거택을 짜던 서울시 의회에서 외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랑방 활동가들은 늘 든든한 동지이자, 선배이자, 친구가 되어 주었지요. 그래서 사랑방 20주년이 진심으로 고맙고, 앞으로 20년도 지금처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사랑해요. 사랑방~^^"

고이지선 _ 안녕하세요. 풋내기 후원회원입니다. 멀리서 보았을 때부터 사랑방은 현장과 사람을 지향하는 곳인 것 같습니다. 큰 흐름과 현장의 이야기를 잘 해석해 주는 곳. 그래서 저에게 사랑방 활동가들이 함께 쓴 《수신 확인, 차별이 내게로 왔다》는 큰 감동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일에 늘 사랑방이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쩌다 인권활동가들과 놀다가 요즘 인권공부를 하고 있는 수유너머N의 정정훈 _ 사랑방의 활동을 보고 있으면 '최전선'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물론 한국 사회운동의 전선이 단일하지 않은 만큼 사랑방이 모든 운동의 최전선이라고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 또한 인권운동 내에서도 사랑방이 가장 급진적이라거나 치열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사랑방이 최전선에서 있다고 느끼는 것은 인권과 운동에 대한 그 고민의 근본성과 활동의 강렬함 때문입니다. 지난 20년간 인권의 원칙을 구현하려는 운동의 자리를 한결같이 지켜 온 사랑방, 바로 사랑방이 지켜온 그 자리가 제게는 최전선으로 다가옵니다. 사랑방 활동의 스무 해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꼴통 _ 무려, 신발을 벗고 사무실(!)에 들어갔었던. 배달음식이 아니라 당번이 준비한 식사를 했었던. 제가 방문했던 사회단체의 사무실 중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는. 이게 사랑방과의 첫 만남이었네요. 제겐 6년 전 일이었습니다. 항상, 어디에서나 사랑방의 후원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20주년 모두모두 함께 축하해요.

이쁜 나는 누굴까? _ 인권운동사랑방이란 곳을 알게 된 것이 2005년이고, 2006년에 자원 활동 한다고 신청했다가 안 가고, 2008년부터 자원활동을 했어요. 일회용 컵을 안 쓰는 문화도 좋았고, 서로 나이를 굳이 묻지 않는 문화도 좋았어요. 하지만 딱 봐도 나보다 한참이나 많아 보이는 사람들에게 이름만 부르기는 거시기했던 기억도... 같이 캠페인도 하고, 집회도 가고, 세미나도 하고, 연애 상담도 나누며 보냈던 기억이... 아... 눈물이 나려고 하네. ㅋㅋ 나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공감하는 법을 배워서 그것이 참 큰 자산이 된 것 같습. 하지만 참여 전히 어려운 것이기도 해요. 암튼 20년 동안 정말 수고가 많았어요.^^

사랑방을 좋아하는 주리 _ 20주년 축하합니다! 활동에 적극 참여는 못하고 있지만, 늘 지지합니다! 화팅!

꿈꾸며 일하는 출판노동자 계영 _ ‘인권’은 대략 알 듯해도 ‘운동’은 뭔지 몰랐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대학생이었습니다. 공익적 일이나 부조리에 맞서는 일에 막연한 로망(?)은 있었지만, 활동가나 운동 단체의 ‘전문성을 의심’하는 등 선입견이 컸지요. 그러다 첫 직장이던 소위 ‘진보’적인 책을 펴내는 출판사에서 상상도 못한 낙하산 인사 뒤 부당해고를 겪으면서, 마음과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백수 기간 조심스레 시도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턴 경험, 마침 그해(2007년) 하반기 터져 나온 차별금지법 의제를 계기로 온갖 종류의 ‘반차별’ 활동가들을 한자리에서 만났지요. 활동가들의 진면목이라는 종합선물세트를 선물 받은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사랑방 반차별팀에서 자원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2008년 촛불 때도 개인으로 시작했다가 좀 더 밀접해지는 계기가 됐고요. 비무장 시위 참가자에게 물대포를 쏘고 무력을 행사하는 ‘초현실적’ 일이 시위 현장에선 흔하다는 것도 그때 처음 들어 알았습니다.

느낌, 생각, 말, 행동이 가능한 한 일치하는 삶을 꿈꾸는데, 사랑방에서 바로 그렇게 운동, 삶, 관계, 말과 행동을 가능한 한 일치시키고 조화를 이루려 하루하루 애쓰는 사람들을 만났고, 이전 각자의 영역에서 때때로 만납니다. 생활인이자 활동가인, 바닷소금 같은 사람들! 차별이라는 의제는 깊고 넓어 망망대해를 헤매는 기분이었고, 지금도 ‘운동’라는 것의 답은 모르지만, 사랑방에서의 관계와 시간은 저에게 끊임없이 스스로 더 질문하게 하고, 다른 숨겨진 측면들을 보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잣대와 열린 시각을 안겨줬습니다. 처절한 분노와 아픔의 역사속

에 얽트면서도 세상 한구석을 밝히는 즐거운 운동, 계속해 소수자의 책을 만들며 살고 싶은 제 앞으로의 삶도 종종 나누고 함께하겠습니다. 사랑방 스무살, 고마운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신부 김성 _ 2005년 겨울, 인권운동사랑방의 문을 두드리고 나니, 조금은 걱정이 되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사랑방에서도 그랬다고 한다. 갑자기 가톨릭 수도자가 전화를 걸어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하니 좀 당황스러웠나 보다. 그래도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참 좋다. 선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되었고, 인권 감수성(아직도 요원하지만)이라는 개념 속에서 인간에 대한 배려가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 알게 되었다. 지금도 가끔 시국미사나 집회에서 아는 분들을 만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나도 사랑방 출신이야' 하고 으쓱하는 마음이 들곤 한다. 내 외모가 좀 우락부락하여 다음해에 소개해서 간 암전한 후배 수사를 보고, "진짜 수도자 오셨다" 는 말을 전해 듣고는 좀 서운하기도 했지만, 뭐 그래도 사랑방은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다. 자신이 사람을 물건으로 둔갑시키는 세상에 인간을 위해, 선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들의 존재는 내겐 늘 신성(神性)을 만나는 순간이다. 20주년 진심으로 축하하며, 그리스도의 평화와 축복을 청한다.

법학을 공부하는 대학생 예니 _ 안녕하세요, 사랑방 자원활동가 예니입니다! 아, 제 소개. 저는 지금 법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공부해서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사회를 만드는 일? 그게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는, 철이 덜 든 대학생생입니다.

사랑방이 벌써 20주년이 되었네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인권을 위해서 열심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해 주신 활동가님들께, 그리고 사랑방에 감사해요. 제가 사랑방과 인연을 맺은 것이 어느덧 2년이 넘었어요. 사랑방에 뭔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인연이었는데... 안타깝게도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한 것은 없네요.^^;;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김장은 꼭 함께할 거고요. (사랑방 김장날에 대한 뼈아픈 추억이! 아직도 가끔 쑤시네요.) 2년 동안 사랑방에 정이 많이 들었어요. 활동가 분들도 별 때마다 정말 반갑고, 더 친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활동가분들 항상 바쁘셔서 간혹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본인들의 인권도 잘 챙기셔서 행복하게 활동하셨으면 좋겠다는 천진난만한 희망을 말씀드려 봅니다. 파이팅이에요. 그나저나 요즘 뉴스를 보면 한숨 나는 일이 유난히 많아요. 사랑방에서도 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은 예감이 드네요. 이런 수상한 시절에는 모두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겠지요. 서로 연대하면서요. 모두들 힘! 아무튼, 해질녘에 대한문에서 만나서 '밤마다 자유를 그리워~♪' 합창도 하고 신나고 뜻 깊은 기념회를 계획 하고 계시다고요? ㅎㅎㅎ 기대됩니다. 책상 달력에 9월 28일 "사랑방" 이라고

빨간 글씨로 크게 표시해 두게요. 앞으로도 사랑방, 부탁드립니다.

한겨레 사진부 기자 박종식 _ 20주년 축하드립니다. 2003년 여름, 제대하고 처음 찾아갔던 곳이 인권운동사랑방이었습니다. 혜화동 시절 사랑방에서, 학보사를 했다는 이유로 <인권하루소식> 제작에 투입(?)돼, 3개월 남짓 <인권하루소식>에서 취재 및 기사 쓰는 일을 했습니다. 당시 사랑방 누님들과 형님들은 가까머리 경상도 청년의 훌륭한 상담자들이었습니다. 진로 상담에서 연애 고민 해결까지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며 저의 멘토가 되셨습니다. 사랑방의 자원활동을 마치고 복학을 앞둔 저에게 선물해 주셨던 책에 남겨 주셨던 말들을 지금도 되뇌곤 합니다. 특히 배경내 누님이 남겨 준 “생각한 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는 글귀를 떠올리며 첫 발걸음의 각오를 되새기곤 합니다. 여전히 생각한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오늘도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려 인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짧지만 제 인생의 거름이 되어 준 인권운동사랑방이 꾸준한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구로에 있는 청소년지역아동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정석 _ 삶의 멘토인 인권운동사랑방의 20살 맞이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잉여인간으로 오랜 시간을 살면서 세상살이에 온통 불만만 가득한 투덜이 스며프였던 제가 ‘인권감수성’을 알아가면서 ‘사람’을 보고 ‘사회’를 보며 내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사랑방의 멘토링이 있었기에 가능했었지요. 사랑방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오래전 <하루소식>을 우편으로 받을 때 연애편지마냥 기뻐했던 일이나 감옥인권을 활동을 위해 온통 긴장해서 난생 처음 교도소를 방문했던 일 등 두서없이 추억들이 떠오르며 마음이 설레네요. 늘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일하면서 가끔 마음이 힘들 때 사랑방에서 보내 준 <사람사랑>과 <인권오름>을 찾아서 읽는데, 현장에서 투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어느새 마음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기운이 솟는 것 같아요. 인권운동사랑방!! 앞으로도 오래오래 제 삶의 멘토로 남아 ‘너의 인권감수성은 안녕하니’라고 물어봐 주시길 바라요!!!

안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인복 _ 모두들 무탈하고 안녕하시죠? 매사 서툴다 보니 간다는 말도 제대로 못 전하고 동네를 옮긴 자유권팀 인복입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에서 공장에 나가고 있어요. 내려와서 2년을 넘기고 있는데 그동안 사랑방에 얼마나 무심했는지, 사무실을 옮긴 것도, 사랑방 짝임새가 바뀐 것도, 올해로 20주년인 것도 몰랐네요. 이런 무심한 녀석도 축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어요. 돌이켜보니, 첫 회의 때 얹어 컴컴했던 기억이 먼저 떠오르네요. 모아 찌기 한 안전지와 여러 장의 별첨을 들고, 무슨 이두항 찰이라도 해독하는 양 눈만 깜빡거렸던 회의들. 설명하고, 듣고, 눈을 빛내다 또 이내 컴컴하

고, 그렇게 다소 컴컴한 상태로 인권침해감시활동이나 불심검문 반대, 집회의 자유 캠페인을 했는데, 그래도 순간순간 배웠고 거리에서 돌아오면 항상 뿌듯했어요. 한 번은 광화문에 1인 시위를 나갔어요. 숨털 벗은 노루새끼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뛴 탓에 집에 돌아오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시위를 했는데 무용을 한 것도 같구나.' 우습지만 너무도 벅찬 가슴으로 1인 시위를 한 탓에 그만. 생각해 보면 저 말고도 다른 많은 활동가들의 기억들이 사랑방의 스무 해를 빼곡히 채우고 있지 않나 싶어요.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활동가들 하나 하나가 즐겁고 신나게 사랑방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20주년 다시 한 번 축하드려요.

씨애틀에서 윤찬식 _ 안녕하세요. 인권운동사랑방이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었습니다. 아끼는 사랑방 후배의 귀땀이 아니었다면 모르고 지나갈 뻔했습니다. 사랑방은 최고의 가치인 보편적 인권을 지켜내기 위해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당연히 가슴이 몽클한 적도, 가슴이 무너진 적도 많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과정에서 온갖 고난과 질곡이 많았으나, 밝히면 밝힐수록 뻗어가는 민초(grassroot)처럼 사랑방은 모든 것을 품고, 견디고, 뚫고 오 늘에 이르렀습니다. 뜨거운 축하를 보내고 싶고, 자랑스럽습니다. 차별철폐, 평등, 구조적 평화, 약자에 대한 가중적 고려, 복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꿈꾸고 실천하는 사랑방은 우리 사회의 값진 자산입니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또는 발로 뛰는 운동으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구조적 창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가장 예리하고 선명한 인권의식으로, 인권 운동과 패러다임을 주도하며 제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 역사성, 대표성, 활동성을 기억하고 평가하며, 지난 20년을 바탕으로 또 다른 20년을 헤쳐 나가는 세계 속의 사랑방을 지원하고 응원합니다.

현주 _ 제가 사랑방과 함께한 시간은 이 년 남짓인데, 사랑방은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학교 가 아닌 공간에서 활동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처음 문을 두드린 곳이 사랑방이었습니다. 사랑방에서 꾸준히 활동을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연락이 닿고 간간이 얼굴을 보게 되고, 책도 나오고 이렇게 20주년 글까지 쓰고 있습니다. 저는 원체 살갑지도 못하고 먼저 다가가지도 않는 사람인데, 가끔 만나면 반갑게 맞아 주는 사랑방 사람들이 있어 항상 고마운 마음을 한편에 두고 살아갑니다. 제가 처음 사랑방과 인연을 맺을 때에 비해 사랑방의 조직 구성도 사랑방 건물 위치도 달라졌지만, 사람들도 사랑방도 여전히 이곳에 있어 함께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다는 사실은 변함없네요. 인권이란 이름으로 만난 이 소중한 인연들과 함께 그려갈 '내일'이 수도 없이 많아 기쁩니다. 함께한 두어 해의 시간이 더 긴긴 시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남희 _ 지금은 따로 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랑방이 충청로에 있던 시절 복인권팀도에

너지 넘쳤던 때가 있었죠. 달랑 세 명밖에 없던 팀이지만, 뭔가 북적북적 큰 포부를 갖고 시작한 다큐 제작이나 백서제작 등. 머리를 함께 모았던 석진 씨, 아해 씨. 기억나죠? 그때의 활동들이 참 그립고 아쉽고 그래요. 복인권팀 다시 안 모이나요?^^

제가 사랑방은 따뜻한 밥상이에요. 돌아가며 당번을 정해 차려서 같이 먹던 밥상. 특히 미류 씨 밥상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밥 먹고 가라고 잡아 주면 냉큼 앉아서 밥 한 그릇 떠다가 둘러앉아서 나눠 먹던 밥상. 아직도 반짝반짝 빛나는 기억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 홀대로 이사간 사랑방에는 몇 번 못 가 봤네요. 밥 먹으러 갈게요. 곧.

영훈 _ 2006년 5월 14일에 있을 10회 인권영화제 ‘황새울 영화제’를 위해 13일 저녁 몇몇 관련활동가들과 함께 기자재를 가지고 먼저 평택 대추리에 도착했다. 그동안 그곳에서 보아왔던 모든 것이 변해 있음을 깨달았다. 얼마 전까지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았던 대추분교는 철거되어 폐허가 되어 버렸고, 헬기 소리, 그 헬기에서 울려 퍼지는 ‘애국가’, 마을을 휘젓고 다니는 경찰들의 군화소리와 고함소리들이 평범했던 농촌마을의 새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영화제 당일, 경찰의 예고대로 모든 길은 봉쇄되었고 결국 아무도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는 고립된 섬이 되었다. 대추리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는 방송하지 않을 방송국의 카메라만이 담고 있을 뿐. 눈으로 읽는 글자가 아닌, 피부로 직접 새겨지는 ‘봉쇄’, ‘단절’, 그리고 ‘절망’에 나는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마치 먹이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까마귀 같은 검은 옷의 경찰들이 그런 나를 멀리서 바라보고 있을 뿐. 그렇게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던가. 봉쇄를 뚫고 달려온 인권영화제를 포함한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들을 보자 나는 마음속 깊이 울어 버렸다. 그렇게 인권영화제는 무사히 끝날 수 있었다.

2013년 여름. 나는 인권과 영화와 상관없는 일을 하는 노동자가 되었다. 오늘을 살아내기도 버거운 그런 사람. 우연히 대한문을 지나갔다. 원으로 둘러싼 경찰과 공무원들, 그리고 시끄러운 듯 귀를 막고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화단에 놓인 검은 실루엣의 영정사진들에 시선이 멈추어 선다. 그리고 그곳에서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의 변함없는 모습을 보며 문득 그때를, 그리고 내일을 ‘기억’한다.

무동 _ 안녕하세요. ‘신자유주의와 인권팀’ 자원활동을 했던 정정석(무동)입니다. 그때 함께 활동했던 이들과 서울역 노숙인들, 용산 철거민들, 쪽방 생활자들, 시설을 벗어나 독립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이야기로 기사를 썼던 기억이 납니다. 생각해 보면 모두 인간답게 살 곳, 인간답게 살 권리를 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함부로 하지 마라고요. 그때 경험으로 논문도 쓰고 졸업하고, 지역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강원도 정선에 있습니다. 농사지으려 했는데 막상 먹고사는 게 걸려서 요새는 보건소에서 단기 방역 일을 합니다. 아마도 꽤 오랫동안 돈 버는 일과 농사를 같이해야 할 것 같아요. 무턱대고 내려온 터라 뭘 하면서 살아야 할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무엇이든 바로보고 피하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생각해 보니 사랑방이 그런 곳이 아닌가 싶어요. 함께 바로 보고 피하지 않고, 함께 손잡고 뚝뚝 벽 걸어가는 사람들, 마음들.

스무 살이 된 사랑방. 서른이 되고 마흔이 되어도 지금처럼 걸으시리라 믿어요. 고마워요, 힘내세요~~!

사회진보연대 부설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원 김동근 _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모든 사람과 함께 고민하기를 바랍니다.) 2007년 한 해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을 한 인연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의 어제의 기억을 되짚고, 내일의 꿈을 얘기하는’ 글을 쓸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거절 못하는 성격 탓에 덜컥 말았지만, 사랑방 20주년을 맞이하여 글을 써 달라는 말에 괜히 민망하고 주저하게 됩니다.

6년 전 자원 활동했던 때를 생각하니 어떤 일인지 점심식사를 준비했던 일이 떠오르네요. 무슨 메뉴였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식사준비를 도우면서 팬스레 떨렸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제가 일하고 있는 다른 사무실에서 종종 점심식사를 준비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뭔가 특별했던 것 같아요. 1년간 건강권팀에서 활동했었습니다. 당시 유시민 장관이 의료급여제도를 개악하려고 시도하던 때이기도 했고, 동자동에서 건강권팀이 활동하던 때이기도 해서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동자동 건강권 실태보고서를 작성했었습니다. 당시 작성했던 보고서를 확인할 수 없지만(파일을 찾아서 보니 암호가 걸렸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 세미나를 하고 기획안을 검토하면서 준비했던 기억, 인터뷰를 다니면서 안타깝고 분노했던 기억, 보고서를 작성하고 회의하면서 다듬어 나가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은 사랑방에서 활동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보건의료운동을 하고 있으니 사랑방 시절 고민했던 건강권이라는 문제의식이 고스란히 제 안에 남아 있는 것이겠지요. 인권운동사랑방의 20년은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20년도 그러하기를 기원합니다!!^^

달꿈 _ 문화예술, 마을, 성소수자인권운동, 연대라는 키워드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은 마을공부방 ‘토끼똥’에서 어린이들을 만나는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표는 적당히 벌고 잘 사는 것이고, 이 생의 소기의 목적이라면 쿼어 영화 한편 잘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인권 관련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해 보고 싶어서, 무작정 자원 활동 신청서를 쓰고 당시 총정로에 있는 사랑방을 찾아가서 사회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느새 사랑방은 흥대로 등지를 다시 틀었고, 여전히 편안한 분위기여서 좋았어요. 함께 공부하며 모임을 이어가는 것도 즐거웠어요. 사랑방 활동을 하면서 ‘인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투쟁적인 단어인지, 또 이렇게 간절한 단어인지 늘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사랑방에서 ‘인권’을 고민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건 늘 즐거워요. 지금까지 실

틈 없이 달려온 사랑방! 20년을 잘 돌아보고 또 새로운 내일을 잘 계획하시길 바라요. 앞으로도 힘없는 사람들에게, 소수자들에게,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공간이 되어 주세요!

강동 _ 프랑코 만쿠조는 24개국 60여 개의 광장을 분석한 책에서 광장의 기능과 사회문화적 의미들을 언급했습니다. 옛 시민과 새로운 시민이 만나 공동체적 동질성을 확인하고 형성하는 장소이자 사람들의 가치로 채워지는 공간, 끊임없이 사회적 행위가 이뤄지는 무대라고 했습니다. 광장은 기능적으로 개방되어 있기도 하고 분리되어 유기적으로 활용되며 무한한 가능성들로 채워집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그 자체로 광장을 품고 있고, 도란도란거리는 살가움이 있습니다.^^ 광장의 이슈를 사랑방으로 불러들이기도 하고, 사랑방의 고민들을 광장으로 끌고 나가기도 합니다. 어렵고 답답하기만 했던 인권이란 단어를 보통의 사람으로 곱씹고 나눌 수 있게 해 준 인권운동사랑방이 벌써 20주년이라니 건강하게 광장을 품고 있음을 정말 축하합니다.

영화제 자원활동가 마토 _ 수능을 갓 치르고 난 한겨울 어느 날, 자원 활동을 하겠다며 인권운동사랑방 문을 두드렸던 제가 이제 어느덧 아홉수라고 하는 나이가 되었으니, 사랑방의 20년 역사에 나의 20대도 살짝 엮어도 되지 않을까요. 서투르고 의욕만 앞서던 저를 늘 북돋아 준 인권영화제. 그 덕에 오지랖 넓게 주변에 관심이 많은, 어떤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욱 관심 있게 들어 보고 진심을 담아 세상에 전달하는, 편견 없이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과 만나는 거 제도의 유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더 깊이 있게 버려 내어 주는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영화제가 되어 주세요. 항상 응원할게요!

대용 _ 사랑방이 20년이나 되었다니!!!! 2000년은 된 줄 알았는데 이제 겨우 시작이었군요. 훗ㅋㅋㅋ 장난이구요, 사랑방에 드나든 게 5년이 넘었는데도 모르고 지낸 사람, 사건이 많더라고요. 20이란 숫자의 의미보단 이런 날을 통해 미처 몰랐던 15년 세월을 돌아보게 되네요. 들었던 적 없는 사건들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봐 왔던 많은 이슈에 인권운동사랑방이 의미를 부여한, 꾸준한 노력의 흔적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새삼 같이 활동하고 있는 게 놀랍기만 합니다. 괜히 그간 난 뭘 했고, 해야 할지 고민하게도 되고요. 2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한발 멀어서 구경만 했습니다. 고생스러워 보여 알게 모르게 회피를 좀 많이 했던 거 같습니다.ㅋ 20주년 행사니까 곧 30주년도 오겠지요? 그때까지 저와 사랑방 모두가 무사하다면 (그때라고 해도 저는 제 고민, 사랑방은 사랑방 나름의 고민이 있겠지만ㅋ) 그때는 저와 사랑방, 우리가 사는 사회의 고민에 지금보다 더 교집합 영역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같이 고민하고 행동하면서 30주년도 맞게 되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참세상 기자 정은희 _ 누구였는지 생각나진 않아요. 하지만 사회운동에 대한 미약한 전망 속에 있던 저에게 사랑방 활동가들은 넘치는 일을 나누려는 어떤 도구적 활동보다는 인권운동의 전망을 키워 주려 했던, 먼저 존중해 주셨던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후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며 연대운동을 통해 만났던 활동가들도 비슷한 마음을 갖게 했고요. 고민을 나누는 말의 방식, 함께하는 태도 속에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이, 나란히 다양한 이가 함께하는 모습은 제 언어도 바뀌놓곤 했어요. 정세, 과제 등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논의뿐 아니라 투쟁하는 이들 자신의 문화를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훨씬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인간적 권리를 둘러싼 20년간의 치열한 성찰 속에서 그런 문화도 피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시든 기대하게 되는 이유도 이 때문인 것 같고요. 20주년 축하드리며 더욱 응원합니다!

오동 _ 어제는 7년 만에 아버지와 별초를 하고 왔다. 야산 중턱의 산소를 찾아가는 길은 나무와 풀로 뒤덮여 어디가 길인지 도무지 분간을 할 수 없어 툽과 낮으로 기억을 더듬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산소와 마주해야 했다. 사랑방과 나의 어제를 조우하는 일 역시 나무와 수풀을 헤치는 과정이 필요할 듯하다. 사랑방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는지 나는 잘 모르고 호수를 떠난 겨울의 오리들처럼 연락이 끊긴 친구가 많다. 나는 2002년 가을, 친구 대홍을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 설문조사를 도와주는 일로 사랑방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사랑방보다는 사랑방과 주변의 사람들과 인연을 이어 갔다. 2006년 대추리의 차력쇼에서 고무줄을 철조망처럼 씹어 끊었고 행정대집행 때는 망루에 몸을 묶고 있다가 풍포에 팬티가 낀 채 수원으로 연행되었던 기억이 난다. 그리 길지 않은 인연이었지만 20대의 나를 키운 것은 말 그대로 팔 할이 사랑방과의 인연이었다. 사랑방이 20주년을 맞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행사가 있다면 꼭 참석하고 싶다. 불려만 주시라! 툽과 낮으로 시간의 수풀을 헤치고 어제와 내일의 사랑방을 만나러 꼭 갈 터이니!!^^

선우영희 _ 그리운 사랑방 식구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사는 선우 영희입니다. 아이들과 책 읽고, 이야기 나누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어느 해 여름에 수박을 한 통 사들고 중립동 고갯길을 헤매며 사랑방 사무실을 찾아간 적이 있어요. 사무실 입구에 여러 쥘레의 신발이 낫선 손님을 먼저 반겨 주었어요. 정겨운 동네에 정 많고 따듯한 젊은이들이 세 들어 살고 있었지요. 사랑방 첫인상은 아주 좋았어요. 믿을직했고요. 첫인상의 기억으로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나 봅니다. 그 인연이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20주년이 된다니, 작은 나무가 무성한 잎을 단 큰 나무가 된 것 같네요. 거름기라고는 찾을 수 없는 곳에 씨앗을 뿌려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서 이제 20년생 나무가 되었으니 축하받을 만합니다. 사랑방은 사

람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이든 사랑하기 위해서, 따뜻한 피를 나누고 있는 곳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응원합니다! 쉽게 갈 수 없는 길을 먼저 앞장서 가는 사랑방 식구들이 있어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래서 늘 기억합니다! 사람 사는 곳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 기운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한겨레 21 기자 신윤동욱 _ 기자(記者)는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잘 기록하면 되는 직업이지요. 기자로 15년을 살았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나는 이제 잘 받아쓰지도 못하는구나. 받아쓰는 능력마저 퇴화하면서 자꾸 어제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저의 기자 인생은 사랑방 활동가들이 불러주는 것을 잘 받아쓰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찾아가는 곳을 가고, 그들이 만난 이들을 만나고, 그들이 기획한 자리에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사가 나왔고, 저는 배웠고, 세상은 바뀌었다, 고 문장을 끝내면 좋겠지만 마지막 심포 사이의 문장은 자신이 없습니다. 물론 잘 받아썼다고 스스로 생각한 적도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세상을 불러준 이들의 이름은 이창조, 김정아, 배경내, 류은숙, 미류, 명숙, 훈창... 심포 사이에 깜빡한 이름이 많습니다. 언젠가 미류 활동가에게 고백한 적이 있지만,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선부른 절망에 젖었던 1990년대 중반, 새로 시작하는 인권운동이 없었다면 그들의 운동에 힘을 얻지 못했다면, 오늘 저는 20년 축하 글을 쓰지 못했을 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세상에 대한 선부른 실망이 들 때면, 그런 생각을 하며 견뎌냅니다. 가끔씩 헛갈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랑방 성명서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모든 생각이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생각이 닮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위안과 용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5년에 한 번씩 사랑방 공간을 찾아갔지만, 언제나 반갑게 맞아 주었던 이들에게 제대로 고맙다는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요일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는 시간에 글을 써서인지 감상이 좀 지나치군요. 그래도 끝으로 꼭 인사를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방에서 오는 메일에서 그의 이름을 볼 때마다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최은아 활동가님, 감사합니다.

출판사 클 대표 김경태 _ 90년대 말 사회권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인간답게 살 권리》라는 책을 만들었다. 추운 겨울이었는데 버스를 타고 조언을 들으러 학자, 전문가 분들을 만나러 다니던 기억이 난다. 한 첩터씩 나눠서 쓴 필자들이라야 당시 사랑방 활동가들 아니면 나처럼 자원 활동을 하는 대학생들이었는데, 제법 탄실한 내용의 조사와 집필이 이루어졌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 그때의 경험이 바탕이 되어 나는 자연스럽게 출판편집자를 직업으로 삼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까지 그때의 인연들이 이어지고 있는 걸 보면 당시 자원 활동을 하면서 가장 소중했던 것은 재미였던 것 같다. 함께 모여 공부하던 재미, 함께 모여 일하던 재미, 함께 모여 웃고 떠들었던 재미. 앞으로도 인권운동사랑방에 자원활동가들이 스스로 함께 모여 재미를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육성철 _ 사랑방이 문을 열던 무렵의 공기는 스산했습니다. 정태춘 선생이 부른 <1992년 장마, 종로에서>의 허전함은 그해 겨울 치러진 대통령선거 이후 절정에 달했지요. 절망이 사람의 온기마저 갇아먹던 시절 사랑방은 인권의 보루이자 희망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사회부 기자였기에 사랑방이 발행하는 <인권하루소식>의 애독자였습니다. 언론이 외면하고 왜곡한 현장의 목소리가 <하루소식>엔 여과 없이 담겼기 때문이지요. 저는 이따금씩 글씨가 뭉개진 채 팩스로 들어오던 <하루소식>을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로 일할 때 만들었던 노보와 인권위 공무원이 되어 도안한 보도자료에 <하루소식>의 형식과 문체를 허가 없이 표절한 사실을 이제야 이실직고합니다. 사랑방의 스무 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초심의 결기를 되돌아보며 현실의 엄중함을 지혜롭게 풀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사랑방 지지자 손영주 _ 20년, 이제 성년이다. 우선 축하와 갈채를 보낸다. 인권이 무엇인가? 하늘이 준, 선천적으로 지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기본적 권리가 아니던가! 그런데 독재정권 치하에서 무시되고 유린되고 잊어버리고 지내오지 않았다. 이때, 1993년 서준식 선생을 중심으로 한 자그마한 모임이 인권을 찾자고 들고일어나 ‘인권운동사랑방’이라 이름 지었지. 태어나자마자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국가보안법에 도전하였지. 국가보안법 피해자를 찾아 증언을 공개하고, 국가보안법 판례집을 발간하고, 강기훈 유서대필사건 등 조작 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하여 기존의 신문들이 외면하는 인권 유린 사태를 세상에 전파했지. 바로 이어 1994년엔 동티모르(당시 인도네시아에 속함)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아르헨티나의 의문사규명 단체인 ‘5월 광장 어머니회’와 손잡고 국제적으로 연대했지. 1996년, 인권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바로 무료 ‘인권영화제’ 개최야. 국제적으로 문제되는 인권에 관한 영화를 수집하여 수백에서 수천만 원이 드는 영화제를 17회나 이어온 것은 기적 같은 일이지. 연이어 주류가 외면하는 부랑인, 철거민, 재소자, 보안관찰자, 비정규직노동자 등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의 인권을 찾아 주기 위해 동분서주 투쟁한 역사, 20년이야. 불과 10명도 안 되는 활동가들이 인권운동이 생계수단이 아니라 생활 자체라는 신념을 가지고 피눈물 나게 살아온 나이테지. 아하! 장하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좋다. 인권이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 좋고, 활동가들의 투명하고 순수한 삶이 좋고, 사랑방이란 이름이 좋다. 시골 출신으로 사랑방의 기능과 분위기를 알기 때문이다. 사랑방은 시골 사람들의 만남, 대화, 쉼터, 놀이, 나눠 먹음의 장소였다. 그리고 보니 사랑방이 명륜동에 있을 때부터 <인권하루소식>을 받아 보고 일희일비 하였으니 사랑방과 함께 나이를 먹고 머리가 하얘졌다. 적은 인원이 대단히 크고 많은 일을 해내는 데 놀랐고, 그에 반해 사람들의 관심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데 놀랐고 부끄러울 뿐

이다. 앞으로 20년, 200년 우리 모두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길 간절히 기원한다. 아니, 이런 활동이 필요 없어야겠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구약》 〈욥기〉 8장 7절)”

인권적 사회를 지향하고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 이상엽 _ 가끔 인권은 불편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좋은 말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말을 적용하기 쉽지 않다.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 준공한 성산동 인권센터 사람 엘리베이터도 그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아내가 하고 있는 장애인 인권운동도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인권은 좀 불편함을 감수함에도 가야 할 사회적 가치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감수하자고 이야기해 온 곳이 인권운동사랑방이다. 1993년은 우리 사회 권위주의의 체제가 강력히 자리 잡고 있던 인권이 척박하던 시절 사랑방은 기존의 기록권과 무지에 맞서 인권의 소중함, 인권적 가치가 사람의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하는지 길을 열어 온 곳이다. 그런 사랑방에 별 도움이 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지지를 보내왔다. 하지만 사랑방 20년보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더 중요하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가치가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있도록 인권적 가치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는 데 사랑방이 큰 기여를 하기 바란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인권 중심의 세상이다. 그 길에 사랑방이 선도자가 되어 주길 기대한다. 그 길에 작은 역할이나 친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 사랑방 20년을 축하한다. 사랑방의 친구이길 바라는 사람이 몇 자 적는다.

담은 _ 딸아이를 따라 인권영화제의 영화들을 보면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인권운동사랑방이 발하는 따스한 온기와 뜨거운 열기가 좋아 가끔씩 기웃거리는, 오십 대 전업주부 담은입니다. 사랑방이 스무 살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의미가 묵직하게 가슴에 안겨 오는 만큼이나 또 묵직하게, 부끄러움 역시 느껴졌습니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의 날이 무디어진 채 살고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동안도 사랑방엔 늘 불이 켜져 있었네요.

살아가는 상황들은 쉽사리 나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요즘이 어느 때인데 하며 탄식하게 되는 일들은 사라질 줄 모르고 여전히 반복되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하지만 그만한 일들로 희망 줄을 놓아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쓸쓸함을 함께 공유할 마음들이 주위에 아주 많아졌다는 걸 알기 때문이지요. 이제는 무엇 무엇이 어떻게 되지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리라고는 꿈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에는 예민하나 저것에는 둔감할 수 있음 또한 알게 되었고, 진보라 불리던 것이 진부함의 웃으로 갈아입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 역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방에 감히 요청을 드립니다. 무뎠지는 우리 마음이 이것에도 예민하고 저것에도 예민해질 수 있도록 인권에 대한 감

수성의 날을 계속해서 버려 주시기를. 그래서 쓸쓸함에 지쳐 냉담해지지 않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보듬을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아주 조금씩 진화되어 가기를 믿어지요.

마창 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상임활동가 이은주 _ 활동의 많은 부분이 노동자의 죽음과 질병을 대면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에게서는 “공장 문 앞에서 인권은 사라진다” 라는 것이 가장 선명하고 강렬한 인권에 대한 알아차림이었다. 그 강렬함으로 때때론 깨닫지 못하고 흘러 보내는 것이 많기도 했다. 모든 인간(인간을 넘어선 모든 것)의 생성과 소멸의 전 과정에 인권의 문제를 깨닫고, 나누고, 실천하는 일은 녹록치 않은 일이다. 이런 나에게 사랑방은 놓쳐 버린 것들을 깨닫게 해 주는 ‘신선한 자극’이 되기도 하고, 마음 한편에 늘 함께 동행하고 싶은 존재였다고나 할까. 물리적인 거리가 멀다 보니 마음만 일 때가 많다는 것이 아쉽지만... 20년 동안 인권운동사랑방과 씨줄날줄처럼 얽혀 있는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어땠을까? 궁금해지는군요. 20주년을 맞이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디선가 읽고 남겨 두었던 글귀가 떠오릅니다. “인간은 승산이 있을 때만 저항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리고 승산 없는 저항은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도 아니다. 저항이 목적이 이 저항을 통해 스스로를 인간적으로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면 그 저항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그리고 중국엔 그러한 저항을 거쳐야만 진정한 승산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아무 저항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애당초 승산같은 것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선하고 발랄하고 진정성 있는 저항을 해 온 사랑방의 기억이 미래에도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진태원 _ 인권이라는 말은 요즘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말이 됐습니다. 신문·방송에서, 인터넷에서, 거리에서도 인권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인권을 함부로,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들을 찾아보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인권은 특별히 운동의 목표가 되거나 이론적 탐구의 대상이 되기는 어려운 듯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인권의 가장 강력하고 든든한 벼이 되어야 할 이들이 인권을 가장 소홀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령 어떤 진보적 좌파 운동가들에게 인권은, 필요하긴 하지만 사소한 문제처럼 여겨지지 않을까요? 또한 최첨단의 좌파 정치철학과 이론들을 섭렵한 어떤 이들은 인권을 지배계급의 수사학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가나 이론가들이 어떤 점에서는 옳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인권은 많은 경우 희생자의 권리, 곧 강한 이들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의 권리, 그러한 보호 아래에서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들의 권리로 여겨지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보호의 권리로 인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이제 인권은 조금 더 적극적인 권리, 적극적인 운동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다움의 권리로써 인권이, 시민다움의 권리로, 여성다움의 권리로, 민중다움의 권리로 확장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늘 그랬던 것처럼, 인권운동사랑방이 앞으로도 그 일에 앞장서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부림교회 백충신 _ 20주년을 맞이하여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먼저 부끄러운 마음을 갖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인권 문제만은 제일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되는데도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을 멀리서나마 미력하게 지지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도 결국은 인권 회복입니다. 한 인간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권 유린은 가장 큰 죄악입니다. 종교를 떠나서 인권은 이 세상 어떤 가치보다 중요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인권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활동이 있었기에 희망을 가져봅니다.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불의와 맞서 싸워 주시기 바랍니다. 힘껏 돕겠습니다.

시인 송경동 _ 사랑방을 처음 만난 건 1995년경이었던 같다. 당시 내가 일하던 구로노동자 문화회는 여러 민주단체들과 사무실을 함께 쓰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 사무실 팩스로 <인권하루소식>이 배달되어 왔다. 물론 '인권'이라는 말은 낯설고 생소했다. 은연 중에 '개량'을 떠올리거나, 계급투쟁이나 혁명운동의 어떤 전선에서 조금은 떨어진 부차적인 운동을 떠올리기도 했을 것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의 애매모호한 보편적 인권이 아니라 더 집중적인 계급적 당파성일지도 모른다고 혼자 생각하기도 했을 것이다. 어설피게 배운 사회과학이라는 게 그렇게 영성하고, 선부르고 건방졌다. 그러다 1998년경 <삶이 보이는 창>이라는 잡지를 만들 당시 <인권영화제>를 준비 중이던 류은숙 동지를 취재하며 사랑방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각종 교육 자료들을 보며 구체적으로 사랑방을 만나게 되었다. 자꾸 속화되어 가는 노동운동이 사랑방만큼 열려 있거나, 전면적이거나, 치열하거나, 예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했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를 사랑방의 보이지 않는 회원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나중엔 대추리나, 기릉, 용산, 희망버스 등지에서 래군, 명숙, 미류, 일숙, 정륙, 민선, 훈창 등 사랑방 동지들과 구체적으로 함께 일을 하며 배우기도 많이 배웠다. 그렇게 우리 사회 대부분의 억압과 차별, 폭력이 있는 곳이면 늘 함께해 왔던 사랑방의 20년. 그 진정한 결들이 우리 사회의 속살 어느 깊은 곳에 아름다운 삶의 무늬로 아로새겨져 있으리라 믿어 보며, 앞으로 다시 가는 길 내내도 우리 모두의 진실의 파수대로, 저 깊은 심연으로 사랑방이 있어 주기를 바라본다.

서울 명륜동 인문사회과학 책방 풀무질 일꾼 은종복 _ 사람이 사는 데 먹을거리 입을거리 잠잘거리가 있으면 된다. 거기다 마음을 넉넉하게 하는 삶이 있으면 더 좋고.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선 모두 안 된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럭저럭 산다. 아니 그들도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다. 돈을 끝없이 벌려는 마음에 불행하다. 누군가 그랬다. 인권활동가가 없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고. '인권운동사랑방' 일꾼들은 늘 낮은 사람들 아픔을 온몸으로 느끼며 산다. 난 다달이 돈을 내며 함께할 뿐이라 죄송한 마음이다. 나도 책방 풀무질을 스무 해째 꾸리고 있다. 이 땅에 인권, 생태, 평화, 나눔이라는 말이 운동이 아니라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를 꿈꾼다. 그 길에 사랑방과 풀무질이 함께 걸어서 참 기쁘다.

세 딸과 좋은 길벗으로 살고 싶은 파란구름 _ 둘째가 초등학교생일 때, 둘째딸을 인권캠프에 보냈더니 자기 꿈이 인권변호사가 되는 거라네요. 이제 대학교 2학년인 둘째는 그 꿈의 실현을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든 활동가가 되든, 인권을 위해 살고자 하는 딸을 응원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인권운동사랑방을 응원합니다.

대한문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_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인권운동사랑방 식구들. 20주년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축하하고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 인권운동사랑방 20주년 영원히 빛나시길.

혼자 믹스커피를 훌쩍이는 병원 _ 사랑방은 뭐랄까, 인권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하나 꺼내 보면 흐뭇한. 세상이 흥흥한지라 사랑방이 더 애뜻한 요즘, 웬지 사랑방이 하는 일은 무슨 일이 됐든 응원하고픈 마음이 있네요. 가끔 새벽 두세 시에 올라오는 사랑방 공지 글들을 보면 든든하면서도 걱정이 돼요. 지금까지 걸어온 길보다 앞으로 걸어갈 길이 더 많을 사랑방이기에 지치지 않길 바랍니다. 20주년 행사 끝나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폭취시길...ㅎ

사랑방을 사랑해 마지않는 뽕뽕 _ 벌써 어느덧 8년째...라는 말을 달고 사는 듯. 많이 달라졌고...그럽기도 하고...힘들기도 했고...보고 싶습니다. 그대...!!

홍차 _ 제게는 '활동'을 처음 시작한 보금자리였고, 힘들 때에는 더욱더 따뜻한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었던 사랑방! 20주년 축하합니다! 다시 건강해져서 사랑방이랑 계속 오래도록 활동하고 싶네요. 언제나 감사하고 사랑해요. ㅎㅎ

시원한 바람을 좋아하는 수아 _ 삶이 흔들릴 때 사랑방에 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준 _ 축하합니다!

자유로운 영혼 _ 십여 년이 넘게 무심히 지켜만 봤던 사랑방이 스무 살 성년이 되었네요. 건강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이 사회를 보듬는 사랑방. 오래오래 소외된 이의 말에 귀 기울여 주고, 맞장구 쳐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사랑방처럼 가을에 생일이 있는 영섭 _ 인권운동사랑방 하면 대학생 시절부터 이름을 들었고, 심지어 그 당시에 학생회시절부터 교육도 초청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몇 년도였을까요. 95년? 96년? 누가 강사로 오셨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인권이란 무엇인지를 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돌멩이를 주워 오라고 해서 같은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하면서 돌멩이 하나도 다 다르고 개성이 있는데 인간은 오죽하겠냐는 식으로 인권에 접근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 사회에 나와서 사회운동에 몸담으면서 사랑방은 항상 '인권운동의 전위투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망설임 없이 운동의 전선에 섰습니다. 추운 겨울의 농성이며 각종 이슈들에 대해 활동가들이 연행을 각오하고 행한 기습시위들이며 군대에 맞섰던 평택대추리 투쟁이며, 함께한 기억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참 사회운동포럼도 함께 준비하고, 개최했지요. 매일 밤 팩스로 들어오던 <인권하루소식>은 인권운동의 등불과도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용산에서, 쌍용차에서 어디든 인간의 권리, 노동자의 권리가 야만적으로 희생되는 시공간에 사랑방은 그 노동자 민중들과 한 몸이 되었지요. 어느새 20년이 되었다지요. 성년이 되는 동안 고민과 활동의 폭은 넓어지고 깊어 또한 깊어졌습니다. 9월 28일에 그 20주년을 마주한다고 생각하니 약간은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모습으로 운동의 새로움과 세월을 우려낸 공력을 보여 주실 지요. ㅎㅎ 암튼 가을밤에 인권과 노동권의 비틀거리는 현장을 지키고 살아낸 사랑방을 만나고 싶습니다. 스무 번째 생일을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내 마음속 든든한 큰 나무로 삼고 있는 나영 _ 아직 고가가 있던 시절의 혜화동. 담배에 썬 냄새가 가득한 칙칙한 계단을 올라가면 온갖 책과 물품들로 가득 찬 인권운동사랑방 사무실이 있던 그곳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고등학교 때 처음 그곳에 갔었던 것 같고, 이후 내내 어떤 곳에서든 가장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모습으로 투쟁하는 사람들, 내쫓긴 사람들, 배제당한 사람들과 함께 싸우는 사랑방 활동가들의 모습을 보며 늘 내 모습을 반추해 보고는 했습니다. 나에게 인권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눈을 뜨게 해 준 곳, 고등학교이던 내가 처음 만났던 그때부터 함께 활동하고 있는 지금까지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들은 내 마음속 활동의 기준이자 늘 든든한 큰 나무입니다. 사랑해요!)

1년간 맑고생만 시킨 용옥 _ 1년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같은 시간들. 두물머리부터 엮티. 그리고 많은 활동을 사랑방에서 배웠습니다. 감탄하고 또는 웃고 울고 실망도 하고 1년이지 만 10년을 지낸 것 같습니다. 20주년을 맞은 사랑방에 어떤 인사를 해야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바람에 꺾이지 않는 갈대처럼, 때로는 바람이 되어 자유로운 활동으로 사회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30주년 기념에 또 글을 남길 수 있다면 그때는 좀 더 개그스러운 글을 남기고 싶습니다. 20주년 축하합니다.

이재영 _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방 활동가들의 환한 웃음과 진지한 모습이 기억에 많이 남네요. 앞으로 노동권이 탄압받는 현장에서 더욱더 많이 보고 싶습니다. 아자! 사랑방!

같은 동네 아랫마을에 사는 동성애자 병권 _ <레드헌트>라는 다큐를 보면서 인권운동사랑방을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동성애자인권연대라는 곳에서 함께하면서 사랑방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게 되고 거리에서, 회의 공간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대학로에서 총정로 그리고 홍대까지 어찌 보면 지적에 두고 서로의 활동을 지지하고 때론 의지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그러했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 힘내시길 응원합니다! 스무 살이 된 인권운동사랑방!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근력운동에 푹 빠져 사는 일숙 _ 근력운동을 적극 추천합니다. 다시 뛰기 위해, 정진하기 위해, 더 잘 싸우기 위해 튼나는 대로 운동하셔서 정신력도 체력도 키웁시다. ㅋㅋ 나 먼저 지쳐서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하. 활동가들의 평균연령이 높아지니 안 하던 걱정을 다합니다. 우리는 이제 산 고개 두개 정도만 넘었을 뿐, 아직 고지가 멀어요. 힘 냅시다.

현민 _ 2003년인가 사랑방이 대학로에 있던 때 사회복지 실습을 하고 이어서 자원 활동을 했던 게 처음이지 싶네요. 2010년 병역거부로 수감되어 있던 때 사랑방의 우편물을 꾸준히 받아봤던 기억도 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라 하기엔 멋쩍은 처지지만 오며가며 인연이 겹치곤 했던 사람으로서, 인권운동사랑방의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윤정 _ 대학교 시절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아주 짧은 시간 함께 했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한 인권운동사랑방. 아직도 저는 그 시절의 제가 그림고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추억을 잊지 못합니다. 생업으로 멀어지긴 했지만 제게 인권에 대하여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고 알게 해 준 인권운동사랑방이 다시 시작하는 것에 축하 인사를 보냅니다.

제천에서 풀피리 _ 결혼 전, 근무하던 사무실에 매일 아침 팩스로 들어오던 〈인권하루소식〉. 그러니까 그게 벌써 20년 전이라구요? 그러니까 곧 제 결혼 20주년이 다가오고 있다는 말이군요?ㅋㅋ 2년 주기로 직업을 바꾸는 제게는 너무도 낮은 숫자! 20.우리 모두의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우리 옛이야기하면서 다시 떠나 보자구요!!!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나루 _ 한국을 떠나 있는 동안, 피부색과 언어와 법적 체류 신분 등의 이유로 편견이나 차별을 겪으면서 인권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권운동활동가들과 좀 더 깊이 대화하지 못했던 것, 그 많은 활동에 관심이 부족해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던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지금까지 20년,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멀리 있어 함께 하지 못하지만, 늘 힘을 주시는 인권운동사랑방을 응원합니다.

브라질에서 깽이는 _ 자기소개를 더 근사하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또 언제 이렇게 남길 기회가 있을까 싶어서 하하하. (그동안 사랑방과 함께하면서 짬도 안 났거니와 그럴 생각도 별로 없었다고 하면 소개만큼이나 헛웃음을 유발할 것 같지만) 더운 나라로 알고 왔는데 생각보다 일교차가 심해요. 지금 여기는 겨울이라고는 하지만, 난방이 전혀 안 돼 집에서는 오히려 잠바를 입고 정작 밖에서는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녀도 별로 춥지 않아요. 옷차림이 정말 신기하답니다. 두꺼운 잠바에서 가디건, 민소매 티셔츠까지 사계절 옷이 한날한시 같은 거리를 확보하는데 사람들의 피부색만큼이나 다양합니다. 처음 브라질 상파울루에 대해 들었던 말이 "인종 차별이 없는 도시 1위"라는 말이었어요. 아직 두 달도 안 되어서인지 저 말이 절절 느껴지지는 않지만, 동성 커플이 꽤나 공개적이고 자유롭게 다니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피부색이 정말 다양하고 그에 상관없이 말을 걸고 물어보는 걸 보면(우리는 적어도 외국인에게 길을 묻지는 않잖아요. ㅋ), 길이나 공원에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든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들을 보면, 적어도 다름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생각이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사계절 옷차림 길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한국은 겨울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니면 모두들 쳐다볼 텐데 말이죠. 하여튼 요즘 다름/다름에 대한 존중에 대해 생각해 보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많은 '다름'을 보여 주고, 수많은 '다름'을 어떻게 봐야 할 지 같이 고민하고, 내 안의 갖가지 '다름'에 대해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준 곳이 인권운동사랑방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스무 해라니. 문득 사랑방이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ㅋ ㅋ ㅋ 내 이십대를 떠올리면 단연 인권운동사랑방. 시간이 갈수록 매우 자랑스러워요. 여전히 치열하고 밥이 맛있는 인권운동사랑방. 어디서든 응원합니다. 그리고 어디서든 연락할게 ㅋ ㅋ ㅋ 아! 스무 살 사랑방 축하해요! 영원히 '스무 살'이길!

토론토에서 꼬물꼬물, 한인성소수자네트워크 한큐 HanQ _ 안녕하세요, 저희는 Korean Queer Network HanQ입니다. 늘 응원하고 있어요.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인권운동사랑방의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귀에 쏙쏙 박히는 목소리를 가진 개굴(배경내) _ 인권운동사랑방을 만난 건 1996년이였다. 인권에 대한 관심으로 친구들과 함께 찾아간 용산의 비뚜름한 사무실에서 류은숙은 싸늘하게 우리를 맞았다. 왜 이리 대책 없이 찾아와 바쁜 사람 성가시게 하느냐는 투였다. 빈정이 상해서 여기를 꼭 다시 찾아오고야 말겠다 생각했다. 그리고 자원활동을 거쳐 98년 당당하게 상임활동가로 입성했다. 음하하~ 돌아보니, 우리가 참 정리되지 않은 생각으로 대책 없이 찾아가긴 했었다. 류은숙 미안~

그때 이후 사랑방은 내게 시린 세월을 함께 이겨낸 거리의 침낭이었고, 흐리멍덩한 생각을 고쳐 잡아준 번개였으며, 함께 맞는 비였고, 함께 바람을 가른 유쾌한 자전거 같은 존재였다. 2008년 인권교육센터 들을 만들어 독립한 후에도 사랑방은 내 삶과 인권운동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사랑방은 늘 두려움 없이 할 말은 해 온 조직이었고, 인권의 원칙을 버리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쫓대가 오늘의 인권운동과 사랑방을 일궈 온 밑천이었다. 앞으로도 그리 정진하길.

아직도 인권이 어려운 노동당 정책위원회 의장 윤현식(행인) _ 20년이라니... 그건 사랑방의 역사이자 한국 인권 발전의 역사였죠. 사랑방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는 반드시 그때 그 활동가들이 있더군요. 그분들을 뵈 때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방을 통해 세상을 밝히고 있는 분들을 뵈 때마다 언제나 부끄럽고 고맙습니다. 사랑방을 통해 인권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흔들릴 때마다 사랑방의 도움으로 인권에 대한 생각을 보듬습니다. 그래도 아직 인권이라는 말이 어렵고 뜻이 어렵고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랑방이 해야 할 일은 많고 활동가들은 내내 바쁜 것 같습니다. 부침의 세월 동안 힘들고 지칠 만도 한데 언제나 오뎅하게 일어나 세상을 향해 큰 고함을 내지르는 사랑방이 대단해 보입니다. 인권운동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져야 할 운동일 테지만, 그런데 더 많은 일이 생기는 건 그만큼 인권의 내용이라는 것이 아직도 미완이고 더 채워져야 할 것이 있기 때문이겠죠.

사랑방이 그래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사랑방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하게 될 그날까지 건강하게 함께 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모든 사랑방의 사람들, 사랑합니다.

한때 사랑방을 좀 드나들었던 박하순 _ 20년씩이나 유지하시다니 무척 고생하셨습니다. 한국 인권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이었겠죠. 더욱 힘내서 인권 사회를 앞당겨 주세요!

인권운동사랑방을 언제나 지지하는 문경란 _ 20년간 힘든 일, 큰 일, 소중한 일,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사랑방'이 더 많은 사람이 함께하는 '인권동네 운동장'이 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일현 _ *Assidua stilla saxum excavat*(쉽 없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격언처럼 온누리에 물방울을 계속 뿌려 주는 사랑방이 저항하는 바위에 구멍을 뚫게 되기를.

벗 도연 _ 사랑방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혼자 취재 갔던, 그 모습 기억이 잊히지 않아요. 사랑방은, 의도하지 않은 단독을 참 많이 주던 곳이었죠. ㅋㅋ 농이고요, 인권이 부재한 곳은 늘 사랑방 활동가들이 지키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생필품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제게 수건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어요. 그날부터 우리 집에도 인권이 꽃피었달까. ㅋ 언론의 조명이 있든 없든 그 이상의 몫을 하고 계신 활동가분들이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면 빨줄하긴 하지만,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옥수수를 좋아하는 옥수수 _ 안녕하세요. 잠깐 자원활동가로 활동했던 옥수수입니다. 가정을 가지고 먼 곳에서 살다 보니 활동을 못하게 되어 아쉬운데요, 그래도 귀한 가치를 지키고 자 노력하는 모습들에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에서도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 함께했던 술자리가 그립네요. 잘 지내세요. 응원합니다. 꼭 한번 찾아갈게요.^^

장래희망 있는 여자 림보 _ 대학 때 학생회로 배달오던 등사된 소식지 우편물이 기억나네요. ~ 그땐 눈앞에 있어도 잘 읽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찾아 읽느라 참 고생하는 중입니다. 쉽지 않은 20년, 존경합니다.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변태하기를 과업으로 삼은 타리 _ 2002년쯤, 소위 소수자여성운동이 인권운동과 마주치기 시작했을 때 인권운동사랑방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무나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운동을 해 나가는 시각과 방법에 대한 경계를 계속 변화시키고 함께 이야기하고 도모해 볼 수 있는 파트너였지요. 사랑방은 나를, 우리를 "아는 이들"이에요. 여기엔 사랑방 사람들이나, 우리이기도 하고, 같이 무언가를 하는 이들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우리 자체인 것은 아니니까요. 나, 우리는 자꾸 변하기도 하고 의미 있는 타인들도 나와 우리에게 필요하니까요. 2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사랑방이 "아는 이들"을 자처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사랑하고 응원합니다!

사랑방 가까운 친구 박진 _ 다산인권센터는 인권운동사랑방 가까운 친구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 사랑방의 스무 살을 축하합니다. 나이 먹는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또 있을까 싶어 난망할 때가 참 많지만, 운동단체가 나이를 무력무력 먹는 건 축하할 일이에요. 까다롭고 진지해서 때로는 아, 씨 빨리 빨리 결정 좀 하지 싶은 내 친구 인권운동사랑방은요, 또한 그래서 늘 든직한 친구입니다.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그대들로 인해, 내 하루가 늘 싹짓돈으로 가득 찬 기분이란 걸 아실랑가. 사랑방, 더 깊은 시선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쫓, 정말로 쫓 관찮은 곳으로 만들어 봅시다. 근데 좀 빨랑빨랑 가야 할 때는 빨랑빨랑 가자요~ ㅎㅎ 우리 서로 느낌 아니까~ 깊이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 옆집 아줌마 드림.

사랑방 활동을 할까 고민했던 채민 _ 20년이라니... 20년이라니... 아마 많은 사람이 깜놀할 것 같습니다. 그 시간 동안 사랑방이 때로는 등대로 때로는 버팀목으로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방이 그만큼 많은 발자국을 남기며 인권을 위한 길을 걸어온 거겠죠?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게 좀 안습하지만^^; 그 길, 같이 가요.~

푸근한 쌀집아저씨 최일배 _ 남녀평등보다 남성 우월주의적 성향이 강했었습니다. 특히 성소수자 문제는 부정적 시선으로 바라봤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권 활동가 동지들을 만나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나마 활동가 동지들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지합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진보네트워크센터 _ 언제나 치열하게 진보적 인권운동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 온 인권운동사랑방의 모든 활동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20년 인권운동사랑방은 정보인권의 오랜 동지였습니다. 1996년 인터넷 검열 반대 운동을 가장 먼저 격려했고, 2000년 외롭던 인터넷 등급제 반대 운동을 지지했고, 2003년 NEIS 반대운동에 단식으로 동참했었죠. 앞으로 20년도 낫설고 소외된 인권 문제와 함께 싸우는 사랑방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일꾼 이남신 _ 20년. 한 단체가 이런 족적을 남기기가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그 느낌 조금은 아니까요. 참 대단합니다. 격동의 시간을 헤쳐 인권의 파수꾼이자 그루터기로 자리해 온 사랑방 동지들이 부럽고 고맙습니다. 사랑방의 선도적 문제의식과 치열한 실천이 없었다면 이 땅에 노동인권이 지금처럼 회자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거나 먼 훗날의 일이 됐겠죠. 사람 좋은 천상 인권운동가 래군 형, 나이를 뛰어넘어 진짜 친구가 돼 준 개굴(배경내), 인권이 얼마나 진지하면서 신나는 것인지 멋진 노래공연으로 보여 준 미류.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장에 늘 불박이로 함께한 명숙 등 면면을 떠올리면 그래 이

게 사랑방이지 맘속 환한 등불 켜집니다. 신자유주의 1천만 비정규노동 체제로 인권지수가 하강곡선으로 치달리는 천박한 한국 사회에서 오랜 세월 사랑방의 고단한 여정만큼 다시 걸어가야 할 장도가 만만찮습니다. 20년을 지켜온 그 정신과 열정으로 우리 사회가 인권공화국으로 뒤희날 때까지, 아니 그 이후까지 끝없는 자기 혁신이 불가피한 인권운동의 숙명을 기꺼워하며 인권의 신작로를 잘 개척해 가리라 믿습니다. 나 같은 어쭙잖은 사람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너무 빠리는 말고 좀 쉬엄쉬엄. 그리고 이참에 사랑방 동지들의 일하는 여건과 복지 등 노동인권도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박찬 동지애로 응원하며 피땀으로 일궈 온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자!^^

세상을 다시 보고 있는 영이(연분홍치마 한영희) _ 20주년 정말 축하드립니다. 인권이란 이름의 지평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다져 나가면서 그 이름에 걸맞게 20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 매진해왔던 시간들 속에서 지금의 인권운동사랑방이 놀라운 공력으로 우뚝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나 보면 반갑고, 늘 자극을 주며, 본받고 싶은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들. 그 면면들을 지금처럼 항상 지켜 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보다 늘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인권운동사랑방! 언제나처럼 응원하겠습니다.

중고자유정책연구원 _ 20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한 시간이네요. 20년을 한결같이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쫓아보고 인권의 증진이라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흐름에 앞장서 온 것에 존경과 그간의 노고에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이웃으로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진보연대 이승하 _ '인권'도 좋고 '운동'도 좋고 '사랑방'도 좋은데 이 모두가 다 있는 인권운동사랑방!! 스무 살 생일을 축하드려요! 거꾸로 돌아가는 이 따분한 세상에서 함께 열심히 싸우는 벗들이 있어서 참말로 다행입니다. 더 힘이 되는 우리가 되길!

모두가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시민건강증진연구소 _ 벌써 20주년이 되었네요.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계신 활동가분들께 박수와 응원, 지지를 보냅니다. 20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늘 우리 사회 인권 수호 현장에서 함께하기를. 화이팅!!!

시멘트 40킬로그램을 들고 계단 올라가는 것을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장수마을 집수리 마을기업 동네목수 총무 배정하 _ 그간 장수마을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의 민선 활동가 덕분에 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해 더 친근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매일 인권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지가 무척이나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의 권리도 중요한 만큼 남의 권리

도 같이 보고 간다는 것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삶과 실천을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이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 데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신 사랑방 활동가분들의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에서 동네에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인권적 관점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금 인권운동사랑방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의 이런 마음은 장수마을 동네목수에서 같이 일하는 모든 분도 같다는 것이고요. 민선샘 조만간 한번 봐요.^^

행복한 프로그래머 박진호 _ 20주년을 격하게 축하드립니다. 사랑방은 차별이 없습니다. 만남이 있습니다. 나눔이 있습니다. 함께해준 사랑방지기들은 모두의 친구입니다. 언제나 어깨동무하며 함께해요.

제주평화인권센터 홍기룡 _ 스무 살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해 대한문에서 농성촌을 같이 꾸리고 생활했던 3개월 가까운 기간은 어렵고 힘든 기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된 것은 아마도 여러 활동가도 있지만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과 함께해서 더욱 소중한 것 같습니다. 가끔 대한문 농성촌 천막 안에 사랑방 같은 분위기가 그림기도 합니다. 20년간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20년도 소중한 만남, 소중한 시간, 소중한 일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을 열렬히 응원합니다. 다시 한 번 스무 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사랑방을 사랑하는 태윤 _ 2001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연대회의를 통해 처음 사랑방을 만났으니 벌써 13년이 되었네요. 긴 시간 한결같은 모습으로 든든하게 있어 주어 참 고맙습니다. 저에게 사랑방은 항상 인권침해 현장에서 만날 수 있어 반가운, 아끼자끼한 발랄함과 치열함을 갖춘 친구이자 배울 점 많은 선배동지였던 것 같아요. 20년의 세월 잘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의 활동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꿈꾸는 소년 정을 _ 인권운동사랑방 10년을 기념하는 토론회 자리에 패널로 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인권운동 경력이 화려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 앞에서 좀~ 주눅 들어 있던 나 자신에 대한 기억은 있습니다. 이후로 10년이 흘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싸워 왔던 활동가들이 있었기에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을 함께 기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고 인권활동의 영감을 얻습니다. 20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난새 _ 20년이군요. 20년 전 분명 10대였을 텐데...이제 내일모레 마

흔이네요. ^^ 짧지 않은 시간이지요. 그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이 견뎌야했을 거친 비바람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이 방을 곳곳이 아름답게 지켜온 모든 활동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지합니다.

철폐연대 신순영 _ 스무 살 사랑방, 낯설고 생소한 인권이 '개나 소나' 떠드는 단어가 되기가 지나 긴긴 시간 한결같이 싸워 온 동지들께 존경을 보냅니다. 권력과 자본이 빼앗으려는 인권의 주어와 목적어를 지키는 싸움, 완전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철들지 않는 나잇값(?)을 기대하며... 잘 커 줘서 고마워요~~

노동자가 없으면 음악이 없고, 음악이 없으면 삶도 없다! 콜트콜텍 이인근 _ 인권운동 사랑방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활기찬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번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수영(경계를넘어) _ 이름만 들어도 든든한 인권운동사랑방의 20주년을 정말 축하드립니다. ♡ 작년에 강정인권침해보고서 함께 준비하면서 사랑방 사무실에서 활동가들이 지어 주는 밥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이 자리를 빌려 그 밥이 참 따뜻하고 맛있었다는 고백 전합니다. 보석 같은 사랑방 활동가분들, 아침점심저녁 딱딱 드시고 앞으로도 힘차게 달려 주세요. 특히 불나비 공연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좋아요의 아요 _ 인권운동연대 아요입니다. 인권활동가대회에서 처음으로 다른 지역 인권활동가들을 만나고, 인권운동사랑방도 알게 되었지요. 벌써 7년이네요. ^^ 기발한 아이디어, 참신한 내용 구성, 날카롭고 매서운 비판, 강직한 원칙, 따뜻한 격려, 배꼽 빠지는 유머 감각, 안드로메다의 영풍함, 한결같은 성실함...인권운동사랑방에 대한 저의 감상입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아랫목 이불 아래에서 손잡고 키득키득 웃음꽃 피어나는 사랑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놀러 갈게요~!

은맹 _ 먼저 20주년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처음 인권활동가가 되었을 때, 지난 <인권오름> 들을 하나하나 읽어 보고 생각해 보고 하는 게 하루 일과였어요. 그냥 웬지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 헤헤. 앞으로 20년도, 설레면서 기대할게요. 함께해요.

인권교육 한 길 가는 홍의표 _ 20주년 축하합니다. 10주년 행사가 엇그제 같은데 참 시간은 더딘 듯 빨리도 가네요. 문득 대학로 시절의 사랑방이 그리기도 합니다. 오랜 벗 같은 인권운

동사랑방이 앞으로 20년도 든든히 버텨 주시길 기대할게요.

보노보노 닳은 지은이 _ 가장 현장과 가깝게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을 참 좋아합니다. 20년의 시간 동안 참 힘들고 어려웠던 일도 많았지만, 지금까지 그래 왔던 것처럼 사람냄새 물씬 나는 인권운동사랑방으로 앞으로도 현장에서 함께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전 아주 잠시 자원 활동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지만, 매주 <인권오름> 읽어 보며, 사랑방 활동소식 들으며 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추신1. 그리고 보니 높은 언덕에 있는 사랑방, 눈이 많이 온 지난겨울 잘 나셨는지 갑자기 걱정이 되네요.ㅠㅠ 흘쩍

*추신2.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으로 놀러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_<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작은 것부터 바꿀 수 있다면 그게 무얼까 궁금해하는 Joon _ 안녕하세요. 올 초에 자원활동가가 되고 싶어 연락드리고 몇 번 찾아뵈는 것 빼고는 한 일이 없어 쑥스럽지만, 그럼에도 그때마다 활동하시는 분들의 열정과 겸손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들이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크게 티 나지 않는 일들, 하지만 세상의 변화를 위해 누군가 해야 하는 일들을 20년 동안 묵묵히 해 오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세상의 지도를 바꾸는 간척 사업에 오늘도 한 삽 뜨고 계시는 사랑방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삼선동 장수마을에서 일하고 있는 박학롱 _ 안녕하세요. 우와~ 인권운동사랑방이 벌써 20주년인가요? 철창이 처진 어두컴컴한 계단으로 올라가던 해화동 사무실이 벌써 20년이 지난 일인가 보네요. 지금 하고 있는 장수마을 일이나 마을 만들기 관련 활동의 계기가 됐던 주거권기획팀(주거권운동네트워크)도 2006년 즈음 해화동 사무실에서 모임을 했었죠. 미류도 그때 만났고, 그 뒤로도 이런저런 워크숍, 주점, 집회 등에서 사랑방활동가분들을 만났는데 창의적인 기획력과 거침없는 활동, 여러 장르를 섭렵하는 폭넓은 문화예술적 감성을 보고 참 많이 놀랐고 존경하게 됐어요. 충청로 사무실은 정들만 하니 이사를 갔지만, 민선이 주도했던 심야식당이 기억나네요. 가격을 너무 싸게 매겨서 망하려고 장사를 하나며 구박했는데.. 민선한테 죄송~^^;

지금의 흥대 사무실로 이사할 때 장수마을 목수 할아버지와 주방 문짝을 빼딱한 벽에 끼워 넣느라 대패로 깎아 가며 킁킁뚫던 기억이 나네요. 원래 방음이 잘되도록 접유리를 쓰려고 했는데 연세 많으신 할아버지께서 착각을 하시는 바람에 홀 유리를 끼울 수밖에 없었어요. 유리 값은 꽤 뺏겼지만 압튼 그것도 민선과 사랑방 식구들한테 죄송.~^^;

<인권오름> 소식지도 매번 받아 보는데 솔직히 저는 잘 안 읽는데, 마늘이 항상 꼼꼼하게 읽으면서 매번 같은 코멘트를 하네요. 내용이 참 좋은데, 더 많은 사람이 쉽게 읽을 수 있게 줄 입말을 좀 줄이면 좋겠다네요. ^^; 앗~!! 쓸데없이 주저리주저리 말이 길었네요.~ 그만큼 사랑방을 많이 사랑해서 그렇다고 이쁘게 봐 주세요.~^^

인권운동사랑방과 수줍게 만난 노동전선 _ 사회변혁을 꿈꾸며 노동현장에서 실천하고 투쟁하는 활동가 연대체인 노동전선과 인권운동사랑방의 인연! 용산투쟁, 비정규투쟁, 쌍용차투쟁...노동자민중 투쟁 현장에서 마치 인권의 수호신처럼 활동하는 인권운동사랑방 동지들. 그렇게 쌓인 신뢰 때문인지, 급기야 인터넷검열반대 국가보안법반대 공동법정투쟁까지 하는 인연으로 발전했지요. 기왕 한 배를 탔으니 앞으로 잘해 보자구요. 20년이나 되었다구요? 와~ 대단하십니다. 앞으로도 20년은 더 활동하여 이 땅을 '인권공화국'으로 만들어 주세요.

외계의 소멸을 꿈꾸는 외계인 _ 사랑방이 생길 때 멀리서 바라봤다. 10주년, 그 문을 두드렸다. 20주년, 곁에 사랑방이 있다. 그리고 30주년. 사랑방은 항상 그곳에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그대를 응원합니다.

매일이 처음처럼 어리버리한 새미 _ 사랑방 덕에 봐야 할 것을 보고, 들어야 할 것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면서도 소중한 일인지 느낍니다. 남겨진 메시지를 봐도 알듯이, 사랑방이 움직인 사람은 저 혼자 아니겠죠. 지난 20년 동안 넓은 사회의, 많은 사람의 앞길을 비춰 준 사랑방의 앞으로의 시간도 응원합니다.

김종희 _ 사랑해요. 자유권 사랑해요. 사랑 뽕!뽕!뽕! 충정로 중림동 시절 함께했던 기억들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모두 사랑해요. ♥

대구인권운동연대 서창호 _ 뭐랄까요? 한국인권운동에 넉넉한 그루터기의 역할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온전히 감당해야 할 역할과 그릇을 이제까지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먼 인권의 현실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이 걸어가야 할 길은 너무 멀지만, 저희 대구인권운동연대도 부족하지만 늘 함께하겠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수나로의 희망인 희망 _ 사랑방의 창립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인권운동의 사랑방이 되길 바랍니다.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 콜렉 김경봉 _ 사람들은 누구나 인권을 얘기하지만 정작 권력의 탄압에 인권이란 단어는 간데없지요. 그러나 확실히 보았습니다. 인권활동가들의 당당하면서도 거침없는 외침에 부당한 공권력도 뒷걸음질하는 것을. 그 모습에서 저 역시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가 인권을 스스로 지키는 그날을 바라며 인권운동사랑방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Herzenuntenlinks 이견민 _ 대학생 때 인권운동사랑방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군 휴가 때 예고 없이 방문하여 이런저런 질문과 고민을 털어놓았던 기억도 나네요. 지금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미력하나마 제가 함께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있습니다. 2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귀여운 아기곰을 좋아하는 고무곰돌 _ 삶의 기본적인 가치가 조금씩 대중들의 머릿속, 가슴 속에서 사라져 가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인권의 길을 밝혀 온 사랑방 식구들을 알게 된 게 어느덧 10년이나 되었네요. 진정한 진리는 새가 종력을 뚫고 하늘 높이 난다는 데 있다는 말처럼 참된 인간적 삶을 위해 어려움을 헤쳐 온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비록 같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으나 항상 여러분의 노력과 땀을 마음에 새기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겠습니다.

별을 좋아한 늑대 _ 인권운동사랑방이 20년이 되었다니...뭘랄까... 좀 슬프네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대학원 때 인권운동사랑방을 처음 알게 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후원을 시작했는데... 아직 그때로부터 우리 사회는 많이 나아가지 못한 느낌입니다. 인권운동이 사회운동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을 항상 응원합니다.

숨 고르는 중인 시소 _ 1999년 겨울 처음 찾아간 사랑방에서 얻어먹은 밥이 너무 맛있었던 바람에 그 뒤로 한참을 사랑방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더랬지요. 같이 뭔가 모의할 땐 '나 참 잘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으쓱했어요. 앞으로도 꼭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 있다는 느낌'을 주는 곳이 될 거라 믿어요. 고마워요. 사랑방!

루카스 _ 우선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사랑방에 발을 들인 지 이제 1년도 안 되는 새내기지만 저에게는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알 수 있게 큰 도움을 주는 매개체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만의 대안과 해법을 찾아 대처해 나가는 활동가들 모습을 보면 절로 힘이 납니다. 저에게 연대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만든 사랑방.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솔 _ 처음에 부끄러운 마음 반, 설레는 마음 반을 안고 사랑방 문을 두드렸던 게 생각나네요. 작은 방에 모여서 커다란 무언가를 항상 만들어 내는 활력과 열정이 사랑방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결과의 성공에만 연연하지 않고 관심 분야에 대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사랑방! 20주년 축하해요.

웅크린 명수 _ 사랑방의 스무 살, 축하합니다.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향해 즐겁고 발랄하고 단호하게 나아가던 모습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할게요.~ 사랑방은... 느낌 아니까~!

다큐 만드는 푸른영상 _ 낮은 자리를 지켜 온 사랑방 20주년을 축하드려요. 매년 현장에서 뵈 때마다 인사는 못 드렸지만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 주신 걸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평화가 깃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자아자!

노동자연대 다함께 _ 인권운동사랑방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한결같았던 인권운동사랑방이 있었기에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상 표현의 자유조차 제대로 용인되지 않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굳건하게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성장을 위해 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 단체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권투를 시작한 꺼비 _ 청소노동자들의 든든한 사랑방, 사랑방의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10년부터 시작된 따뜻한 밥 한 끼의 권리 캠페인, 그리고 청소노동자 행진에 언제나 성실함과 날카로운 고민과 신선한 제안으로 함께했던 사랑방을 기억합니다. 앞으로도 청소 노동자를 비롯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한 투쟁에 든든한 사랑방으로 함께하길 기대합니다.

어제 술이 안 깨는 사회진보연대 회원 기형 _ 99년 가입한 인권 동아리, '인권의 정치, 사람 세상'의 대외 사업을 전담하며 사랑방과 첫 인연을 맺었군요. 그 인연이 대학생 인권캠프 등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어졌구요. 그리고 보니 2003년 3월에는 <인권하루소식>에 등장하기도. ㅎㅎ 사랑방이 지난 20년 동안 일궈 낸 성취가 한편으로 자랑스럽고 멋집니다만, 빨랑 인권 문제가 모조리 해결되어 사랑방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20세 생일 축하해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_ 20주년 축하합니다. 불의에 맞서고 약자와 연대하는 우리 힘이 단단해져 인간이 착취 받지 않고 더는 '인권'을 말하지 않아도 '사랑방'이 없어도 되는 좋은 세

상을 꿈꿉니다. 건강한 노동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기륭전자분회 _ 인권운동사랑방 동지들의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년을 한결같이 소외된 사람들 편에 서서 반노동, 반인권에 맞서 저항하며 세상을 바꾸어 온 인권운동사랑방 동지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어 갈 인권운동사랑방도 지금처럼 소외된 사람들의 인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며 더불어 사는 세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 기륭분회도 인권운동사랑방과 함께 모여 손잡고 행동하겠습니다.

사랑방에 빛지고 있는 이장규 _ 사랑방이 어언 20주년이 되었네요. 사랑방 초기부터 후원했으니까 제가 후원한지도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어 줘서 고마워요. ㅋ 한때는 사랑방 같은 단체가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설사 우리가 바라는 좋은 세상이 온다고 해도, 그 세상에서도 또 다른 관점에서의 인권이 제기될 테니 인권의 지속적인 확장을 위해 사랑방은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기를 바라요.^^

하나만 더^^. 인권은 타인과 동떨어진 개인의 권리가 아님을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모든 권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며, 인권은 사실은 타인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생각해요.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서로에게 빛지고 있다는 사회적 인식 없는 자신만의 권리 주장은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도 크지요. 물론 그간 잘해 오셨듯이, 앞으로도 잘 하실 겁니다만.^^ 저 역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사랑방의 활동에 많이 빛지고 있고, 사랑방 또한 저에게 빛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극히 작지만 ㅋㅋ. 우리 서로 빛지고 있음을 잊지 말기로 해요. 고마워요.^^

나 혼자 10년지기 진령 _ 살면서 함께 꿈을 꿀 수 있는 인연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일 테지요. 어깨 너머로 사랑방이라는 단체를 알고 지낸 시간이 제게도 10년, 제게는 사랑방이 그 쉽지 않은 소중한 인연입니다. 웬지 사랑방이 살아온 시간 절반을 함께한 것 같은 느낌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날, 앞으로도 그 시간들을 더욱 가까이서 함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에 더욱 마음이 기쁩니다. 늘 나를 꿈꾸게 하고 더 많은 꿈을 함께하고 싶다는 기대와 설렘을 주는 동지들에게, 작지만 제가 가진 모든 사랑과 행복과 용기를 드려요.~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_ 철폐연대에게 사랑방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늘 응원해 주는 소중한 동지들입니다. 불안정 노동자들을 만나고 조직하고 함께 투쟁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만이 아니라 삶 속으로 들어가 함께 아파하고 기뻐하고 울고 웃던 시간들. 그 시간들이 다만 짝

팍하지 않았던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바라보고 시선을 열어 주는 사랑방 동지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20주년, 지나온 시간보다 더 많은 날을 든든히 지켜 주는 동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들이 힘겨울 때, 철폐연대 동지들이 늘 옆에 있을 겁니다. 함께 손 꼭 잡고, 같은 발걸음으로 걸어요, 우리^^

영롱 _ 벌써 20주년이네요! 영화제 자원활동가로 인연을 맺어, 반차별팀, 여성주의 소모임 등의 활동으로 여러 주제와 좋은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던 사랑방은 저에게도 뜻 깊고 소중한 공간입니다. 인권운동의 내용과 구호뿐 아니라, 조직이 커지게 되면 첫 마음을 잃고 변하기 쉽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계하며, 실천하고자 하는 모습에서 엿보이는 이 공간을 둘러싼 운영과 조직으로서의 치열한 고민이, 사랑방이 20년간 뿌리내리는 시간을 만들어 왔으리라 짐작합니다. 요즘 전 바쁘다는 핑계 대기에 가장 바쁘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사랑방 활동가와 친구들에 대한 애정과 존경이 있답니다. 앞으로 더 굳건하고 즐거운 인권 활동의 공간으로 남아주세요. 단, 점점 사랑방이 덜 바빠지고, 그 바쁨이 인권 활동의 고단함과 좌절보다는 함께하는 즐거움과 '인권 사회'의 바쁨으로 변화해 갈 수 있길 바라면서요!

저널리스트 조이어울 _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알게 된 인권운동사랑방. 20년의 역사를 돌아볼 수 있는 날이 와서 기쁩니다. 의지할 데 없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는 곳, 인권운동사랑방이 여전히 그런 사랑방이어서 좋습니다. 그와 동시에, 많이 변화해 온 모습이 좋습니다.

노들야학 맹희 _ 노들야학도 올해 만 스무 살의 생일을 보냅니다. 성인을 부쩍 넘긴 그 나이, 앞날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아직도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사실 내색하지는 않았지만 어찌면 우리는 그 불안 속에서도 지금, 현재에 있음을 설레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혜화동 사무실에서 함께 지냈던 인권운동사랑방과 노들장애인야학의 인연의 맺음이 켜켜이 쌓여 가는 세월만큼이나 우리의 관계도 단단해졌으면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스무 살을 축하합니다. 나는 동지들이 좋습니다.

사회진보연대인천지부 한재영 _ 이 땅의 인권을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 나가시길 빕니다. 화이팅!

빈곤철폐를 위한 더 강력한 사회연대를 만들고픈 빈곤사회연대 _ 20주년 축하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위해 항상 함께해 온 사랑방은 빈곤사회연대의 오랜 친구입니다. 앞으로로도 가난이 이 땅에서 썩 물러날 수 있도록, 가난 때문에 죽어 가는 이들이 없도록, 가난하

다는 이유로 쫓겨나고 내몰리는 이들이 없도록 늘 함께 싸웁시다. 앞으로도 사랑방과 함께할 시간과 함께 실천해 갈 것들이 더욱 기대됩니다. 20년 축하합니다!

이현아 _ 20주년 축하드립니다.^^ 어설플 자원활동가였던 저를 사랑방에 갈 때마다, 그리고 현장 여기저기에서 만날 때마다 반갑게 대해 주셔서 늘 고마웠어요. 현장 곳곳에서 늘 함께하는 사랑방 활동가들의 모습과 많은 글을 통해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에게 사랑방은 너무나 귀한 인연이에요. 앞으로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존재만으로도 든든한 사랑방, 생일 축하해요!!♥ (명숙, 민선 고맙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성년을 축하하며 새사회연대 공동대표 신수경 _ 20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1990년대 우리 단체의 자료와 사진들 곳곳에서 인권운동사랑방을 만납니다. 인권운동이라는 길에서 부대끼고 일하며 같이 걸어 온 인연이 이렇게 오래일 수 있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하기에 새삼스럽게 반갑고 힘이 되더군요. 오늘도 내일도 그 길에서 함께하자는 약속으로 격려와 연대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모두가 인간으로 존중받으며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위해 앞으로도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늘고 길게 살고 싶은 문순 _ 장애인단체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93년, 인권운동사랑방을 만났죠. 그때 서준식 님, 심보선님을 자주 보았던 것 같네요. 팩스로 매일 보는 <인권하루소식>은 '장애'에만 관심을 두던 제가 외유하는 유일한 소식지였습니다. 이 신문을 보면서 <목소리 높여>라는 장애인인권 신문을 만들어 팩스로 배포하기도 했었죠. 인권운동사랑방은 저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10여년 쉬었다 복귀하고 보니, 지금 이 순간 사랑방과 함께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벅합니다!!

평화박물관 조은 _ 인권운동사랑방에 많은 빛을 지고 있다. 사랑방이 해 온 활동을 지켜보며, 사랑방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영감과 자극을 받았고, 어떻게 바라보고 행동해야 하는지 배웠다. 지치고 약해질 때, 친구이자 동료인 사랑방 활동가들을 떠올리면 이내 마음이 든든해진다. 존재만으로도 분명 나에게 큰 위안이 된다. 20주년을 맞아 더할 수 없이 고마운 마음과 격하게 축하하는 마음을 송송송, 송소로송송~ 보낸다.

덩야핑(팔레스타인평화연대) _ 처음 인권이 뭔지 찾아볼 때 사랑방의 <인권하루소식>을 많이 읽었었어요. 사랑방 논평을 가지고 다른 애들이랑 논쟁하기도 하고... 지금도 현장에서,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것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성노동자가 모여서 만든 전국여성노동조합 _ 인권은 공기와도 같습니다. 무엇보다 여성 노동자들에게 인권은 일할 권리와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줄 알았던 차별을 말할 수 있게 하는 힘. 인간답게, 존중받으며 노동할 수 있게 하는 힘. 여성, 노동자일 수 있게 하는 힘. 이것이 인권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인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현장에서 늘 함께였던 인권운동사랑방, 기꺼이 노동자들의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던 20년을 축하드립니다.

받으게 참 많아 고마워하는 박이경 _ 인권운동사랑방은 내게 참 고마운 곳입니다. 사랑방은 참 가깝습니다. 성소수자 인권단체 활동을 하는 저에게, 우리가 다른 운동을 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되지 않는 그런 가까운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랑방은 정말 같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게 참 고맙고 좋습니다.

사랑방은 참 편합니다. 손 내밀기 참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아무거나 물어봐도 자기 일인 것처럼 대하고, 실제로 같이하게 되는 것들도 많습니다. 인권이 이런 거다 싶었습니다.

사랑방은 참 날카롭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참고하는 인권 자료는 예전에는 <인권하루소식>, 지금은 <인권오름>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날카롭게 사회를 비려 주는 소식지가 이것입니다. <인권하루소식>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진실을 매일매일 팩스 한 장으로 전송해 주었고, <인권오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인권에 대한 여러 이야기가 올라옵니다. 종종 제 마음도 날카로이 후벼 팝니다.

사랑방을 믿습니다. 20년은 생각보다 긴 시간이겠지요. 사랑방, 당신의 안주하지 않는 흔들림을 믿습니다. 당신이 택한 회동의 장소인 이 거리에서 언제나 회동을 꿈꾸는 당신을 맞이 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당신에게 받은 것이 참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이 동사이길 바라는 몽 _ 언제나 활동의 '영역'을 넘어서기를 제안하는, 몸을 쓰는 일과 마음을 쓰는 일이 다르지 않은 것임을 일깨워 주는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 덕분에 저 역시 경계를 넘는 다른 지평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함께하고 있다는 것에 늘 마음의 위안을 얻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20주년 정말 축하하고, 함께 이 시간을 맞이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전국철거민연합 _ 안녕하십니까? 사회적인 약자이며 개발 지구 가난한 서민들이 모여 현실적인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철거민들의 단체 전국철거민연합입니다. 일반 국민들에게는 개발 지구에 만연했던 투기와 비리 폭력은 이상한 것이 아니었고, 자본가 정권과 용역 깡패들의 살인적인 인권 유린과 폭력 앞에 무식하고 폐쇄는 존재로 기억되었던 철거민들의 울분과 아픔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지구의 잔인무도한 만행들은 필연적으로 용산 학살 만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개발 지구의 왜곡된 진실과 현실을 그나마 바로 세우게 된 계기가 용산 참사란 끔찍한 현실 앞에서였습니다. 용산 참사는 참으로 많은 사람을 절망하게 하고 평생 상처로, 장애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용산참사 중심에서 철거민들의 인권 유린과 자본의 폭력에 대해 폭로하여 철거민들이 운명처럼 숙명처럼 좌절하고 절망하며 포기했던 인권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꼭꼭 걸어 잠가 둔 마음의 문을 열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식의 '투쟁만이 살길이다'를 가슴에 아로 새긴 세월을 반추해 보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때라는 것도 인지하게 됩니다. 아직 철거민들은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고, 인권운동사랑방의 열정적인 앞으로의 활동들이 철거민들의 생각을 바꾸고 좀 더 세상이 살만하다는 희망을 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개발지구 철거민들의 기본권인 주거권과 생존권이 유린당하는 만행이 없어지도록 깊은 관심을 바랍니다.

- 주거권은, 생존권은 인권이다!!

- 인간 기본권이 인권이다!!

쓰러짐이 좋은 토리 _ 사랑방이 20주년이라니요, 그동안 사랑방 활동가들의 일찬 활동에 비하면 20년의 시간은 참 짧았네요, 사랑방에 대한 저의 느낌은 '열린, 역동적인, 하지만 차분한, 더불어 진지한'입니다. 20주년을 맞아 요런 이야기 창을 만들어 주신 것도 사랑방답고 반갑습니다. 이제야 애정을 고백해 보네요, 자주 뵙진 못하지만 오래 뵙고 싶습니다. 사랑방활동가들이 즐겁기를, 여기 모인 우리의 인권운동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대체로~맛나게 먹는 만나다 _ 전부터 들었던 느낌이랄까? 뭔가 믿고 싶고 믿음이 가고 그래서 든든한 대나무 숲 같아요. 대나무의 깨끗함과 청아함. 그리고 유연함까지~~~ 대나무 죽통술이 생각나네요. ㅎㅎ

이계삼 _ 밀양 송전탑 싸움에 2년째 묶여 있는 나는 지금 스스로를 활동가로 규정하고 있다. 세상에나, 이런 겁쟁이가 스스로를 활동가로 부르다니. 가망 없어 보이고, 언제나 패배하기만 하는 싸움들에, 자본과 공권력, 제도권 정치의 높은 벽 앞에서 발 동동 구르는 일이 기실 전부일지도 모를 일들에 헌신하는 활동가는 대개 특별한 의지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나 같은 '저질 의지'의 인간도 활동가일 수 있는 것을 보면, 그건 좋은 이들을 만나고 그들의 '본'을 보면서 서서히 체득해간 어떤 삶의 방식이 있어서 가능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를테면 내가 인권운동사랑방의 벗들을 만나 사귀 과정들이 그러했을 것이다. 돌이켜보니, 개굴과 그의 친구들을 밀양으로 초대하여 인권교육 강좌를 한 것이 사랑방

과의 만남의 시작이었던 것 같다. 몇 번 사랑방 사무실에서 함께 마시며 놀던 기억이 특별히 행복했던 나로서는 이들과 사귀면서 당시 내가 겪고 있던 학교 안팎의 어려운 싸움들로 얻게 된 심적 고통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씩씩하게 싸우고, 골똥하게 일하고, 또 유쾌하게 놀 줄도 아는 사랑방의 친구들을 보면서 부질없는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겨우 한 달에 후원 조금 한 게 전부인데, 사랑방의 벗들은 나에게 너무 큰 도움을 주었다. 작년 1월 16일 이치우 어르신이 분신 자결하셨을 때, 그 이후의 투쟁 상황을 어찌해야할지 몰라 갑갑하던 나는 제일 먼저 '장의사' 박래군 선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가 학교에서 일제고사 싸움으로 지쳐있을 때 한밤중에 날아드는 알콜성 메시지로 나를 격려해 준 친구는 개굴이었다.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뭐가 말을 하거나, 글을 써야할 일이 있을 때 나는 한낱의 글을 찾아읽게 되고, 밀양송전탑 싸움에서 뭔가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떠올리는 이는 변호사가 아닌 류은숙 선생이다. 지역에서 영화제를 해야겠다 싶거나 뭔가 영화적인 소스가 필요할 때 떠오르는 이는 일숙이고, 실제로 나는 인권영화제의 VHS 테잎으로 학교 아이들을 적잖이 빨갱게 물들이거나, 흑색을 덮어씌우기도 하였다. 사랑방에서 만난 밀양 친구 명수와 그의 아내 혜영의 이름으로 내건 현수막은 지금도 밀양시내에서 관변단체들의 현수막 한가운데서 나부끼고 있으며, 지역만리 브라질에서는 팽이눈이 아직도 나를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지금껏 밀양 송전탑 싸움에서 내용적으로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인권침해 조사단 보고서'인데, 그 보고서는 민선을 비롯한 한 무리의 인권활동가들이 만들어준 것이다. 미류는 강정에서 활동하던 밴드와 함께, 밀양으로 와서 노래란 트로트, 가수란 나훈아 송대관 밖에 모르는 어르신들에게 국적불명의 노래로써 문화충격을 선사해 주었다. 고작 한 달에 1만원 후원금 내고 지금껏 그들에게서 받은 은사의 목록을 나열하자니 끝이 없다. 그런 사랑방이 이제 겨우 성년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그럼, 그동안 내가 알던 사랑방은 10대 '고삐리'였다는 건가? 살짝 속은 기분은 나만의 느낌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사람은 다 아는 용산 모기장 왕자,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이종희 _ 밤새워 만든 <인권하루소식>으로, 쫓기면서도 끝내는 스크린을 세웠던 인권영화제로, 인권의 개념이 희미하던 시절에 인권을 각인시켰던 사랑방이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을 기어코 성사시키기 위하여 눈이 펄펄 내리던 명동성당 들머리 계단 비닐 아래에서 추위에 벌벌 떨던 곳도 사랑방이었습니다. 팽택, 용산에서부터 지금의 쌍용차까지 생존의, 투쟁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하는 사랑방이 있기에 인권은 이제 없는 자의 인권으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할 사랑방이, 용산 장례식장에서 같이 지냈던 사랑방 친구들이 좋아서 더 좋습니다.

정인 _ 거리에서 본 깃발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어정쩡하게 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을

시작했어요. 사랑방에 처음 가 본 날, 맛 나는 밥을 얻어먹고는 활동하기로 마음을 더욱 굳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또 어쩌나 그리 시크하고 매력적이던지. 그렇게 사랑방과 맺은 연이 5년이 다 되어 가네요.

활동은 겨우 일 년 조금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사랑방 엠티 오락시간 MC도 한 번 해 봤네요. 사랑방 자원 활동 하면서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보안법 공부도 해 보고, 우리 물 지키겠다고 밀양도 가보고, <인권오름>에 기사도 써 보고, 용산이나 평택에도 가고... 현장에 가 볼 때면 무력감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었죠. 짧은 시간이었지만 나름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튼 무지 게으른 저에게는 다이내믹한 날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랑방 동료 활동가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정말 만약 혁명이 일어나면 인권 활동가들이 제일 먼저 다 죽을 것 같다'고.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라면 몸을 불살라버리니까~ 착하니까~ 제가 만난 사랑방, 영화제, 들 사람들은 차분하고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아, 집회 때는 목청이 참 커지긴 해요. ㅋㅋ) 인간적인 세상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대들을 보며 '사람이 희망'이라는 믿음이 더 강해졌어요.

사랑방의 과거사는 술자리에서 들은 게 전부인데요. 20년이라니. (제가 살아온 시간과 비슷하네요. ^^;) 한 단체가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오기 위해서는 고비도 많았을 것 같고, 또 그만큼 즐겁고 의미 있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인권운동사랑방은 아마 한국 인권운동의 산역사? 아닐까요. 아하하. 이 땅의 진보를 위하여,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금처럼 든든하게 우리 곁에 있어 주길 바랍니다. 활동할 때도 활동보다 술만 열심히 먹으러 다녀서 그런가, 언제나 미안한 마음이 한가득하지만, 사랑방과 함께한 날들을 생각하면, 살아 있는 느낌, 그느낌적인 느낌!이 떠올라요.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자꾸 자원 활동 시기를 미뤄도 괜찮겠소? 인권운동사랑방은 쭉욱 존재할 테니까~
자 그럼, 응원은 이쯤하고, 20주년 축하기념 술 한잔해요. ^^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윤 가브리엘 _ 성년이 된 '인권운동사랑방' 축하해요! 시간을 뒤로 돌려 1990년대 중, 후반쯤이었을까, 한겨레신문에 실린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 서준식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다. 칼럼이 무슨 내용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인권운동사랑방'이란 이름이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기억은 난다. 이름이 멋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사랑방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궁금해 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서준식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는 기사를 본 기억도 난다. 이름이 멋있는 그 단체에 뭔가 부당한 일이 벌어졌구나 생각했지만 그때 나는 봉제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 노동자였고, 지하에서만 상대를 찾아야 하는 동성애자로 살아가고 있었다.

뒤로 돌린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리면 나는 HIV/AIDS 감염인이 된다. 2004년 나누리+가 조직돼 에이즈 인권운동을 시작했을 때 기존 활동가외에 관심을 가지고 제일 먼저 찾아온 활동

가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였다. 인권운동사랑방은 나누리+의 활동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함께 싸우고, 연대해 주었다. 2004년 HIV/AIDS 인권지침서를 만드는 작업부터 시작해 2005년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를 헌혈기관에 제공하는 문제, 2006년 반인권적인 에이즈 예방법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2008년 에이즈치료제 '푸제온' 공급 거부 '로슈' 규탄 공동행동, 2006년부터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을 HIV/AIDS 감염인 인권의 날로 만들어 토론회, 캠페인, 문화제, 기자회견 등. 이 모든 활동에 함께해준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름만 멋있는 단체가 아니었다. 실천하는 활동가들이었고, 낙인과 차별로 고통 받는 HIV/AIDS 감염인의 인권을 자신의 인권처럼 생각하며 누구보다 큰 목소리를 내주었다. 이 땅에서 지지 받지 못하는 HIV/AIDS 감염인에게 그 목소리는 감동이었고, 그들의 활동은 빛나는 아름다움이었다. 그 빛나는 활동에 힘입어 인권운동 진영에 에이즈 인권문제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이 지면을 통해 인권운동사랑방에게 무한한 고마움을 전한다. 어엿한 성년이 된 '인권운동사랑방'의 스무 살을 축하하며 앞으로도 빛나는 활동을 기대한다.

인권영화제에서 진로를 찾은 영상번역가 여은 _ 인권운동사랑방은 제 삶의 변곡점과도 같은 곳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넓혀나가던 대학 초년생 때 처음 인권영화제 자원 활동을 시작하면서, 고등학교 제도권 교육이 보여주지 않던 인권의 여러 현상들과 비로소 마주하게 됐어요. 인권감수성이 돌아나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된 거죠. 인권의 현장에 달려가는 활동가들을 따라서 목도하는 현실은 슬프고 아팠습니다. 안다는 것은 고통이라고 하던가요. 하지만 활동가들이 보여주는 에너지와 고민은 제 삶을 풍부하고 깊이 있게 해주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든든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학생 신분에서 노동자가 되면서 제게 인권은 피부에 보다 더 와 닿게 됐어요. 삶을 통해 끊임 없이 스스로 재정의하고 되살려야 하는 것임을 깨달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랑방에서의 체험은 제가 둔감해지려고 할 때는 두드려주고, 쉽게 체념하려고 할 때는 다독여주는 마음속 기둥이 되어줍니다. 소중한다는 말로는 그 고마움과 애뜻함을 모두 담지 못할 거예요. '진정성'이라는 말이 빛을 바랜 요즘에도 묵묵히 '진정성'을 지켜나가는 사랑방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멀리서나마 언제나 응원해요, 사랑방!

좌표를 움직이는 활, 인권공간을 꾸리고픈 기선 _ 인간의 밑바닥을 마주친 것 같은 격렬한 싸움 한 가운데에서도 엄두가 안나도록 영킨 생각실타래를 쥐게 되었을 때도 나란히 걷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게 시작할 수 있지! 주고받는 이 신뢰가 인권운동사랑방의 가장 큰 힘. 그 힘을 20년이란 시간동안 엮어낸 당신들이 참 자랑스럽고 고마울 뿐.

한국계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진짜 이쁜이 기즈베 _ 해화동 사무실 시절 그 많던 자료

에 대박 놀랐던 기억이 크게 남아요. 20년 동안의 기록, 그리고 순간순간 수많은 고민들을 빨리 듣고 싶어요. 20년의 긴 역사를 단박에 욕심 내 알고자 하는 게 압채 같지만 빨리 듣고 싶어요. 20년. 정말 수고 많았어용!!!

동동거리는 윤경 _ 사랑방 20주년 축하합니다.^^ 사랑방을 알게 된 건 10년쯤 된 것 같고, 사랑방의 사람들과 인연을 맺은 건 4년이 채 안된 것 같아요. 사람들을 보기 전에 사랑방은 ‘철갑거북이’ 같은 느낌이랄까? (이게 무슨 느낌인지는 그냥 같이 느껴주세요;) 사람들을 만나고 나서 사랑방은… ‘타조’같은 느낌…크크. 억울하고 힘없는 이들과 같이 울고, 화내고, 싸우는 사랑방 이들을 보며 늘 배우고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20주년을 맞이하며 우리는 ‘지금까지’ 이만큼 해왔어!가 아니라 ‘내일’부터는 무얼할까?를 같이 이야기하자는 회동 제안에 정말 사랑방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동 제안에 기꺼이 응하는 것으로 답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사랑방활동가들이 늘 건강하길 바랍니다.

난 hot한 양유 _ 사랑방의 스무 살을 축하합니다! 만수무강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_ 가을 햇살과 바람을 사랑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입니다. 스무 살이면 무엇을 할 수 있는 나이인가요? 연애를 해도 괜찮을 나이죠. 술을 마셔도 괜찮을 나이죠. 한 참 무엇이 되고 싶다고 꿈을 마음껏 꾸어도 괜찮을 나이죠. 어디든지 여행 간다고 나서도 괜찮을 나이죠.

인권운동사랑방 축하드립니다. 이제 무엇을 하여도 괜찮은 나이가 되셨습니다.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혼자 견디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나이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무게가 점점 느껴져 가는 것이지요.

요즘 세상에는 운동 인권입니다. 너나없이 인권을 말하고 있고 인권교육, 인권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서 언론에서 범죄예방이라는 cctv에서 인권이… 숨이 차고, 막혀 죽을 지경 같습니다.

그래서 스무 살이 괜찮지가 않습니다. 인권의 숨통을 트게 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스무 살이니 해야 할 일입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 인권운동사랑방의 열정과 에너지가 큰 보탬이었습니다. 같이 가는 인권의 길에 저희도 곁에 있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사랑방의 따스한 온기 같은 인권을 같이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울산 최민식 _ 축하드려요. 한양으로 축하하러 갈까 고민 중입니다. 사랑방! 길잡이가 되고, 희망이 되고, 늘 그렇게 그 모습으로 앞으로 20년 기대합니다. 서준식 선생님 보고 싶다!

노란들판에서 휠체어를 끄꽁 밀고 있는 교장 박경석 _ 아주 아주 오래된 어느 날이었습니다. 20으로 시작하는 어느 날이 아니라 19로 시작하는 세월이었지요. 내가 인권운동사랑방을 멀리서 침 흘리며 부러워하는 곳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만나서 '인권'이라는 것이 번지르한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사건이 '에바다문제해결을위한연대회의'를 구성하고 투쟁한 것이 그 계기입니다. 그리고 인권운동사랑방이 도가니와 같았던 '에바다'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연대했을 때 오래되고 지쳐가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창립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때는 같은 회화동에 있었던 가까운 친구로, 노동장애인아학도 20주년이니 같은 해 함께 출발했던 동기로, 활동의 방식은 조금 다를 수 있어도 바꾸고 싶은 세상의 모습은 같은 모습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투쟁하는 동지로, 인권운동사랑방이 앞으로도 사이비 인권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소수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언제나 함께 했으면 합니다. 힘든 세월이지만 꼭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서로 힘주고 힘 받으며 바라보고 싶습니다.

김호열 _ 파업을 하면서 만나게 된 인권운동사랑방, 그리고 인권 활동가들. 노동기본권에 대한 탄압은 결국 인권의 문제였습니다. 노동권 파괴의 양상은 인간의 존엄을 직접 타격의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의 열정은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활동가 여러분들의 투지에 감사드리며, 저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의 파업투쟁이 인권확보에 작은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변함없는 열정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풀뿌리운동에 살맛나는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_ 2012년에 '인권운동가+풀뿌리운동가' 우리 한번 만나를 함께 기획했던 이음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20주년을 정말 축하드리구요, 한번 만남은 너무 아쉬웠어요. 또 한 번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지역사회에 인권이 뿌리내리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인권이 새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요. 정말 축하드려요.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박주영 _ 차별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인권이 짓밟히는 사회에서, 사람들의 건강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20년간 걸어온 인권지킴이로서의 길은 민중들의 건강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지나온 20년을 축하하며 앞으로 만들어갈 길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도 늘 응원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스무 살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사건을 너무 좋아하는 김일란 _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가와 처음 전화를 했던 때가 생각난다. 2008년 겨울, 서울인권영화제 프로그램이었던 일숙에게 전화를 했다. 문의를 어려워하는 내게 일숙은 "사랑방의 문턱은 높지 않아요~~"하며 특유의 시원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었다. 그 후로 자주 드나들게 되었던 인권운동사랑방. 언제나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와 주는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 그들을 볼 때면 언제나 든든하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언제나 함께 만나서 고민을 나누고, 일을 모색하고, 든든하면서 따뜻한 친구로 남아주었으면 좋겠다. 인권운동사랑방 20주년~~ 와우...축하해요~~~^^

신난다의 난다 _ 충정로 오르막길을 오르며 한탄(?)했던, 사랑방 방문의 첫 기억! 지금 사무실도 비슷하지만요ㅋㅋ 갈 곳 없는 청소년활동가들의 고마운 아지트가 되어준 사랑방. 그 공간에서 회의도 하고 논쟁도 하고 피켓도 만들고 덩가덩가 놀기도 하고 밥도 먹고... 20년의 시간을 모두 함께한 것은 아니지만, 웬지 오늘의 저에게도 인권운동사랑방의 활동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듯 한 이 느낌은...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가슴 벅찬 느낌! 그리고 사랑방 하면 역시 맛있는 밥. 따뜻하고 푸짐한 밥상처럼 든든한 인권 활동을, 앞으로도 쭉욱 함께 만들어가고 싶어요. 사랑방 식구들 모두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20주년 축하해요~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사랑방을 처음 만난 옥순 _ 10주년의 충격, 20주년에서도?! 기대됩니다. 사랑방의 운영원칙을 비롯해 사랑방의 새로운 실험들이 계속 기대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_ 인권운동사랑방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올해 22주년을 맞이했으니, 우리 참 비슷한 시절을 비슷한 햇수만큼 살아왔네요. 돌이켜보면 그동안 반성폭력운동과 사랑방의 활동이 촘촘하게 만나는 구석은 적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맺고 있는 느슨하고 짙은 연대의 끈이 각자의 활동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20년 동안 인권운동사랑방이 한국사회에 제시해온 무수한 질문들과 인권의 의미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인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랑방의 힘 있는 인권운동을 기대하고 지지하며 함께하겠습니다. 20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흥겨운 회동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작은자 _ 팩스로 하루소식을 받아보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성인이 되었군요.^^ 늘 가장 낮은 곳에서 소외된 이들의 소리를 들려주시길...

사랑방과 한지붕 아래 사는 게 너무 좋은 루트(정주연) _ 마감을 넘긴 이 시점에서 꼭 글을 쓰겠다며 기다려 달라한 것은 너무나너무 많은 사랑방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사실 너무 많아 여기에 다 적기도 힘들 듯... 암튼 우선 10주년에 이어 20주년까지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 말부터!

지금은 인권교육센터 '들'에서 일하며 사랑방과 한 지붕 생활을 하고 있지만, 10여 년 전에 내가 일하던 단체는 '빼끼스(PICIS,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라는 반세계화운동을 하던 곳이었다. 반세계화운동과 더불어 우리단체 여성 활동가 대부분은 '운동사회 권위주의와 가부장성 철폐를 위한 여성활동가모임'과 '운동사회성폭력뿌리뽑기 100인위원회' 활동에 열성적이었다. 이 활동은 많은 논쟁과 진보진영에 큰 파장을 가져왔다. 사실은 지지와 반대로 나뉘었지만 반대그룹은 반대를 드러내면 더 큰 비난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침묵으로 일관하던 시기였다. 당시 우리 조직은 한 단체의 사무실에 얹혀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개한 명단에 그 단체의 위원이 속해있었고 심기가 불편했던 그 단체에서는 한겨울에 우리에게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뭐 그 당시 기막힌 이야기는 여기서 접고, 암튼 당시 막막하던 우리 활동가들은 사무실 보증금 마련을 위해 각자 보증투쟁에 나서서 돈을 벌어오고 약간의 보증금이 마련되자 새 사무실을 찾아 영하 18도나 되던 그 겨울의 추위와 싸워가며 사무실을 구하러 다녔다. 하지만 너무 적은 보증금에 알맞은 장소를 찾기는 너무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때,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우리의 소식을 듣고 의논한 결과 당시 해화동에 있던 사무실 5층에 영화제 짐이 가득했던 방을 차임 우리에게 내준다고 오라는 것이었다. “오, 이런 감사할 일이!” 우리 모두는 망설임 없이(염치는 접고 ㅋㅋ) 입주를 결정했다. 그런데 그냥 들여만 보내줘도 감지덕지일 텐데, 너무 추운 옥상 층이라서 난방을 위해 바닥에 전기판을 깔아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무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랑방에서 공사를 해주어(공사비는 지급했던 것 같지만) 이사를 했고, 그로부터 빼끼스가 해체할 때까지 일 년 넘게 한 지붕 생활을 했다. 지금은 '들' 활동가로 다시 한 지붕 생활을 하지만 그때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 한자 꼭 적고 싶었다. 사랑방이 진짜 사랑 넘치는 곳이었던 기억 한 자락을 꺼내보며, 앞으로도 사랑방의 활동이 이 사회에 촘촘하고 힘든 곳에 사랑을 가득 채워 가는데 지지와 연대를 함께 보낸다.

사랑방의 전화를 거절 못하는 이호중 _ 사랑방이라는 이름은 언제 들어도 참 멋집니다. 인권의 문제가 있는 현장이라면 어디나 달려가서 푹푹푹푹 사랑방을 짓는 사랑방 사람들입니다. 훈훈하면서도 강렬한 활동의 힘을 솟구치게 하는 모습은 언제나 든든하더군요. 사랑방의 그 열정과 강인함은 나에게도 커다란 자극이 된답니다. 많이 배워요, 정말. 사실 요즘 힘들잖아요... 대한문을 다녀온 날은 정말이지 부글부글합니다. 국경원 생각하면 참담하구요. 거꾸로 가는 세상을 함께 이겨내는데 사랑방 친구들이 커다란 힘이 되겠지요.^^
사랑방 20주년 정말정말 축하합니다!!!! 그래도 천주교인권위원회보다는 동생이라는 소문

이...ㅋㅋㅋ 9월 28일 회동에서 힘찬 몸짓으로 내일의 인권을 만들자구요. 그대의 열정과 전 투력을 보여줘~~~~ 함께 하겠습니다.

여행바라기 메달 _ 사랑방이 벌써 20년이라니... 대박 대박 대박 사건^^ 인권센터가 아닌 사랑방이 주는 어감... 뭔가 따뜻하면서도 뭔가 오글거리기도 하는 ㅋ 압튼 단체 이름은 잘 지은 것 같음. 20년의 발자국 고이 새기며 언제든지 찾아가면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줄 수 있는 후덕한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방 파이팅~~~

맑고 향기롭게(안나&보소) _ 작은 첫걸음이 어느새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20주년을 맞이했네요. 대한민국의 인권 지킴이, 인권운동사랑방이 있어서 늘 마음 든든하고 뿌듯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인권 선진국이 되는 그날까지 늘 변치 않는 걸음 기대합니다. 진심으로 인권 활동가 한분 한분께 감사드리며, 늘 응원할게요!

이쁜 유아 _ 20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20년은 거뜰하리라 믿습니다^^

노동기본권과 인권을 사랑하는 박병우 _ 언제나 힘들 때 함께 비를 맞아주는 사랑방 동지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20년을 걸어온 동지들을 항상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노동기본권과 인권이 나란히 이 땅에서 제대로 존중받는 그날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권운동 20년! 사랑방 동지들 축하드립니다!!

살아갈 힘이 되는 밥 사라^^ _ 무섭고, 더럽고, 게으르다고 보는 사람들의 편에서 서서 기꺼이 목소리를 내주던 사랑방 사람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이렇듯 가장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되찾아주기 위해 민감한 감수성을 갖고 현장에 찾아와서 함께 투쟁하는 그대들의 모습에 격한 감동과 힘찬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도 인권운동사랑방이 일궈가는 20년 된 열매의 속이 더욱 더 실하게 채워지기를 홀리스행동도 응원하겠습니다! ^^

강정에 평화바람 오두희 _ 1995년 여름. 인권하루소식 같은 형식의 소식지를 시골에서 만들어 보려고 인권운동사랑방을 찾았다. 서울은 지금도 낯설지만 남영동대로 길 옆 2층 건물. 시끄럽게 들려오는 차 소리, 햇빛이 창을 통해 깊이 들어오는 무더운 여름 어느 날 오후. 무심한 표정의 남자(나중에 알고 보니 박래군)와 편안하지 못한 상담 - '운동도 유행이라니 같은 사람들 많이 왔다갔거든... 할 수 있으면 해 봐. 하지만 쉽지 않을 걸...' - 뭐 이런 인상을 받고 돌아오면서 '이런데서 그런 훌륭한 인권소식이 만들어지다니!'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

렇게도 무뎡뎡하지? 그날의 첫 느낌은 별로였지만 매일매일 받아보는 인권하루소식의 단호한 필체, 확실한 주장, 노자간의 계급투쟁만 생각하다가 다양한 생각의 지평을 열어준 매력에 푹 빠져 전북지역에서도 '평화와 인권'을 발행했고, 마치 인권운동사랑방의 지역 지부 같은 역할과 행세를 해왔다.

그들은 자발적 가난을 실천하며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집요한 의지와 연구, 활동을 통해 가히 인권운동의 아우라를 형성했다. 시골에 있는 우리들은 그들 앞에 설 때면 그 아우라에 주눅 들고 시샘이 났지만, 범접 할 수 없는 ভাল을 어찌겠는가! 그런 아우라가 없는 난 몸으로 뛰는 수밖에...

20년 성년이 되었다고 한다. 가끔 사랑방엘 가면 후원회원이 보내온 감자, 고구마, 쌀, 밀반찬 꾸러미를 보게 되는데 이를 보면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된다. 장맛과 사람은 오래 묵어야 좋다고 하던가! 하지만 제 집한 채 갖지 못하고, 서향집에서 서향집으로, 2층에서 3층으로, 3층에서 산중턱으로, 산중턱에서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사람대접 받기 위해 철탑까지 올라가는 세상에 그래도 '우린 괜찮다'고 환하게 웃는 그대들이 서럽게 좋다.

인권운동의 종가집 같은 그곳, 떠날 사람 떠나고, 출가해서 분가시켰으니 이제 우리 운동의 전통인 체제반란을 꿈꾸는 산실이 되어다오! 난 언제나 그대들의 시골조직원이 되리라!

홀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이동현 _ 20년, 얼마나 고되셨나요? 처음 활동을 시작할 당시에는 안 그랬겠지만, 이제는 인권이 누구에게나 당위로 여겨지는 세상인 듯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권은 허공에 매인 십자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인권운동사랑방은 이런 인권을 사람들 속에 스며들게 하는 역할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이 제 멋대로 입장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현실의 빈곤과 탄압을 이겨내는 무기가 되도록 하는 활동...20년을 기점으로, 다시 힘을 모으셔서 인권의 가치로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활동을 펼쳐내실거라 믿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주민 _ 예전에 대학 다닐 때 처음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벌써 20년이라니, 매우 축하할 일이고 다행한 일입니다. 최근 같이 활동하게 된 많은 인권운동사랑방분들의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모습에 매번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앞으로도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주세요. 저도 힘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사랑방의 역사 대부분을 함께 한 박래군 _ 인권운동사랑방 역사 20년, 그 20년의 시간 대부분을 함께 했던 나는 분명 인권운동사랑방에 많은 빛을 지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인권과 인권운동을 배웠고, 사람을 만났고 원 없이 활동을 했지요, 서준식 대표에게 새로운 인권단체가 왜 필요하냐고 물었던 인권의 문외한이었던 내가 새벽 전철을 타고 나와 <인

권하루소식》을 만들고, 경찰의 원천봉쇄 속에서 인권영화제를 하고, 비폭력불복종운동의 원칙을 현장에서 실천하다가 감옥도 들락거리는 인권운동가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1990년대 이후 한국 인권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왔습니다. 인권교육을 시작한 곳도 인권운동사랑방이었고, 인권활동가 중심의 인권단체의 가능성을 보여준 곳도 인권운동사랑방이었지요. 권력과 자본에 종속되지 않고 운동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가난한 활동가의 길을 찾아가기도 했던, 어쩌면 까칠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함께 밥을 지어먹었던 기억들, 새까만 나이의 활동가들과도 격의 없이 어울렸던 기억 등은 인권감수성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지요.

인권운동사랑방을 떠나고 보니 내가 얼마나 빛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내가 의지하고 살았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지금까지 20년 잘 살아왔고, 잘 해왔는데, 앞으로 20년, 인권운동사랑방이만 들어갈 인권운동의 역사가 궁금해집니다. 이제 변혁을 앞세운 인권운동의 길을 어떻게 개척해갈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후배 활동가들이 열심히 고민하고 활동하는 모습 속에서 나 또한 자극 받고 배우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20년, 인권운동의 길을 만들어왔듯이 앞으로 20년 새로운 길을 열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더 넓게, 더 깊게 뿌리내리는 인권운동사랑방이길 응원합니다.

주거권계의 품절남^{^^} 이원호 사랑방을 만나기 전부터, 인권하루소식을 통해 억압받고 소외받는 이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편에서 활동해온 인권운동사랑방의 20년 역사에서, 조금은 가까이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니 기쁘고, 뿌듯하네요.

인권운동사랑방 20년 축하해요, 용산의 진실,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이후로도 더욱 함께 가요~.



20주년

상식이 통하는 세상은 꿈꾸며,
앞으로도 경씨 주세요.

원필

회동_모여서 움직이다

펴낸날 2013년 9월 28일

펴낸이 인권운동사랑방

디자인 투잡그룹(김유라,고애련)

펴낸곳 인권운동사랑방

주소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24길 49

전화 02-365-5363

팩스 02-365-5364

이메일 humanrights@sarangbang.or.kr

홈페이지 www.sarangbang.or.kr

** 세상을 뒤집을 '조직책'이 되고픈 바람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기꺼이 그 배후가 되어주셔서 소셜펀치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